



襄陽文化

제36호



양양도호부 관아복원조감도

襄陽文化院

양양10경



1경 남대천



남대천의 발원은 오대산 두루봉이며 후천은 점봉산과 구룡령에서 발원하여 약 54Km의 하류 서문천에 합류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청정수역이다. 봄에는 바다에서 온어, 황어 가을에는 연어가 소상하고 겨울이면 시베리아에서 큰고니(백조)가 찾아오는 회기 본능의 강이며 양양군민의 식수원이다.



6경 죽도정



죽도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편에 죽도는 부 남쪽 45리 관란정 앞에 있으며 푸른 대나무가 온 섬에 가득하다. 섬 밑 바닷가에 구유같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 「둥근 돌이 그 속에서 이리저리 구르고 달아서 오목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으며, 최근 해변에는 수상 레저를 즐기는 마니아들로 북적인다.



2경 대청봉



국립공원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1,708m)은 서면 오색리 산1번지이다. 조선 정조 때 문인 성해응의 「동국명산기」에 「그 봉우리가 높아서 높고 푸른 하늘을 만질 듯하여 그 최고 정상을 가리켜 청봉이라 이름 하였다」고 하며 정상에서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7경 남애항



남애항은 양양군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아름다운 1종 국가어항이며, 강원도 3대 미항 중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안동의 양산현(楊山縣)에 봉수대가 있었으며, 아편전쟁에는 마을 아인들이 직접 잡은 상한 생선이 넘쳐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어촌 체험 항이다.



3경 오색령



원래 이름은 소솔령所率嶺이었으나 조선 선조(1596년) 때부터 오색령(1,004m)으로 고쳐 불려 있으며, 현재 44번 국도로 영동과 영서의 분수령이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경관도로 제54선으로 선정되어 가을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운집한다.



8경 의상대



의상대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좌선 수행처이다. 매월달 김시습이 낙산사 주지에게 보낸 시문과 단원 김홍도의 「해동명산도첩」을 미루어 볼 때 16세기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8호와 양양군 명승 제27호로 지정된 동해 일출의 명소이다.



4경 주전굴



오색 약수터에서 선녀탕을 거쳐 점봉산(1,424m) 서쪽 비탈에 이르는 계곡이며, 우연스레 12세에 출가한 오색석사와 주위에 독주암, 만물상, 만경대, 선녀탕, 웅소폭포, 12폭포가 있어 운치를 더해 주며 가을 단풍이 백미이다.



9경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출토된 신석기 유물과 오산리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이 전시, 재현되어 있다. 볼 파운 자리가 발견된 움집터에 직접 들어가 보는 움집 체험과 깨진 빚살무늬 토기, 움집을 복원하는 퍼즐 체험 등 특별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마치 선사시대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5경 하조대



양양군 명승 제68호로 지정된 하조대는 고려 말 명연이 하륜과 조준이 한 때 은거했던 곳이라 하여 두 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암절벽이 우뚝 솟아 있는 육각정자와 애국송은 동해 일출의 명소로, 조선 숙종 때 양양부사 이세균이 정자 앞 바위에 하조대라고 쓴 암각문이 남아있다.



10경 양양 서핑로드



현포면~현남면 바다 일원에서는 어디에서나 검은 슈트를 입은 서퍼들이 정점이 바다를 운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심이 얕아 초심자들이 서핑을 시작하기 적합해 항상 사람들이 북적이며 서핑의 성지라 불린다. 이 구역을 양양 서핑로드라 지명하여 10경으로 선정하였다.

襄陽文化

제36호



襄陽文化院

PHOTO CLUB



2024 양양문화원 정기 총회



2024 문화학교 개강식



제9회 전국한시지상백일장 심사



제46회 양양문화제 만세운동재현행사



제46회 양양문화제 농악시연



제34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학연구발표대회(영월)



실버스타K 양양여울소리민요단



제29회 도사물놀이경연대회(홍천)



제7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문화원회원및문화학교수강생 유적지답사(춘천)



제14회 전국동구리전통민요경향대회



하억봉대금강좌 종강식



향토문화교육(답사)



강원문화대축전(인제)



문화학교수강생 작품전시회 테이크컷팅식



문화학교 수료식

행복한 오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늘 함께하는 양양새마을금고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이웃처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금융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MG양양새마을금고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59

TEL : 033) 671-4413 . 4414

FAX : 033) 671-4415

이사장 : 김 주 혁

전 무 : 이 준 희

| 목차 Contents

발간사 양양문화원장 박상민	6
신년사 양양군수 김진하	7
신년사 양양군의회위원장 이종석	8
신년사 국회의원 이양수	9

향토사료

● 滿月山明珠寺의 來歴과 位相에 관한 小考	10
-------------------------	----

2024 문화학교 소개

● 2024년도 문화학교 소개(활동사진및수상,공연내역) 편집실	65
● 2024양양출신 조선천재음악가 허억봉 선양사업 대금반 편집실	74

양양소식지 자료

● 낙산사 관음송(觀音松) 이야기외(1-12월) 편집실	76
----------------------------------	----

제9회 전국한시백일장 입선시

● 장원, 차상, 차하, 참방, 가작 편집실	100
----------------------------	-----

양양 구석구석

● 걸으면 행복한 코스 편집실	124
--------------------	-----

건강상식

● 스트레칭	126
--------	-----

2024 양양문화원 언론홍보 현황	131
--------------------	-----



양 양 문 화 원 장
박 상 민

희망찬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과 문화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며 지난해에 보살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그 어느때보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 환경의 악화로 인한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람된 일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한마당 축제인 양양문화제의 개최 장소를 종합운동장에서 잘 가꾸어진 남대천 수변공원으로 옮겨서 고령화시대에 군민들이 행사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연행사도 외부 연예인 초청이 아닌 지역내의 문화 동아리들의 경연을 실시함으로써 군민들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사료인 양양도호부 관아 복원과 정비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여 관아 복원의 필요성과 역사적 가치를 드높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을사년 한해에도 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적 사료들의 발굴과 보전, 전승 및 시대 흐름에 걸맞는 문화창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성원속에서 우리 고장의 찬란한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첫 일출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 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와 직관력을 상징하는 청사(靑蛇)의 해를 맞아 올바른 지성과 빠른 적응력으로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 가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는 언제나 새로움과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불러오지만, 또한 비장한 각오와 책임도 뒤따릅니다.

오직 굳세고 단단한 걸음으로 완성도 있게 군정을 다져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지난해까지가 민선 8기 군정의 싹을 틔우고 양분을 주는 기간이었다면, 3년 차 중반에 접어든 올해는 단단한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설악의 하늘길을 열어줄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6월 가설삭도 설치와 함께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2018년부터 긴 호흡으로 준비해 온 양양군 육아지원센터가 지난해 5월, 도내 최초로 출산에서 보육, 가족과 건강까지 고려한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완공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행복한 울림이 되도록 더 세심한 출산·보육 정책을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의 건강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양양볼링장과 다목적센터는 이미 군민의 여가 공간이자, 실내 체육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현남면과 강현면 생활체육 공원이 확충되면서 건강한 삶을 누리며 행복을 두 배로 더해 줄 것입니다.

물의 흐름을 막지 않으면서 제 할 일을 다하는 징검다리처럼 그렇게 을사년 새해의 군정을 다져가겠습니다.

모두의 미래가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찬 책처럼 그 페이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쁨과 설렘이 가득한 을사년 새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택내 두루 만사형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 양 군 수
김 진 하





양양군의회 의장
이 종 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희망찬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됨과 함께 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과 번영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적응하는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권리증진과 생활지원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우리군 발전의 초석이 될 주요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감·예산 등 의안 심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여, ‘내 삶이 나아지고, 내 삶터가 변하는’ 정책과 대안이 도출되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험한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천천히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선부르고 빠른 걸음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길이 되지 않도록 양양군의회는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군민들이 원하는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2025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의회를 믿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을사년 새해엔 매일이 올해 최고의 날이라 여기시며, 군민 여러분이 원하고 꿈꾸던 일들을 차근차근 성취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국회의원입니다.

‘푸른 뱀’의 해, 을사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양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힘써주고 계신 양양군민과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양양은 유구한 향토 문화를 소중히 잘 간직해오고 있는 고장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 온 문화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닌,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뿌리이자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양의 송이 축제와 낙산사의 문화유산, 그리고 동해 바다의 풍요로움 속에서 형성된 양양의 전통은 지역적 특색을 뛰어넘어 전국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뽐내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양양의 소중한 향토 문화와 전통이 세대를 거쳐 그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양문화원 또한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 개발과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해 소망하신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2025년 한 해가 양양의 전통과 미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뜻 깊은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국 회 의 원
이 양 수



滿月山明珠寺의 來歴과 位相에 관한 小考

윤여경 | 양양문화원부설 양양학연구소 소장

I.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만월산 명주사는 고려 시대에 창건이 되었다고 하나 고려 시대의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 시대에는 1757년~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한 『여지도서(輿地圖書)』 방리(坊里) 편¹⁾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절의 규모와 승려 수를 짐작(斟酌)할 뿐이다.

조선 숙종 27년(1701)에 양양부사(襄陽府使) 채팽윤(蔡彭胤)의 기문(記文)에는 명주사 법당 맞은편에 있던 ‘벽옥루(碧玉樓)’의 명명(命名)에 대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이후 지리지인 『양양부읍지』, 『관동지』, 『관동읍지』, 『강원도양양군읍지』, 『현산지』 등에 비슷한 기록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2014년 양양문화원에서 발간한 『양양의 누정대』²⁾와 2022년 발간한 『양양지역의 전통 사찰』³⁾에 약설(略說)되어 있으나 ‘명주사의 역사를 이해’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과거의 명주사는 규모에서도 현재의 명주사보다는 훨씬 컸으며, 속암(屬庵)이 넷이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암자(庵子) 수준의 작은 절로 변하여 찾는 이도 거의 없는 사찰이 되었다.

그 동안은 명주사의 오랜 역사를 문헌적으로 집중 연구하고 검토하여 명주사를 재 조명할 바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근거 없이 인터넷 상으로 떠도는 오류들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였는데 본고(本稿)에서는 역사와 문헌에 나타난 명주사의 모습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재정립하기 위해서 지리지, 사찰 문화재, 불경,

1) 『輿地圖書』 55책. 필사본. 295개의 읍지와 17개의 영지(營誌 : 監營誌 6, 兵營誌 7, 水營誌 3, 統營誌 1) 및 1개의 진지(鎭誌) 등 총 313개의 지지가 수록되어 있다. 제1책~제5책 : 경기도, 제6책~제13책 : 충청도, 제14책~제17책 : 강원도, 제18책~제21책 : 황해도, 제22책~제30책 : 평안도, 제31책~제35책 : 함경도, 제36책~제49책 : 경상도, 제50책~제55책 : 전라도로 결책되어 있다.

2) 『襄陽의 樓亭臺』, 2014. 6월 양양문화원에서 양양지역의 누각, 정자, 대(臺)에 대하여 발간한 책자

3) 『襄陽地域의 傳統寺刹』, 2022.12 양양문화원부설 양양학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자

사찰관련 연구 논문, 범종, 편액, 비문, 한시 등을 살피고 답사하면서 탑을 실측하고 문헌과 비문을 일일이 대조하여 확인에 주력하였다.

우선 명주사가 소재한 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신라말의 우리 지역의 불교사상과 고려 시대의 불교사상의 흐름을 해명 대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신앙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화엄종 승려인 해명 대사가 미륵신앙의 관측사를 세울 당시의 정치 지형을 살펴보고 명주사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명주사의 주불이 비로자나불에서 아미타불로 변하면서 신앙의 변화도 살피고자 한다.

특히, 『건봉사급건봉사말사적』⁴⁾에 나타난 조선 시대의 제 기록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만월산 명주사의 내력(來歷)과 위상(位相)”을 재정립하여 지방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그 첫째로는 연역을 기준으로 흥망을 살피고, 현재 사찰과 과거의 건축 규모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추사의 무량수각 현판에 얹힌 이야기와 사액을 받은 원통암 이야기, 명주사가 원통암으로 이건(移建)된 이야기 등을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풀어 보고자 한다. 특히, 어향각(御香閣)이 지어진 사유를 명주사 역사 최초로 본 고(考)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1704년 주종(鑄鐘)된 울진의 대흥사 종이 명주사로 이안(移安)하게 된 사실도 “대흥사명 범종의 주종기”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명주사는 예로부터 선원(禪院)으로 이름나 많은 학승을 배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위실(弦葦室)의 용도와 만수실(曼殊室), 원통암(圓通庵)의 용도를 밝혀 보고자 한다. 명주사 부도 군은 조선 후기 도내 소재 부도 중에서 가장 빼어난 조각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명주사에 남아있는 비문을 중심으로 연파당(蓮坡堂) 대선사와, 인곡당(麟谷堂)선사, 학운당(鶴雲堂)대선사, 용악당(聳岳堂)대선사를 살피어 보고자 한다. 특히, 1911년 일제의 조선불교 장악에 맞서 총본산 태고사(현 조계사) 건립을 주도하고, 1941년 조선불교 조계종 설립과 해방 후 동국대의 종합대 승격에 기여했던 월정사(月精寺) 주지 지암당(智庵堂) 종욱(鍾郁, 1884~1969) 대선사도 명주사 출신이었음을 밝히며 양양지역은 조선 후기 고승들이 나고 자란 불토(佛土)였으며 이 가운데에서 명주사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Ⅱ. 명주사의 창건과 역사

1. 명주사의 위치와 환경

명주사(明珠寺)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길 93-229(어성전리 488번지) 오대산(五臺山) 기슭의 만월산(滿月山) 자락에 위치한 도량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新興寺) 말사(末寺)이다.

4) 『乾鳳寺及乾鳳寺末寺跡』 1928년(불기 2955년 6월) 한용운(韓龍雲, 1879~1944) 스님이 건봉사와 건봉사 말사에 대한 사찰의 기록한 사찰의 역사서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설악산(雪嶽山)보다는 오대산 월정사(月精寺), 상원사(上院寺)와 관계가 더 깊었으며 신앙적으로도 문수 신앙과 유관(有關)하였다.

지리적으로도 옛날 산길을 이용하여 도보(徒步)로 이동할 때에는 어성전리(漁城田里)가 오대산의 길목이었다. 양양 남대천도 오대산 서대(西臺)인 장령봉(長嶺峯) 밑 우통수(于筒水)에서 발원⁵⁾하여 어성전리를 통과하여 동해에 이른다.

일연의 『삼국유사』에도 우통수가 거론되고 있는데 오대(五臺) 신앙을 정착시킨 신라의 보천태자가 우통수(于筒水)⁶⁾물을 매일 길어 문수보살에게 차(茶)를 공양했다고 한다.

조선 시대 명주사는 원래 스님들이 공부하고 수도하는 강원(講院)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원은 적어도 저장거리를 피해서 산속의 고즈넉한 곳에 위치함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지금도 어성전리에 이르는 길이 59번 국도와 418호 지방도가 개설되어 있으나 불과 50년 전에만 해도 여기에서 양양읍내에 위치한 시장으로 나오려면 새벽밥 먹고 출발하여 바지를 걷어 올리고 맨발로 남대천 물을 반드시 건너야 점심나절에 도착하는 오지(奧地) 중의 오지였다.

이른바 『정감록(鄭鑑錄)』⁷⁾에서 시작된 십승지(十勝地)의 조건을 두루 갖춘 그런 마을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당시는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십승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3.8도선 남쪽으로만 선정하였다. 강원도 영월읍이 제일 북쪽이니 양양지역이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십승(十勝)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승에게는 매우 유리하였고 이런 사유가 사찰 설립의 배경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1) 십승지(十勝地) 조건과 장소

십승지란 조선 시대의 정감록에 전쟁, 재해, 질병 발생 시 백성들이 숨어야 할 안전한 피난처로 거주 환경이 좋아서 자손 대대로 편안히 살 수 있는 10여 곳의 피난처로 한국인의 전통적 이상향으로 기록된 곳이다. 『정감록(鄭鑑錄)』에 근거한 용어로 십승지의 입지 조건은 자연환경이 좋고, 들어가는 길은 좁고 보이지 않으나 들어가면 넓고, 외침이나 정치적인 침해가 없으며, 자족적인 경제생활이 충족되는 곳이었다.

십승지의 구체적인 지리적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풍기 차암 금계촌(경북 영주시 풍기읍)으로 소백산 두 물골 사이에 있다.
2. 화산 소령의 청양현(경북 봉화군 춘향면)이 있는데, 봉화 동쪽 마을로 넘어 들어갔다.
3. 보은 속리산 난중향(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경북 상주시 화북면) 근처로, 난리를 만나 몸을 숨기면 만

5)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대동지지(大東地志)』 등에서는 오대산 서대(西臺)의 우통수를 한강의 발원지로 기록하였다.

6) 강원대 환경학과 전상호 교수의 실측에 따르면 우통수는 오대산 서대(西臺) 수정암 동쪽 60m 지점, 동경 128도 33분 32초, 북위 37도 46분 33초에 위치한다.

7) 『정감록』은 조선시대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던 도참서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예언서로, 여러 가지 감결류와 비결서를 집성한 것이며 이분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저자나 성립 시기는 분명치 않다.

에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4. 남원 운봉 행촌(전북 남원시 운봉읍)이다.
5. 예천 금당실(경북 예천군 용문면)로 이 땅에는 난의 해가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곳에 임금의 수레가 닥치면 그렇지 않다.
6. 공주 계룡산(충남 공주시 유구읍)으로 유구 마곡의 두 물골의 둘레가 2백리나 되므로 난을 피할 수 있다.
7. 영월 정동 쪽 상류(강원도 영월군 영월읍)로 난을 피해 종적을 감출만 하다.
8. 무주 무봉산 동쪽 동방 상동(전북 무주군 무풍면)으로 피난 못할 곳이 없다.
9. 부안의 호암 아래(전북 부안군 변산면)가 가장 기이하다.
10. 가야산 만수동(경남 합천군 가야)으로 그 둘레가 200리나 되어 영원히 몸을 보전할 수 있다.

2) 어성전리(魚城田里)의 빼어난 자연환경

양양 남대천은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명주사가 위치한 어성전리를 거쳐 100km여정으로 바다에 이르는 지혜로운 강이다.

어성전(漁城田)이라는 지명은 ‘물고기가 많아 밭을 이룬다’는 뜻이라고도 하고, ‘물고기가 많고 주변의 산 자락은 성(城)과 같으며 밭이 기름진 곳’이라 해서 붙여진 곳이라고도 한다. 마을 주위는 산으로 둘러싸여 산성(山城) 속 분지(盆地)를 이루어 기름진 전답이 수십만평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오대산(五臺山), 응복산(鷹伏山), 만월산(滿月山)으로부터 발원하여 흘러 내려오는 신비한 하천의 경치는 태백 준령에서 쏟아져 내리는 산세와 어우러지면서 대소(大小) 계곡의 물을 흡수하여 하상(河床)이 넓게 형성되면서 물고기가 많이 서식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풍부한 나무로 장작불 때고 고깃국에 이밥을 먹고 살았다고 한다.⁸⁾

살기 좋고 아름다운 이 고장에 반한 옛 선인들은 어성(漁城) 10경을 꼽으며 풍류를 즐기기도 했는데 이 중 산사모종(山寺暮鍾)은 바로 ‘명주사에서 은은히 울리는 저녁 종소리’를 표현한 것으로 명주사는 예로부터 운치가 그윽한 사찰로 마을과 정감을 교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마을에서 명주사 가는 길로 들어서면 곧게 뻗은 관음송(觀音松)이 정법(正法)의 키를 재며 산풍(山風)으로 염불을 한다. 조금 더 들어가 부도(浮屠)밭에 이르면 수련(修練)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금강송(金剛松)이 고승의 탑호(塔號)에 낀 돌이끼를 그림자로 닦아내며 공(空)한 이치를 알듯, 모를 뜻 일러준다. 일주문을 지나 금당지가 보이는 다리를 건너려는데, 전나무와 은행나무가 500년 장독(杖毒)을 드러내 보이니, 즉시 고불(古佛)임을 알아채고 고개를 숙여 합장하며, 일심(一心)으로 돌아간다.

8) 『襄陽의 땅이름』 1995년 2월 양양문화원 발간



〈그림 1〉 전국 10승지 위치도



〈그림 2〉 명주사표기『여지도서』양양부 지도

3) 어성십경(漁城十景) 창화시(唱和詩)

어성십경은 누가 언제 정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를 바탕으로 한 『어성십경창화시(漁城十景唱和詩)』가 전해져 오는데, 참여 인물과 내용을 고찰해 보면 1917년 4월에 용주(龍洲) 이용선(李容璇)이 시집을 완성하고, 1918년 2월에 지역 유지인 최영택에게 서문을 받았고, 1920년 10월에 발간되었음을 알수 있다.

이 시집(詩集)의 체제는 아래와 같이 12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어성십경을 종합적으로 읊은 것이고, 2장부터 11장까지가 10경이다. 12장은 빠진 사람들의 시를 나중에 덧붙인 것이다.⁹⁾

1. 어성십경총제(漁城十景總題)
2. 운문천석(雲門川石)
3. 오현연수(烏峴煙樹)
4. 화등낙조(花登落照)
5. 은담폭포(銀潭瀑布)
6. 노봉명월(爐峰明月)
7. 용소명탄(龍沼鳴灘)
8. 고적부운(高積浮雲)
9. 내천유어(奈川遊魚)

어성 10경을 함께 쓰다.

운문 냇가에 솟은 바위들의 아름다움
오현으로 퍼져나가는 노을 물든 풍경
진달래가 한 창일 때 낙조의 아름다움
마을 서북방에 있는 은빛 나는 폭포수
노봉산 위에 비치는 저녁달의 아름다움
용소 주변에 흐르는 물소리의 아름다움
높은 산 겹겹이 쌓인 구름의 아름다움
맑은 물속에서 떼지어 노는 물고기들

9) 2020년 양양문화원의 『어성십경창화시(漁城十景唱和詩)』

- | | |
|--------------------|----------------------|
| 10. 산사모종(山寺暮鐘) | 명주사에서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 |
| 11. 모암어적(帽巖漁笛) | 모암에 앉아 낚시하며 듣는 피리 소리 |
| 12. 추 록(追 錄) | 덧붙여 쓰다 |

■ 어성산수록(漁城山水錄)

1917년 4월에 어성십경창화시(漁城十景唱和詩)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용주산인(龍洲散人) 이용선(李容璇)¹⁰⁾이 명주사와 원통암을 중심으로 한 어성전리 주변의 산수와 풍경에 대하여 폭 넓게 소개하여 쓴 어성산수록을 소개한다.

“양양 현산(峴山)의 남쪽 40리(里)에 어성전(漁城田)이 있으니, 산에 둘러 쌓여 성(城)과 같았고 물은 깊어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으며, 골짜기가 깊으나 채소밭(場圃)을 서로 마주하는 것이 한 골짜기 중의 명승지였다.

그 동북쪽의 여러 산은, 곧 오대산(五臺山)의 북쪽으로 만월산(滿月山)의 한 기슭이 북쪽으로 뻗어 와서 80~90리를 가면 큰 바위들이 뒤엉켜 신선령(神仙嶺)·철갑령(鐵甲嶺) 등의 고개와 초전치(草田峙) 등의 여러 산이다. 갑령의 산기슭은 또 북으로 향하여 와서 강령치(綱嶺峙)가 되니, 어성(漁城) 동북의 여러 산이다. …중략)

남쪽으로 명주(溟州)와 강릉의 화비령(花飛嶺)을 바라보고, 북쪽으로 수성(水城), 간성(杆城)의 은봉(銀峰)을 마주하니 무릇 수백 리(里) 내에 천 개의 봉우리와 만 개의 골짜기가 우뚝 솟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별이 늘어서고 바둑돌이 펼쳐진 듯하다. 동쪽으로 푸른 바다를 가리키면 만 리에 바람과 파도가 넓고 넓어 끝이 없어 대장부(大丈夫)의 심회를 펼칠 만하다.

3월부터 5월이 되면 이 봉우리 위에 구름과 달이 담박(淡泊)하게 바뀌어 참으로 사랑할 만하다. 향로봉의 동북으로 1리(里)쯤에 좌우로 갈라진 봉우리가 서로 끌어온 비탈 속 한 언덕에 동쪽으로 자리 잡고 서쪽으로 향한 것을 원통암(圓通庵)이라 한다. 회나무와 소나무가 울창하고 물과 바위가 아름다워 좌우의 산방(山房)이 매우 청정(淸淨)하며 마주하는 곳에 문필봉(文筆峰)이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 전하기를 사는 스님들이 문사(文詞)에 능한 이가 많다고 한다. 암자의 앞의 종각에 범종(梵鍾)이 있는데 항상 저물녘이 되어 어두워지면 한적한 절의 밤 종소리는 고래 소리처럼 요란하다. 환우현(喚牛峴)은 암자의 남쪽에 있고 계명암(鷄鳴巖)은 암자의 서쪽 골짜기 입구에 있다. 길 우측 사모암(紗帽巖)은 암자의 동쪽 몇 리(里)쯤에 있는데 암자의 서북쪽으로부터 한 작은 고개를 넘으면 명주사(明珠寺)가 있으니, 곧 양양(襄陽)의 네 절 가운데 하나이다.

중엽 이래 자주 화재(火災)를 겪었으니 지금은 그 옛터로 인하여 겨우 몇 간의 불사(佛舍)를 기록하였다. 절의 서남쪽을 와우대(臥牛臺)라 하고, 그 동북쪽을 청연암(靑蓮庵)이라 하는데 골짜기에는 예로부터 청연암

10) 이용선(李容璇)의 생몰 연대 등 신상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이 어성십경창화시(漁城十景唱和詩) 시집(詩集)의 발간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로 여겨진다. 그에 관한 기록은 1928년 제작되어 양양 김해김씨 가에 보관된 「용사계(隆師契)」라는 문서에 나타나 있다.

과 무심암(無心庵) 두 암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폐하여졌다.

절의 서남쪽으로부터 청련암에 이르기까지 골짜기에 비석과 탑이 첩첩한데 방산(舩山) 허훈(許薰)¹¹⁾이 지은 『용악선사비명(聳岳禪師碑銘)』 또한 거기에 있다. …중략)

아! 관동(關東)이 비록 동으로 치우쳐 후미진 모퉁이에 있어 산에 의지하고 바다에 막혀 있으나, 풍토(風土)의 아름다움은 교남(嶠南:영남)과 호서(湖西:충청도)보다 뛰어났다. 특히, 어성(漁城)의 산수(山水)와 목석(木石)은 뛰어난 자질을 갖추었으나 고요히 천 년 동안 묻혀있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대체로 우리 동방의 풍속은 산수(山水)를 유람(遊覽)하기를 즐기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세상에 전하여지길 명재(明齋) 윤증(尹拯)이 젊었을 때 운문암(雲門庵)의 절집에서 책을 읽었다고 하나 그 진위는 자세하지 않다.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이 일찍이 향로암(香爐庵)에서 잠시 거처하며 검달동(黔達洞)에서 지초(芝草)를 캐다고 한다. 또, 희암(希菴) 채팽윤(蔡彭胤)¹²⁾이 이 땅에 왔을 때 일찍이 운문(雲門)과 내천(奈川) 사이에서 동료와 사냥을 하며 잡영(雜詠) 몇 편을 남겨서 공의 문집에 실었다고 한다.”¹³⁾

2. 명주사의 창건과 연혁(沿革)

명주사는 고려(高麗) 목종(穆宗) 12년(1009) 혜명(惠明) 대사와 대주(大珠) 대사가 창건하고 사찰의 명칭을 두 스님의 이름에서 한자씩을 따서 명주사(明珠寺)¹⁴⁾라 하였다.

혜명 대사에 대하여는 ‘1006년(목종 9)에 관촉사를 세웠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으며, 관촉사(灌燭寺)은 진미륵(恩津彌勒)과 관련한 전설이 있어 아래에서 따로 정리하겠지만 생몰(生歿)에 대하여는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대주 대사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어 따로 기록할 것이 없다.

11) 허훈(許薰, 1836~1907) : 자는 순가(舜歌) 본관은 김해이다. 지금의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林隱洞)에서 태어났다. 허조(許祚, 1817~허조 ?)의 아들이고 선재(性齋) 허전(許傳)의 문인이다. 저서로는 방산집(舩山集)이 있다.

12) 희암(希菴) 채팽윤(蔡彭胤)은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희암(希菴), 1687년(숙종 13) 진사가 되고, 1689년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검열을 지낸, 도승지·대사간을 거쳐 예문관제학에 임명, 1730년(영조 6) 병조참판·동지 의금부사·부제학을 역임하였다. 경종2년(1722) 1. 3일 양양부사를 제수받아 2년 11월을 재임하였다.

13) 峴之南四十里 有漁城田 山圍如城 水深可漁 林壑窈窕 場圃相望 一峽中名區也 其東北諸山 卽五臺之北 滿月山之一麓 透迤北來 行八十九里 磅扶輿爲神仙鐵甲等 嶺及草田峙諸山也 鐵甲嶺之原麓 又向東北來爲綱嶺峙 卽漁城之東北諸山也 … 중략 南望溟州之花飛 北瞻水城之銀峰 凡數百里之內 千峰萬壑 崛崎蹲伏 如星羅而棋布 東指滄海 則萬里風濤 渾渾無涯 可以寬丈夫之胸次矣 至於三五月 盈水輪淡泊宛轉於此峰之上 眞可愛也 香爐峰之東北一里許 左右支峰相引坡陀中 有一原坐東而向西者曰 圓通庵 檜松森蔚 水石佳麗 左右山房 極爲清淨 對案有文筆峰 故俗傳居僧多能文詞云 庵之法堂前軒 有梵鍾 每當薄暮冥冥 鯨音嗶啞彷彿寒寺夜鍾也 喚牛峴在庵之南 鷄鳴巖在庵之西洞口 路右紗帽巖在庵之東數里許 自庵之西北 踰一小峴 有明珠寺 卽襄州四寺之一也 中葉以來 屢經回祿 今則因其古址 僅築數間梵宇 以誌焉 寺之西南曰臥牛臺 其東北曰青蓮庵 洞古有青蓮無心二庵 今廢焉 自寺之西南 以及青蓮庵 洞碑塔重重 許舩山薰所撰聳岳禪師碑銘 亦在焉 … 중략 噫關東雖僻在一隅依山阻海 而風土之美 不下於嶠南湖西 至漁城之一山水一木石 快爲濟勝之資 而寥寂千載湮沒無聞 蓋吾東之俗 不喜山水之游覽而然哉 俗傳尹明齋拯年少時 讀書于雲門庵之僧舍 而未詳其眞贗 金梅月堂時習 嘗僑居于香爐庵 而採芝於達洞 又蔡希菴彭胤 莅茲土時 嘗與賓僚打獵于雲門奈川之間 有雜詠幾篇 載在公之文集云.

14) 『乾鳳寺及乾鳳寺末寺跡』 161쪽 明珠寺(江原道 襄陽郡 縣北面 漁城田里)史蹟 : 二千三十六年(高麗 穆宗 十二年 己酉) 惠明·大珠 兩師가 滿月山에 寺를 扞하고 明珠寺라 名하니 兩師의 名에 各一字를 取하여 寺名을 作하니라. 毘盧遮那像을 造成하다

창건 당시 비로자나상(毘盧遮那像)을 조성 봉안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화엄종 계통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여러 차례의 소실로 남아있지 않다.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셨으면 당시 사찰규모로 보면 대적광전(大寂光殿)이 금당(金堂)¹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로자나불은 『화엄경 華嚴經』의 교주(敎主)로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광명의 부처다. 때와 장소 및 사람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낸다. 이는 비로자나불이 잠시도 쉬지 않고 진리를 설파하여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로자나불상은 보통 왼손 집게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 쥐는 지권인(智拳印)¹⁶⁾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고려 말부터는 지권인이 변형되어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싼 형태가 나타난다. 비로자나불에 의해서 정화된 세계는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

비로자나불은 좌 보처에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文殊菩薩), 우 보처에 실전을 통한 자비의 화신인 보현보살(普賢菩薩)을 함께 모시는데 명주사 창건 당시에는 오대산 문수보살(文殊菩薩) 신앙¹⁷⁾으로 인하여 더욱 그러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특히, 『건봉사급건봉사말사적』 165쪽에 명주사 전각 중에 문수보살을 뜻하는 만수실(曼殊室)¹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명주사에도 문수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확신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명 대사가 관촉사(灌燭寺)에서 은진미륵을 조성할 당시 불상은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제마을의 동자 2명은 나중에 문수(文殊)보살과 보현(普賢)보살의 현신(現身)이었음이 ‘관촉사사적비(灌燭寺事跡碑)’에서 밝혀지는데 이 두 보살은 바로 비로자나불의 보처(補處)이다.

1) ‘관촉사사적비(灌燭寺事跡碑)’로 본 해명(惠明)대사

충남 논산시 관촉동에 위치한 관촉사는 사찰 이름보다 유명한 미륵부처님(석조미륵보살입상, 보물 제218호)이 있다. 관촉사는 969년(고려 광종 19년)부터 1006년까지 37년에 걸쳐 해명이 창건하였다.

관촉사사적비(灌燭寺事跡碑)는 1743년(영조 19년)에 관촉사에 건립되었다. 이 비석은 절의 창건 경위와 은진미륵의 조성과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중략)“한 여인이 반야산에서 나물을 캐다가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는 없고 큰 바위가 땅에서 솟아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는 바위에 불상을 조성하라고 해명에게 명하였다. 불상을 완성하여 세우자 미간의 옥호에서 발한 빛이 사방을 비추었는데, 중국의 승려 지안(智眼)이 그 빛을 쫓아와 예불하였으므로 절 이름을 처음에는 관촉사(觀燭寺)라 하였으나 나중에 관촉사(灌燭寺)가 되었다 한다. 그 뒤 여러번 중수를 하였고 1740년에 석축을 세우고 1743년에 이 비석을 세웠다. 현재 탁본은 성균관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탁본한 연대는 1970년대로 추정된다”

15) 절의 본당

16) 금강계(金剛界) 대일여래(大日如來)가 만드는 인상(印相). 왼손 집게손가락을 뻗어 세우고 오른손으로 그 첫째 마디를 짚. 오른손은 불계(佛界)를, 왼손은 중생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닌 일체라는 깊은 뜻을 나타냄. 곧, 무지(無智)를 떨치고 불지(佛智)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함.

17) 오대산 문수신앙은 자장(慈藏 : 선덕여왕(재위 632~647) 때 대국통을 지낸 승려)에 의해 시작.

18) 문수보살의 산스크리트어 원명은 만주수리(Manjusri)이며 한역(漢譯)으로는 문수사리(文殊師利), 만수시리(滿殊尸利) 또는 만수실리(曼殊室利)라고도 한다.

■ 혜명 대사의 사고(思考)의 유연성(柔軟性)과 정치적 위상

…중략) “혜명(惠明) 대사가 비록 불상은 완성하였으나 세우지를 못하여 걱정하고 있었다.”¹⁹⁾ 불상의 신장은 55척 5촌으로 18.12m이다. 거기에 둘레만 30척으로 9.6m이다. 귀의 길이가 9척으로 2.88m이다. 그 밖에도 눈썹사이가 6척이며 입의 지름은 3척 5촌, 화광(火光)이 5척이다. 관의 높이는 8척이니 큰 뒷개는 넓이가 11척이고 작은 뒷개는 6척 5촌이다.

이러하니 당시의 도구와 기술로 불상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을까 짐작이 간다. 사적비에는 대사가 “마침 사제(沙梯)마을에 도착하자 두 명의 동자가 진흙으로 삼동불상(三同佛像)을 만들며 놀고 있었는데 평지에 먼저 그 몸체를 세우고 모래흙을 쌓은 뒤 그 가운데에 다음을 세워 다시 이처럼 하니 마침내 그 마지막 부분도 세우는 것이었다. 혜명이 주의 깊게 보고는 크게 깨닫고 기뻐하였다. 돌아와서 그 규칙과 같이 하여 이에 그 불상을 세웠으니 동자는 바로 문수(文殊)보살과 보현(普賢)보살이 현신(現身)하여 가르침을 준 것이라고 한다.”²⁰⁾라는 기록이 있다.

지금도 중장비(重裝備)가 없으면 받아들여 사용하기에 충분한 지혜로 당시 혜명 대사께서는 불치하문(不恥下問)의 정신으로 사고가 매우 유연하고 지혜로우셨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어린아이가 문수와 보현보살로 보일 정도로 이미 깨달은 분이셨다는 증거이다.²¹⁾

또한 혜명 대사가 고려 광종의 왕권 강화를 도운 대사건으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 광종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968년에 논산 개태사(開泰寺)²²⁾가 위치한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石造彌勒菩薩立像)을 건립하였다. 광종은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을 개태사 석조삼존불 입상보다 4~5배의 더 크게 조성하게 하였다. 광종이 태조 왕건을 능가하는 권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거대한 불상 조성을 통해 은연중에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광종은 집권 후반기에 등장한 반발 세력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그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조성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우리나라 최대 크기의 불상이라는 점과 더불어 고려 광종 집권기의 정치적 상황을 불교를 통해서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미술사적 의미가 있는 불상이다.

혜명 대사는 균여 대사와 대각국사 의천 사이에서 화엄학 발전에 기여 했던 승려로 제4대 광종(光宗)에서 제7대 목종(穆宗)에 이르기까지 교학 불교를 이끌었으며 화엄종 승려이면서도 법상종 계열의 관촉사를 세움으로써 미륵신앙에 기여하였다. 또한 혜명 대사가 광종의 부름을 받고 관촉사를 창건한 것으로 볼 때 고려

19) 慧明雖成神相而方以未立爲慮

20) 適到沙梯有一雙童子戲造泥土爲三同佛像即平地而先立其本積沙土而次立其中又如是而竟立其末慧明熟視大悟欣然還來一如其規乃立厥像蓋童子即文殊普賢化爲指教云

21) 돼지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는 이야기(猪眼觀之即猪 佛眼觀之即佛)

22) 開泰寺는 태조 왕건이 936년부터 4년여에 걸쳐 건립한 국가 사찰이며, 왕건의 진영을 봉안한 진전사찰로서 매우 중요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

전기 불교계에는 상당히 알려진 승려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치적 위치를 점한 후 창건된 명주사의 위상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2) 신라말에서 고려초기로 이어진 화엄사상(華嚴思想)

가. 통일신라의 화엄종풍(華嚴宗風)

통일 신라시대 의상(義湘, 625년~702년)이 낙산을 관음(觀音)의 상주처(常住處)로 설정한 것은 신라불국토(新羅佛國土) 신앙을 진전시킨 것이었으며, 선덕여왕(善德女王)²³⁾대에 자장(慈藏)²⁴⁾은 중국 오대산의 문수보살로부터 감응을 얻은 후 신라에 돌아와 우리나라 오대산을 문수 성지로 정착시켜 진신 상주의 불국토 신앙을 열었다.²⁵⁾

이 땅에 실제로 여러 보살이 상주한다는 생각은 《화엄경(華嚴經)》에서 비롯된 신앙이다. 화엄경의 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에서는 십방(十方)에 있는 산에 각각의 다른 보살들이 수많은 권속과 함께 살고 있다고 설해진다.²⁶⁾ 동북방에는 문수사리보살(文殊師利菩薩)이 1만 권속과 함께 청량산(淸涼山) 즉 오대산에 상주하는데 우리나라는 7세기 들어서 신앙으로 정착하였다. 후대에 정립된 동남방의 지제산(支提山) 천관보살(天冠菩薩)과 해중(海中)의 금강산(金剛山) 법기보살(法起菩薩) 신앙도 화엄경의 80화엄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에 상주(常住) 설법처(說法處)로 남방의 보타낙가산(補陀洛迦山)을 규정하고 있다. 양양의 낙산(洛山)이 보타낙가산의 준말로 관세음보살의 진신 상주처다.²⁷⁾

■ 보살상주처(菩薩常住處)

방 향	60 화엄		80 화엄	
	보살(菩薩)	상주처(常住處)	보살(菩薩)	상주처(常住處)
동(東)	금강승(金剛勝)	선인기산(仙人起山)	금강승(金剛勝)	선인산(仙人山)
남(南)	법혜(法慧)	승루각산(勝樓閣山)	법혜(法慧)	승봉산(勝峰山)
서(西)	무외사자행 (無畏師子行)	금강염(金剛焰)	정진무외행 (精進無畏行)	금강염산 (金剛焰山)
북(北)	향상(香象)	향취산(香聚山)	향상(香象)	향적산(香積山)
동북(東北)	문수(文殊)	청량산(淸涼山)	문수(文殊)	청량산(淸涼山)
동남(東南)	천관(天冠)	지견고산(枝堅固山)	천관(天冠)	지제산(支提山)

23) 재위기간은 632년 음력 1월 ~ 647년 2월 20일로 신라의 제27대 여왕이며 한국사 최초의 여왕이다.

24) 자장(慈藏, 590년~658년)은 신라의 스님이었고, 율사(律師)로 알려져 있다.

25) 《三國遺事》 권3 塔像〈臺山五萬眞身〉

26) 《華嚴經》 권29 〈菩薩住處品〉 제27

27) 三國遺事 권3 탑상 제4 洛山二大聖觀音正聚調信

방 향	60 화엄		80 화엄	
	보살(菩薩)	상주처(常住處)	보살(菩薩)	상주처(常住處)
서남(西南)	현수(賢首)	수제광명산 (樹提光明山)	현승(賢勝)	광명산(光明山)
서북(西北)	향광명(香光明)	향풍산(香風山)	향광(香光)	향풍산(香風山)
대해중(大海中)	담무갈(曇無竭)	지항산(枳恒山)	제(諸)	장엄굴(莊嚴窟)
해중(海中)	과거제(過去諸)	공덕장엄굴 (功德莊嚴窟)	법기(法起)	금강산(金剛山)

『화엄경』의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²⁸⁾는 현상계와 본체, 또는 현상과 현상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니면서도 서로 융합하여 끝없이 전개되는 약동(躍動)적인 큰 생명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연화장세계에서는 항상 화엄경의 중심 불인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이 대광명을 비추어 모든 조화를 꾀하고 있다. 화엄경은 우주의 질서를 미적으로 표현한 경전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통일국가의 상징이기도 하다.

화엄의 가르침은 서로 대립하고 항쟁을 거듭하는 국가와 사회를 정화하고, 사람들의 대립도 지양시킴으로써 마음을 통일하게 하는 교설이다. 따라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전제(專制) 왕권 국가의 율령정치 체제를 정신적으로 뒷받침하는 큰 구실을 담당하였다.

삼국통일 전후 신라 제35대 경덕왕(景德王, 재위 기간 742년~765년)까지는 신라 입당승(入唐僧)에 의해 화엄학과 유식종(唯識宗)인 법상(法相)학이 전래 되었지만 제 36대 혜공왕(惠恭王, 재위 기간은 765년~780년) 이후에는 화엄종과 선종이 유행하였으며, 821년(헌덕왕 13)에 남종선(南宗禪)을 최초로 전한 도의(道義)²⁹⁾도 화엄에 깊은 조예(造詣)가 있었다.

나. 고려의 화엄종풍

신라말 선종이 크게 유행하자 신라 의상 계통의 화엄종 문도들은 서로 다른 화엄종 법통을 주장하며 대립 일면을 보이게 된다.³⁰⁾

그러나 고려의 제 4대왕 광종(光宗, 재위 기간은 949년~975년)³¹⁾대의 균여(均如, 923년~973년)는 고려 전기의 화엄종 승려로 광종의 전제 정치와 불교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북악의 융화(融和)불교 입장에서 남악의 사상까지를 종합하여 화엄종 교단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28) 『화엄경』과 『범망경』을 근거로 비로자나불과 큰 연꽃 속에 일체의 국토와 사물을 간직한 불국토를 가리키는 불교교리.

29) 도의국사는 해동 초조로서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전한 선법을 우리나라 스님으로는 처음으로 전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지금의 대한불교조계종의 조종으로 모셔지고 있다. 당시 당나라에는 화엄교학과 함께 새로운 조사선이 확산되고 있었다.

30) 북악파의 희랑(希朗)은 고려 태조 왕건을 지지하고, 남악파의 관혜(觀惠)는 후백제 왕 견훤(甄萱)을 지지하여 정치적으로도 대립하였다.

31) 호족(豪族) 연합을 바탕으로 건립된 고려는 태조 왕건(太祖 王建) 사후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호족들 간에 대립과 다툼이 벌어졌고,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광종이 즉위하였다.

이후 의천(義天, 1055년~1101년)에 의해 화엄 사상을 기반으로 한 고려불교가 중흥하였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명주사도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화엄종 계통의 사찰로 창건되었을 것이다.

3) 신라말에서 고려 초기로 이어진 미륵신앙(彌勒信仰)

삼국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은 면면히 이어 오면서 많은 영향을 끼쳐 오고 있다. 우리나라 지명이나 산, 절 이름 등에 미륵(彌勒), 용화(龍華), 도솔(兜率) 등이 자주 쓰였던 것도, 각 절에 미륵불을 봉안한 미륵전(彌勒殿)이 흔히 있는 것도, 상당수의 미륵불상이 전해지고 있는 것도, 미륵신앙에 얽힌 설화가 민간에 널리 퍼진 것도 모두 미륵신앙의 영향이다.

신라의 화랑(花郎)과 미륵신앙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었던 것은 분명 미륵신앙의 신라적 수용의 한 특징이었다. 미륵신앙의 이상세계를 신라 사회에 구체적으로 역사화 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엿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미륵이 출현하는 유토피아적 이상세계를 제시하고 있는 미륵신앙은 주로 하층민(下層民)의 희망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통일 신라 시대에 접어들면 전반적인 불교학의 발달과 함께 미륵 사상에 대한 학문적 논리체계를 세우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미타(彌陀)신앙, 관음신앙과 함께 하나의 전통으로 여전히 대중들 사이에 살아남아 있다.

다만, 고려 초기 이후 특별히 미륵신앙에 관심을 가진 승려가 많지 않았고, 미륵신앙을 중요시하는 법상종(法相宗)이 선종(禪宗)이나 화엄종(華嚴宗)의 세력에 밀려났으므로 신라 시대와 같이 열렬함과 독특함을 함께 갖춘 미륵신앙은 다시 꽃피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미륵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광종 때 혜명(慧明)에 의하여 창건된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반야산의 관촉사에는 1006년(목종 9)에 완성된 미륵불상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이 미륵불상에 얽힌 영험 설화는 당시 사회에 미륵신앙이 폭넓게 유포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4) 명주사의 연혁(沿革)

명주사를 1009년(고려 목종 12)에 창건한 후 속암(屬庵)으로 1123년(고려 인종 원년)에 청련암(靑蓮庵), 운문암(雲門庵)이 1676년(숙종 2)에는 절의 승려 수형(秀瑩)에 의해 향로암(香爐庵)이, 1701년(숙종 27)에는 벽옥루(碧玉樓)가, 1781년(정종 5)에는 연파(蓮坡)스님에 의해 원통암(圓通庵)이 창건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860년(철종 11) 명주사(明珠寺) 주변 산불로 명주사와 모든 암자가 함께 소실되었다. 같은 해 월허(月虛) 스님이 명주사를 중건하였다.

이후 명주사의 승려 인허(印虛)가 1861년(철종 12)에 운문암(雲門庵)을 중건하고 만일선회(萬日禪會)를 베풀었으나 후에 또 불에 타 소실되자 삼성암(三聖庵)이라 고쳐 부르다 이후에 없어지게 되었다.

향로암(香爐庵)은 1861년(철종 12)에 옛터 서쪽인 명주사 동쪽으로 이건(移建)하고 보련암(寶蓮庵)이라 고쳐부르다 이후에 없어지게 되었다.

1887년(고종 24) 승려 일봉(日峰)이 용선전(龍船殿)을 건축하였으며, 1897년(대한제국(大韓帝國) 광무 원

년)에 명주사(明珠寺)가 소실되자, 원통암(圓通庵)에서 사무(寺務)를 행하니 지금의 명주사는 원통암을 말하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日帝強占期)인 1911년 일제가 한국불교를 억압하고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제정 공포한 법령인 『사찰령(寺刹令)』에 의거 1912년에 명주사는 건봉사(乾鳳寺)의 말사(末寺)가 되었다.

■ 명주사의 연혁표(沿革表)

연표(年表)				주요내용
북방불기	서기	왕조(王祖)	간지	
2032년	1009년	고려 목종 12년	己酉	혜명·대주 두 대사가 만월산에 절을 창건하고, 명주사(明珠寺)라 이름하니 두 스승의 이름에서 각 한자씩을 취하여 절의 이름을 지었다. 비로자나(법신불) 부처님상을 조성하였다.
2150년	1123년	고려 인종 원년	癸卯	청련암(靑蓮庵), 운문암(雲門庵)을 창건하였다.
2703년	1676년	조선 숙종 2년	丙辰	절의 승려 수형(秀螢)이 향로암(香爐庵)을 창건하였다.
2728년	1701년	조선 숙종 27년	辛巳	벽옥루(碧玉樓)를 창건하였다.
2808년	1781년	조선 정종 5년	辛丑	절의 승려 연파(蓮坡)가 원통암(圓通庵)을 창건하고 관음상(觀音像)을 조성, 봉안하였다.
2876년	1849년	조선 헌종 15년	己酉	원통암(圓通庵)이 소실되어 곧바로 중건하였다.
2880년	1853년	조선 철종 4년	癸丑	원통암(圓通庵)이 소실되어 중건하였다.
2887년	1860년	조선 철종 11년	庚申	명주사(明珠寺), 원통암(圓通庵), 청련암(靑蓮庵), 운문암(雲門庵), 향로암(香爐庵)이 소실되었다. 절의 승려 월허(月虛)가 사재(私財)를 들여 명주사를 중건하였다.
2888년	1861년	조선 철종 12년	辛酉	절의 승려 인허(印虛)가 운문암(雲門庵)을 중건하고 만일선회(萬日禪會)를 베풀었다. 향로암(香爐庵)을 옛터 서쪽에 이간(移建)하고 보련암(寶蓮庵)이라 개명하였다.
2891년	1864년	조선 고종 원년	甲子	절의 승려 학운정원(鶴雲正原)이 사재(私財)를 들여 원통암(圓通庵)을 중건하였다.
2905년	1878년	조선 고종 15년	戊寅	명주사(明珠寺)가 소실되었다.
2906년	1879년	조선 고종 16년	己卯	명주사(明珠寺)를 중건하였다.
2914년	1887년	조선 고종 24년	丁亥	절의 승려 일봉(日峰)이 용선전(龍船殿)을 건축하였다.
2924년	1897년	대한제국(大韓帝國) 광무원년	丁酉	명주사(明珠寺)가 소실되었다. 차후로부터 원통암(圓通庵)에서 사무(寺務)를 행하니 지금의 명주사는 원통암을 말하게 되었다.

연표(年表)				주요 내용
북방불기	서기	왕조(王祖)	간지	
2926년	1899년	대한 광무 3년	乙亥	향로전(香爐殿)을 중건하였다.
2933년	1906년	대한 광무 10년	丙午	원통암(圓通庵)을 확장하여 중건하였다.
2939년	1912년	일제 강점기	壬子	건봉사(乾鳳寺)의 말사(末寺)가 되었다. 1월에 홍보룡(洪甫龍)이 주지에 임명되었다.
2940년	1913년	일제 강점기	癸丑	3월에 김월인(金月印)이 주지에 임명되었다.
2942년	1915년	일제 강점기	乙卯	방앗간(砵庫)을 건축하였다.
2944년	1917년	일제 강점기	丁巳	8월에 김백월(金白月)이 주지에 임명되었다.
2945년	1918년	일제 강점기	戊午	명주사를 크게 수리하였다.
2947년	1920년	일제 강점기	庚申	8월에 노제봉(盧濟峰)이 주지에 임명되었다.
2950년	1923년	일제 강점기	癸亥	7월에 윤설호(尹雪昊)가 주지에 임명되었다.
2952년	1925년	일제 강점기	乙丑	명주사를 수리하였다.
2953년	1926년	일제 강점기	丙寅	7월에 김묵옹(金默翁)이 주지에 임명되었다. 요사(寮舍)의 기와를 새로 덮다.

5) 명주사의 건축 규모 비교

한용운(韓龍雲, 1879~1944) 선사께서 1928년 『건봉사급건봉사말사적』을 작성하던 그 시점의 명주사는 속암들은 이미 폐허가 되어 없어진 것으로 확인이 된다.

1897년 이후 명주사가 원통암으로 이전하였는데도 그 주변의 전각을 합쳐 총 95칸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속암이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굉장히 큰 규모의 사찰로 건봉사 말사 8개소 중에서는 신흥사와 낙산사 다음으로 큰 규모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당시 낙산사가 108칸이었으니, 명주사가 어느 정도 큰 사찰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지도 68,652평(坪)에 임야가 246정(町) 45단(段)이나 된다. 그러나 6.25 이후 폐허가 되었으며 그 후에도 수해(水害)와 산불 등에 시달리며 오늘날은 규모가 매우 축소되어 극락전(極樂殿)과 삼성각(三聖閣), 종각, 요사(寮舍) 2동만이 현존한다.

가. 1928년 당시 명주사의 건물별 규모 및 용도 : 15개 전각, 95칸

전각명	규모(間)	주요내용
합계	95	15개 전각
독성각(獨聖閣)	1	스승없이 혼자서 깨친 독각(獨覺)인 나반존자(那般尊者)를 봉안한 전각.
산신각(山神閣)	1	산신(山神)을 모신 전각.
어향각(御香閣)	9	왕실에서 하사한 재물 등으로 사찰이 중흥하게 됨을 이유로 왕실의 안녕(安寧)을 기원하는 전각.
응향각(凝香閣)	6	“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이 있어 향기가 모이는 자리”라는 뜻의 전각. 참선관련 전각
진영각(眞影閣)	6	고승(高僧)이나 선지식(善知識)의 초상(肖像)을 두는 전각.
원통암(圓通庵)	30	관세음보살의 육근원통(六根圓通)을 상징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원만히 두루 통한다”는 뜻
현위실(弦葦室)	6	현위에 현(弦)은 반달을 말하며, 위(葦)는 갈대로 어두운 밤에 갈대 잎을 하나를 타고 강을 건너 피안(彼岸) 간다는 뜻의 일위도강(一葦渡江)으로 선방(禪房)을 가르킴.
만수실(曼殊室)	6	만수실리(曼殊室利)는 만주슈리의 음역으로 문수사리(文殊師利) 보살처럼 “많은 복덕과 반야지혜”를 상징하는 공부방
미타암(彌陀庵)	6	아미타불(阿彌陀佛)을 모신 사내(寺內) 전각
삼보방(三甫房)	6	절에서 감무(監務), 감사(監事), 법무(法務)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절집
고(庫)	6	절의 공간, 창고 용도
욕실(浴室)	3	목욕하는 곳
족침실(足砵室)	2	디딜방아로 곡식을 뺄는 곳
수침실(水砵室)	4	물레방아로 곡식을 도정(搗精)하는 곳
변소(便所)	3	용변을 보는 곳으로 해우소(解憂所)로 부름

위에서 전각들의 용도를 정리해 놓긴 했지만 현위실(弦葦室)은 선방(禪房)이며, 응향각(凝香閣)과 만수실(曼殊室)은 경전을 공부하는 용도의 방이었다.

특히 원통암이 30칸이나 되는 이유는 회산거사(晦山居士) 정현동(鄭顯同)이 기록한 『원통암중수기(圓通庵重修記)』에 잘 나타나 있는데 “보위공(용악)은 학운 선사에게서 적통의 법을 전해 받았다. 내전(불교)과 외전(유교), 묘원(妙圓) 한 선(禪)과 교(敎)의 양종에도 정통했다. 호주와 퇴운, 자영과 더불어 학문적 체계로 일가를 이루니 남북 사방에서 배우려는 자가 운집하여 건물이 좁아서 모두를 수용할 수 없었다. 항상 더 확장할 뜻이 있었으나 행할 때를 놓쳤다. 42년 후인 병오(1906)년에 산에 문헌(열반하신) 학운 선사의 선지(先志)를 모두가 두려워하여 추진하지 못하다가 도모한 것이 그것의 중건이었다. 음력 2월 봄이 한창일 때 시작하여 한여름인 5월에 공고하게 마치니 모두 4개월에 6천원의 금액을 썼다.”³²⁾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학

승들을 기르기위해 원통암을 강원(講院)으로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욕실(浴室), 족침실(足砵室), 수침실(水砵室)이 있는 것도 많은 학승이 기거하기 때문에 일시에 씻어야 하고, 여러명이 먹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편(方便)이었을 것이다.

나. 현재의 전각

현재 남아있는 전각은 6.25이후의 건축으로 과거에 비하면 사세(寺勢)가 얼마나 기울었는지를 알 수 있다.

■ 금당(金堂)인 극락전(極樂殿)

극락전은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시는 법당이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면 극락보전(極樂寶殿)이라고도 하며 아미타전(阿彌陀殿), 무량수전(無量壽殿)으로 부르기도 한다. 아미타불은 서방의 극락정토에 계시기 때문에 극락전 문(門)의 방향은 남향으로 놓되, 아미타불은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게 유좌묘향(西坐卯向)으로 모신 절도 있다.

아미타불은 부처임에도 열반에 들지 않고 극락세계에 머물며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부처인데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들어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극락세계에 머물기를 서원했다.



〈그림 3〉 명주사 극락전



〈그림 4〉 아미타 삼존불

명주사 극락전은 1963년 수룡(壽龍) 스님이 앞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팔작지붕 금당을 복원하였다. 편액과 주련은 최근에 증건하면서 달았다.

내부에는 아미타 삼존불로서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으며 좌측에는 관세음보살이 우측에는 대세지보살이 모셔져 있다.

32) 『圓通庵重修記(원통암중수기)』: 衛公 師之嫡傳也 精通内外二典妙圓禪教兩宗 與虎舟 退雲 慈楹 一家於南北 四方之學者雲集 舍不能容 常有志乎增廣 以峇紉學羣 未暇焉 後四十二年丙午 山中之人 咸懼先志之未就 謀所以 重建之 始役于仲春 至仲夏而功高訖 計四箇月 用金六千

후불탱화로는 1919년에 봉안된 아미타불을 중심에 둔 극락회상도³³⁾이다. 우측에는 신중탱을 모신 신중단(神衆壇), 좌측에는 영가를 모시는 영가단(靈駕段)을 두었다.³⁴⁾

- 극락전(極樂殿) 주련 -

極樂堂前滿月容(극락당전만월용) 극락당 앞에는 밝은 달이 두둥실 떠 오르고,
若人一念稱名號(약인일념칭명호) 만약 사람들이 한생각으로 그 명호를 부른다면,
頃刻圓成無量功(경각원성무량공) 눈 깜작할 사이에 한량없는 공덕을 이루리!

■ 삼성각(三聖閣)

삼성(三聖)은 각각 재물과 수명, 복을 관장하는 존재로서, 불교가 우리 전통 신앙인 삼신신앙(三神信仰)을 포용한 모습이다. 칠성(七星)은 복두칠성을 말하는데, 별나라의 주군(主君)으로 인간의 복과 수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나반존자(那畔尊者)라고도 불리는 독성(獨聖)은 십이인연(十二因緣)의 이치를 홀로 깨달아서 성인의 위치에 올라 말세 중생에게 복을 내린다고 한다. 또, 사찰에 따라서는 독성과 산신과 용왕을 봉안하는 경우도 있다. 산신은 원래 불교와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토착 신앙이었으나 불교가 재래 신앙을 수용하면서 산신은 부처님을 지키는 호법신중(護法神衆)이 되었다. 산신은 백발노인으로 표현되고, 호랑이는 산신의 지시에 따르는 영물로 늘 산신 옆에 배치되어 있다. 산신은 자식을 원하는 사람과 재산이 일기를 기원하는 신도들의 산신 기도가 많이 행해진다.

이들은 모두 불교 밖에서 유입된 신들로서, 하근기(下根機) 중생을 위한 방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이름을 전(殿)이라 하지 않고 각(閣)으로 일컬은 것이다.



〈그림 5〉 명주사 삼성각



〈그림 6〉 좌부터 나반존자, 치성광여래, 산신령

33) 書記：大正八年己未旧十月晦日 明金何山 化〇〇晴湖 金魚文古山 朴鶴松 造成于廣州奉恩寺 奉安于襄陽明珠寺

34) 襄陽 地域의 傳統寺刹 2022년 12월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69쪽

명주사 산신각은 2002년의 태풍으로 무너진 뒤 삼성각으로 새로 지었다. 앞면 3칸, 옆면 1칸의 삼성각에는 칠성(七星)이신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와 좌측에는 독성(獨聖)인 나반존자, 우측에는 산신(山神)이 협시하고 있다. 후불탱으로는 칠성탱이 조성되어 있다.³⁵⁾

■ 요사(寮舍)채

명주사 요사채는 2동으로 1동은 금당 바로 옆에 위치하였으며, 명주사 현판이 부착되어 있고 종무소와 주지 스님이 거처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면 5칸에 측면 2칸으로 맞배지붕이다.

조성 연대는 1979년이다. 이 건물 전면과 후면에는 현 주지이신 적광지혜(寂光智慧) 스님의 한글로된 화두(話頭) 선문(禪問)이 기둥마다 주련으로 붙어있고 격자 문살 창호지(窓戶紙) 마다 스님 특이(特異)의 선화(禪畵)가 차분히 단순한 색상으로 그려져있다. 그 옆에 그림을 설명하는 선 시가 쓰여 있어 아름다움과 스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한다.

또 다른 동(棟)의 요사는 종무소 뒤쪽 건물로 2021년에 대대적으로 중수(重修) 했다고 하는데 전면 6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ㄱ”자 건물로 공양간으로 쓰이며 여유 있는 방은 빈객의 숙소로 쓰인다고 한다. 단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종무소 앞 툇마루 천장(天障)의 안쪽 벽에는 원통암 상량문과 원통암 현판이 함께걸려 있다.

■ 일주문(一柱門)

일주문이라는 말은 기둥이 한 줄로 되어 있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사주(四柱)를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는 일반적인 가옥 형태와는 달리 일직선상의 두 기둥 위에 지붕을 얹는 독특한 형식으로 되어있다. 사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인 일주문을 세운 것은 일심(一心)을 상징하는 것이다. 신성한 가람에 들어서기 전에 세속의 번뇌를 불법의 청량수로 말끔히 씻고 일심으로 진리의 세계로 향하라는 상징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다. 즉, 사찰 금당(金堂)에 안치된 부처의 경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수행자는 먼저 지극한 일심으로 부처의 진리를 생각하며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건축양식은 주로 다포계(多包系) 맞배지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에 알맞은 현판(懸板)을 걸어 사찰의 격(格)을 나타내기도 한다.

명주사 일주문은 금당에서 약 450m 전면에 있으며, 2021년도에 시작하여서 연말에 사업을 완료하였다. 건축 연 면적 40.18㎡이고, 높이 8.8m이다, 특이한 점은 일주문의 기둥을 눈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상 2m까지는 돌기둥(하부 둘레 137cm, 상부 둘레 127cm)을 세우고 그 위에 목재기둥을 세웠다, 양각된 현판은 “만월산명주사(滿月山明珠寺)”이며 “설악산인(雪嶽山人) 사문적광(沙門寂光) 지혜(智慧)”가 썼다. 아직 단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³⁶⁾

35) 襄陽 地域의 傳統寺刹 2022년 12월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71쪽

36) 襄陽 地域의 傳統寺刹 2022년 12월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72쪽

■ 포대화상(布袋和尚) 석상(石像)

2017. 9. 5일 포대화상을 경기도 이천 무량사(無量寺)에서 이운(移運)해 모셨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의하면 포대화상은 명주(明州) 봉화현(奉化縣) 출신으로 당나라 말기부터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름은 계차(契此)이며, 항상 커다란 포대 자루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포대화상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포대화상은 올챙이처럼 볼록 튀어나온 배불뚝이 모습을 하고서 늘 화통하게 웃고 있다. 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보시받은 물건을 포대 속에 넣고 다니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모두 나누어주었다. 눈 속에 누워 있어도 그의 몸에는 눈이 쌓이지 않았으며 사람의 고통을 죽집게처럼 잘 알아맞혔다고 한다.

전등록에는 포대화상이 지었다는 몇 편의 계송도 실려 있다. “발우 하나로 천 집의 밥을 먹고 외로운 몸은 만 리에 노닌다.(一鉢千家飯 孤身萬里遊)” 는 시를 통해 구름처럼 살았던 그의 인생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다.

“다만 마음, 마음 하는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 시방세계에서 가장 신령한 물건일세. 종횡으로 묘한 작용을 일으켜 가히 중생들을 사랑하니, 일체 그 무엇도 진실한 마음만 같지 못하네(只箇心心是佛 十方世界最靈物 縱橫妙用可憐生 一切不如心眞實).”이 시에서는 선(禪)의 향기가 진하게 풍긴다.

선불교의 생명과도 같은 견성(見性)은 ‘마음이 곧 부처(心卽佛)’라는 실상을 깨치는 일이다.³⁷⁾

포대화상은 단순히 복을비는 기복신앙(祈福信仰)이 아니라 6바라밀 중 보시(布施)의 화신이다.³⁸⁾



〈그림 7〉 명주사 일주문



〈그림 8〉 포대화상

37) [불교신문3668호/2021년 6월 1일자] 출처 :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

38) 襄陽 地域의 傳統寺刹 2022년 12월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72쪽

Ⅲ. 각종 지리지로 본 명주사

『여지도서(輿地圖書)』, 『관동지(關東誌)』, 『관동읍지(關東邑誌)』의 방리(坊里) 편에는 양양부에서 명주사까지의 거리 50리, 편호 6, 승려 24구로 나타나는데 낙산사 승려가 28구로 별로 차이가 나질 않는 것으로 보아서 매우 큰 절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된다. 다만, 1759년에 발간된 『양양부읍지(屬襄陽府邑誌)』 방리(坊里)에는 명주사(明珠寺)는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50리 거리이며 편호 15, 승려 30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2년 전에 발간한 여지도서는 물론 그 후에 발간된 지리서들과 편호(編戶)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오기(誤記)로 보여진다.

또한 사찰조(寺刹條)도 『여지도서(輿地圖書)』, 『관동지(關東誌)』, 『관동읍지(關東邑誌)』가 똑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현산지』 사찰조에서 언급한 명주사(明珠寺)라 명명한 연유가 된 스님들의 법명은 후대인들의 오기(誤記)로 보여진다.

1. 『여지도서(輿地圖書)』 ⇒ 1757년

■ 방리(坊里)

현북면(縣北面) 명주사(明珠寺)는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50리 거리이며 편호 6, 승려 24구이다.³⁹⁾

■ 사찰(寺刹)

명주사(明珠寺)는 부남쪽 50리 오대산(五臺山) 북쪽 기슭 아래에 있는데, 법당 4칸, 요사(寮舍)는 이방(二房)으로 각 10칸이고, 벽옥루(碧玉樓)는 10칸이다.

- 원통암(圓通庵) : 명주사 동쪽에 있는데 3칸이다.
- 보련암(寶蓮庵) : 명주사 북쪽에 있는데 5칸이다.⁴⁰⁾

2. 『양양부읍지(屬襄陽府邑誌)』 ⇒ 1759년

■ 방리(坊里)

현북면(縣北面) 명주사(明珠寺)는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50리 거리이며 편호 15, 승려 30구이다.⁴¹⁾

■ 사찰(寺刹)

명주사(明珠寺)는 부남쪽 50리 오대산(五臺山) 북쪽 기슭 아래에 있는데, 법당 4칸, 요사(寮舍)는 이방(二房)으로 각 10칸이고, 벽옥루(碧玉樓)는 10칸이다.

- 원통암(圓通庵) : 명주사 동쪽에 있는데 3칸이다.⁴²⁾

39) 明珠寺自官門南距五十里編戶六僧二十四口

40) 明珠寺在府南五十里五臺山北麓下法堂四間寮舍二房各十間碧玉樓十間 圓通庵在明珠寺東三間 寶蓮庵在明珠寺北五間

41) 明珠寺自官門南距五十里編戶十五僧二十三口

42) 明珠寺在府南五十里五臺山北麓下法堂四間寮舍二房各十間碧玉樓十間 圓通庵在明珠寺東三間

3. 『관동지(關東誌)』 ⇒ 1831년

■ 방리(坊里)

현북면(縣北面) 명주사(明珠寺)는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50리 거리이며 편호 6호, 승려 24구이다.

■ 사찰(寺刹)

명주사(明珠寺)는 부 남쪽 50리 오대산(五臺山) 북쪽 기슭 아래에 있다. 법당 4칸, 요사(寮舍)는 이방(二房)으로 각 10칸이고, 벽옥루(碧玉樓)는 10칸이다.

- 원통암(圓通庵) : 명주사 동쪽에 있다. 3칸이다.
- 보련암(寶蓮庵) : 명주사 북쪽에 있다. 5칸이다.

4. 『관동읍지(關東邑誌)』 ⇒ 1867년

■ 방리(坊里)

현북면(縣北面) 명주사(明珠寺)는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35리 거리이며 편호 6호, 승려 24구이다.

■ 사찰(寺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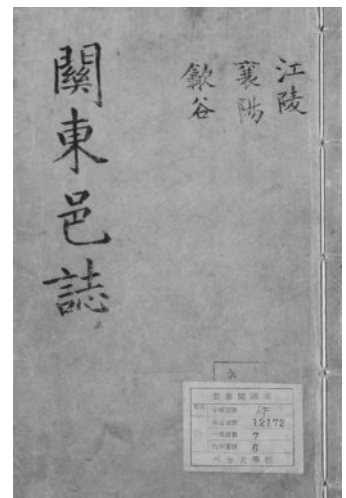
명주사(明珠寺)는 부 남쪽 50리 오대산(五臺山) 북쪽 기슭 아래에 있다. 법당 4칸, 요사(寮舍)는 이방(二房)으로 각 10칸이고, 벽옥루(碧玉樓)는 10칸이다.

- 원통암(圓通庵) : 명주사 동쪽에 있다. 3칸이다.
- 보련암(寶蓮庵) : 명주사 북쪽에 있다. 5칸이다.

5. 『강원도양양군읍지(江原道襄陽郡邑誌一)』 ⇒ 1899년

■ 찰(寺刹)

명주사(明珠寺) : 군 남쪽 50리에 있다.



〈그림 9〉 관동읍지

6. 『현산지(峴山誌)』 ⇒ 1910대초반

■ 사찰(寺刹)

- 명주사(明珠寺)는 부 남쪽 50리 법수현(法水峴)의 동쪽에 있다. 여러 번 터가 바뀌어 ‘누역(屢易)’이라 불린다. <고려> 숙종 6년(1101) 신사(辛巳)에 처음 이 터에서 제물을 올리기 시작하였고, 또 명주(明珠)라는 이름은 개명(蓋明)과 여주(與珠) 두 승려가 목대를 잡아 맡았던 연고로 명주라고 불린다.

⇒ 개명(蓋明)은 혜명(慧明)의 오류이고, 여주(與珠)는 대주(大珠)의 오기(誤記).

Ⅳ. 명주사의 문헌 분석과 정보(聖寶)

1. 신앙의 변화

1) 비로자나불과 문수신앙

『건봉사급건봉사말사적』의 명주사사적기(明珠寺史蹟記)에 의하면 1009년 창건 당시에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화엄종풍(華嚴宗風)의 영향으로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모셨다. 당시는 오대산은 자장율사(590년~658년)에 의해서 문수 신앙이 자리매김하였으므로 광명의 부처이자 법신(法身)인 비로자나불과 협시보살인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셨을 것이다.

명주사와 오대산 신앙의 관계를 알수있는 자료로는 “인곡당(麟谷堂, 1734~1816) 선사께서는 오대산 북대암(北臺庵)에서 부처님께 군친자사(君親者四)⁴³⁾의 수복(壽福)을 기원하는 100일 기도를 하였다.”는 기록이 『인곡당선사비명』에 전한다.⁴⁴⁾

용악 대선사는 1875년 통도사(通度寺) 백련정사(白蓮精舍) 만일승회기(萬日勝會記)에서 스스로를 오대산인(五臺山人) 용악보위(聳岳普衛)라고 했던 것⁴⁵⁾으로 보아서 명주사는 오대산문(五臺山門)으로 분류되었으며, 명주사 출신으로 월정사(月精寺) 주지를 역임한 지암당(智庵堂) 종욱(鐘郁, 1884~1969) 대선사에 이르기 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8년 만해 한용운 선사의 기록에도 문수보살(文殊菩薩)을 뜻하는 만수실(曼殊室)이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여전히 문수 신앙은 이어지고 있었다.

2) 명주사의 미타신앙

명주사는 창건 당시와는 달리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미타(阿彌陀) 부처님을 모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추사가 쓴 현관을 보면 이때 이미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셨음을 알 수 있다. 아미타불(阿彌陀佛)은 서방(西方) 극락세계(極樂世界)의 부처로 다른 말로 무량수불(無量壽佛), 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고도 한다. 줄여서 미타(彌陀)라고도 한다. 미타사, 미타암 등 사찰 이름에 많이 쓰인다.

추사(秋史) 김정희(1786~1856)가 완당(阮堂)이라고 “완(阮)”자(字)가 들어가는 호(號)를 쓴 것은 1809년과 1810년 동지사(冬至使)로 연경(燕京)에 가서 옹방강(翁方綱)과 완원(阮元), 두 경사(經師)를 알게 된 후부터⁴⁶⁾ 사용하다가 제주 유배에서 풀린 1848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원통암이 1849년과 1853년에 거듭 소실(燒失)로 복원되는데 1849년은 추사가 제주 유배에서 풀려난 1년

43) 君親者四：임금과 왕비, 아버지, 어머니

44) 有明朝鮮國(麟)谷堂禪師碑銘：後移居于五臺山之北臺庵 百日齋佛 以祝君親者四 出穀捐金 或救被災之僧 或建焚壞之寺 或鑄大鐘 或裁法衣 或見饑者推食 或見寒者而解衣 此師之慈悲大略也

45) 通度寺白蓮精舍萬日勝會記 光緒元年青豬鵝尾之月 五臺山人聳岳普衛謹識

46) 유홍준 저, 『알기 쉽게 간주린 완당평전 김정희』,

뒤이며, 1853년은 북청(北靑) 유배에서 풀려난 시기로 여러 가지 정황상 1853년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글씨체로는 대흥사 현판과 같이 힘이 넘쳐서 대흥사 현판과 비슷한 시기인 1840년 이전에 방문하여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1980년 이후 추사의 무량수각(無量壽閣) 편액은 신흥사 유물전시관(遺物展示館)에 보관 중이다.

추사가 쓴 명주사 현판은 예서체(隸書體)로 ”무량수각(無量壽閣)“이라고 쓰고 약완(若阮)이라는 낙관을 찍었다.

전남 해남의 두륜산(頭崙山) 대흥사(大興寺) 현판과 거의 흡사하고 글씨체는 같으나 대흥사는 호를 노완(老阮)이라 쓰고 낙관을 찍지 않았다.

추사고택⁴⁷⁾ 근처의 야산인 오석산(烏石山)에는 백제 때 창건된 화암사(華巖寺)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을 추사의 증조부가 재건하여 추사 가문의 집안 절로 사용하였다. 추사가 쓴 이 무량수각 현판은 바로 화암사에도 걸려 있다.

추사가 제주도에서 유배(流配)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절을 다시 한 차례 중수하였는데 추사는 이 현판 글씨를 제주도에서 써 보냈다.

해남 대흥사의 무량수각 현판은 비록 귀양을 가는 길(1840년)이지만 권문세가의 핵심 인물로서 아직 기고만장할 때 쓴 글씨이고, 화암사의 무량수각 현판은 유배 생활의 고초를 겪으면서 기

(氣)가 한풀 꺾이고 고독 속에서 삶을 반추하던 시기에 쓴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화암사 무량수각 현판은 글씨가 매우 담담하다. 필획에 어떤 힘을 넣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

의도하는 바가 없이 붓 가는 대로 쓴 '담(淡)'의 글씨라고 할 수 있고, 한바탕 병을 앓고 난 후에 쓴 해쓷은 글씨라고 할 수 있다.⁴⁸⁾



〈그림 10〉 위의 한껏 멋을 부린 대흥사 현판,
아래는 기름기를 제거한 화암사 현판



〈그림 11〉 명주사 현판

47)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국리 261번지, 충남 지정 유형문화재 43호

48) 2011년 김병기의 서예 · 한문이야기(30)

3) 원통암(圓通庵) 창건으로 인한 관음신앙과 미타신앙

1781년 신축(辛丑)에 명주사 승려이신 연파당(蓮坡堂) 대선사에 의해 원통암(圓通庵)이 창건되어 관음상(觀音像)을 조성, 봉안하였다. 이로 인하여 관음신앙이 미타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것이다.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은 '자신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공통적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원효(元曉)대사⁴⁹⁾는 이를 이용하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염불을 만들어 전파하여 오늘날까지도 사용된다.



〈그림 12〉 명주사 입구 나무아미타불 석재기둥과 명주사 표지판

어성전리 마을에서 명주사로 향하는 갈림길 입구에는 사각형의 화강석 석재(石材) 기둥(거칠게 다듬었으며 길이가 230cm, 폭36cm임.)이 세워져 있는데 정면에는 명주사입구(明珠寺入口) 좌측에는 '북방불기2968년3월립' (1941년 3월에 세움)이, 우측에는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라고 음각하고는 각자(刻字)에 붉은색 주사(朱砂)가 칠해져 있다.

1906년(丙午 1월)에 회산거사(晦山居士) 정현동(鄭顯同)이 쓴 『원통암중수기(圓通庵重修記)』를 보면 원통암을 대대적으로 중수하면서 명주사에 걸려 있던 '추사의 무량수각(無量壽閣) 현판'에 대하여 ... 중략) 거기에 머무는 나그네에게 권하니 완당 김정희가 “무량수각” 현판을 써서 그곳을 찬미하고 송축하는 도다.⁵⁰⁾ “라는 기록으로 보아 명주사의 모든 사무를 원통암으로 옮기면서 주불도 아미타불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로써 명주사는 오늘날까지도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시면서 협시보살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모시고 있으며 편액을 1980년 이후 극락전(極樂殿)으로 고쳤다.

특히, 우리 지역은 의상(義相)대사께서 세운 낙산사가 있어 이미 7세기 후반부터 관음신앙이 사회 상층부에서부터 기층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것은 미타정토(彌陀淨土)를 기반으로 한 불교 대중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⁵¹⁾

의상이 저술했다는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에 “관세음보살님이 지극한 정성으로 아미타부처님을 이마 위에 이고 받들 듯이 저도 또한 관세음보살님을 높이 모시고 받드립니다.”⁵²⁾라는 구절과 같이 관음

49) 신라의 승려. 같은 시기에 활동한 고승 의상과 쌍벽을 이루는 고대 한국 불교계의 고승으로 신라십성(新羅十聖) 중 한 명이다. ‘모든 건 자기 마음에 달렸다(一切唯心造)고 가르쳤다.’

50) 1906년(광무 10) 圓通庵重修記(원통암중수기) 錫其勉之哉 阮書無量壽閣 其善頌者乎

51) 『의상화엄사상연구』 정병삼 1998년

52) 以爲本師 如彼菩薩 頂戴彌陀 我亦頂戴 觀音大聖

신앙은 미타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정토 신앙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이 너무나 원대한 곳에 있어 자신의 힘이 부족한 것에 대한 반성과 죽음의 문제가 연결되어 대중화되었다.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에서 관음은 현실적인 소망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토에서 왕생하고자 하는 수행자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명주사의 이러한 신앙은 호월(皓月)스님, 연파(蓮坡)스님, 인곡(麟谷)스님, 학운(鶴雲)스님, 용악(聳嶽)스님으로 이어져 선(禪)과 교(敎)는 물론 외전(外典)⁵³⁾까지 두루 섭렵하여 18세기 이후 더욱 공고해졌다고 하겠다. 특히 연파당(蓮坡堂) 대선사께서는 “널리 알고 통하도록 호월당, 풍악법사, 송암대사, 설파대사 같은 분에게 내·외의 여러 가르침을 받게 되니, 곧 학문에 빠어나 진실로 화엄학이 깊어져서 인간 세상을 건너는 뗏목이 되었다. 어찌 단지 앞의 존재만 보리요, 나[蓮坡]는 장차 천하를 크고 넓게 관하리라”⁵⁴⁾고 하시고는 우리나라 불교의 최고 승직인 표충사선교양종도총섭(表忠祠禪敎兩宗都摠攝)과 석왕사도원장(釋王寺都院長)을 역임하셨다.

2. 명주사의 이건(移建)

옛 명주사지(明珠寺址)는 현 사찰에서 도로를 이용해 1.3km 정도 내려오면 “천년고찰 명주사 옛터”라는 간판이 보인다. 근처에 있었던 중봉당선사탑(中峯堂禪師塔)도 옮겨가서 아무것도 없다.

1897년 화재로 소실되고 나서는 현 사찰인 원통암(圓通庵)으로 옮긴 후 발으로 경작이 되었으나 최근 언제부터인가 휴경이 되면서 잡목과 넝쿨만 무성하다. 지적도상으로는 어성전리 368,

369번지로 사찰이 존립하던 당시에는 없던 도로가 발 가운데로 개설되어 통행한다.⁵⁵⁾

그러나 현산지(峴山誌)에는 “명주사(明珠寺)는 부 남쪽 50리 법수현(法水峴)의 동쪽에 있다. 여러 번 터가 바뀌어 ‘누역(屢易)’이라 불린다”고 되어 있어 여러번의 재난으로 인하여 수차례 자리를 이건(移建)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 명주사 옛 터 전경

53) 유교는 몸을 닦는 가르침이므로 외전(外典)이라고 한다. 불교는 마음을 닦는 가르침이므로 내전(內典)이라고 한다.

54) 有明朝鮮國蓮坡堂大禪師碑銘并書：博通內外諸敎 如皓月堂 楓嶽法師 松巖大師 雪坡大師 卽其秀也 允遽於華嚴 旣而嘆曰 牖世津筏 豈必只在見葉 吾將觀天下之大觀

55) 2022년 12월 『襄陽 地域의 傳統寺刹』

명주사의 부도(浮屠)들이 1994년 현재의 자리로 옮겨지기 이전에는 옛 명주사터 입구인 삼거리 우측 능선에 2기가 있었고, 그 반대편 민가 뒤쪽에 4기의 부도가 나란히 안치되어 있었다. 명주사 계곡 입구의 오른쪽 길옆에 1기가, 현 명주사 바로 밑에 4기의 부도와 3기의 석비(石碑)가 모셔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명주사가 여러 번 이진(移建)을 한것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3. 명주사의 속암(屬庵)

1) 원통암(圓通庵)

1781년(정종 5년, 辛丑)에 연파(蓮坡) 대선사가 원통암(圓通庵)을 창건하고 관음상(觀音像)을 조성, 봉안하였다. 1849년(헌종 15년)에 원통암(圓通庵)이 소실되어 곧바로 중건하고, 1853년(철종 4년)에도 원통암(圓通庵)이 소실되어 중건하였다.

그러나 “1860년(철종 11) 윤 3월 17일 강원 감사 김시연(金始淵)의 보고에 의하면 영북지방에 큰불이 나서 양양부의 소실(燒失)된 가옥이 551호나 되었으며, 통천군 472호, 간성군 486호가 소실되었음을 아뢰니 이천 부사 남종순(南鍾順)에게 위유사(慰諭使: 위로하고 타이름) 벼슬을 내려 위유(慰諭)하게 하였다.”⁵⁶⁾ 이날 명주사는 물론, 원통암(圓通庵), 청련암(靑蓮庵), 운문암(雲門庵), 향로암(香爐庵)이 모두 소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그림 14〉 1928년 옛 명주사 전경

이로부터 4년 후인 1864년(고종 원년)이 되어서야 학운(鶴雲) 대사가 사재(私財)를 털어 원통암(圓通庵)을 중건하였다.

1897년(대한제국(大韓帝國) 광무 원년)에 명주사가 또다시 소실(燒失) 되자 원통암에서 명주사를 대신하여 절의 사무를 대행하다가 1906년(대한 광무 10년, 丙午)에 원통암을 확장·중건하여 30간의 건물이 되었다. 이때 추사의 무량수각(無量壽閣) 현액으로 고쳐 달게 된다. 이후부터는 원통암이 곧 명주사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원통암은 다른 암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창건되었음에도 여러번의 소실과 중건을 거듭하다가 1918년(戊午)과 1925년(乙丑)에도 명주사(원통암)를 크게 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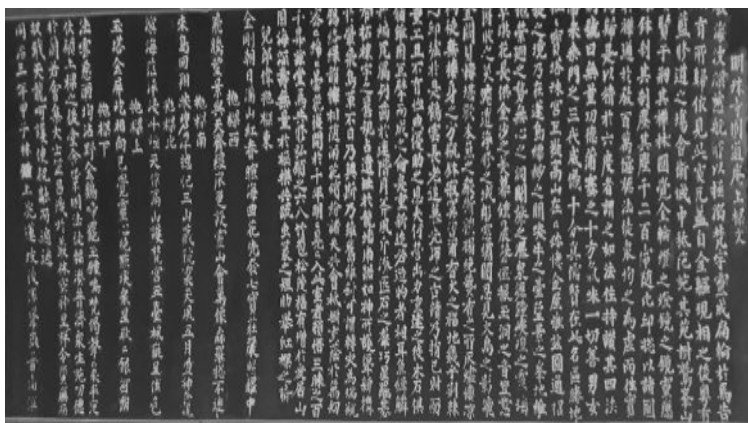
56) 哲宗實錄 卷12, 11년 潤 3月 17日 江原道監司金始淵以襄陽府燒戶五百五十一戶 通川郡燒戶四百七十二戶 杆城郡燒戶四百八十六號啓 伊川府使南鍾順慰諭使差下之馳進慰諭

그러나 6·25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명주사는 폐허가 되어 한동안 방치가 되다가 1963년 주지 수룡(壽龍) 스님이 중건하였으며, 1979년 주지 마근(麻根) 스님이 법당과 삼성각, 추성각(秋聲閣, 주지 스님이 거주), 종각, 요사(寮舍) 등을 크게 고쳐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 명주사 원통암 상량문(明珠寺 圓通庵 上樑文)

원통암 상량문은 학운의 고족제자인 용악보위스님이 1864년에 직접 지은 것으로 번역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비심으로 익사자를 구원함은 부처의 가르침이 바다처럼 넓고 깊은 깨달음이다. 원통암을 훌륭하게 완성하고 편액을 높이 달아 준공을 알리는 것은 불가로 귀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곳에 갑자기 우뚝 솟은 것이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금빛이 나는 몸이 되어 미망에서 벗어난 후 이에 가람이 되어 도(道)를 닦는 장소가 되었다. 사위성(舍衛城) 가운데 제타가 그의 동산(塲)을 보시하여 영취산 꼭대기에 현인이 선림



〈그림 15〉 원통암 상량문

(선종의 사원)을 창건하니 원각(원만한 깨달음)의 금륜은 등불 중의 등불이요 거울 중의 거울이다. 불보살의 영묘한 감응으로 진주 같은 승려가 있는 바로 그 사찰이요, 세속도 그 세속이다. 천이백의 상수 비구가 모두 다 선(禪)으로서 원만히 갈무리하여 가르침에 통달하니 백만억의 법을 듣고자 하는 중생이 비우기 위해 진실로 가서 두루 귀의하게 될 것이다. 정성스럽게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곳이 된다면, 이런 이유로 법과 같이 머무르고 지니게 됨을 이르며, 그 4법⁵⁷⁾을 기리며, 곧 원통암의 무량한 공덕을 말할 것이다.

포색(제가 신자들)이 모든 방향에서 감지된 기운 때문에 일체의 남녀가 때로 몰려오려고 하니, 불가의 3대 계율과 부족함 없는 유가의 선비가 이곳에 있음이다. 이름난 명승 구역에 때때로 보탑과 구슬 장식의 궁은 크고 높은 산 같고, 곳곳에 보배로운 누각과 금옥(金屋)이 있는 것은 생각컨대 이 원통암은 사액(賜額)된 곳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봉래산은 너무 먼 간격에 있어 소를 부르는 누각이요, 경치를 바라보는 산이다. 대지를 안고 도는 지세로 무심(無心)한 골짜기 폭포소리 들리고 샘의 근원은 종처럼 비좁아도 산 모양은 신령하다. 옥 같은 풀과 꽃이 아름다운 금가루(은하수)를 길게 공급하니 저녁 종과 새벽 풍경소리가 항상 옥동(玉洞)에 울려 퍼진다. 어찌 울창한 이곳에서 재난을 생각하랴!, 갑자기 맑게 닦을 수 있는 지역을 만나니 화려

57) 四法 : 부처가 말로써 설한 교법(敎法), 교법 중에 포함된 주요한 도리인 이법(理法), 그 도리에 따라 수행할 행법(行法), 그 수행에 의해 얻는 증과(證果)인과법(果法).

하게 조각하고 수를 놓은 창문에는 태양의 그림자가 날아오른다.

누각을 갖춘 황금의 절집은 목어 소리 끊기고 예를 갖추어 탁자에 향을 피우던 곳도 없어지니 하늘도 탄식한다. 다 타고 재만 남아 처량하다. 한 몸도 가릴 곳 없는 납도(스님 무리)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병발(물항아리)이 고요하여 물으니 향불 피우던 곳이 복이 있는 땅이라네, 몇 번이나 고난을 겪은 언덕 옛터에서 이제야 장로 학운(鶴雲)이 선사(蓮坡)의 오래된 자취를 추모하려고 몸과 재물을 내어 견고하게 공사를 한다. 나라가 이재민 구호에서 넉넉히 돕는 은혜는 없으니 무릇, 목재와 돌을 갖추어 중건하는 일에는 어찌 돈을 내서 지으려 하는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것을 완성했을지라도 선명한 계획으로 거둬 새롭게 하려고 생각했을 것이다. 거의 물건을 만드는 자가 네 귀를 맞추듯이 물고기 비늘을 모아서 기와의 무늬를 창작하는 것과 같다.

기러기가 나이순으로 줄지어 인도하니 월부(달 깎는 도끼)와 풍근(바람이는 자귀)을 들고 모여든 석수장이 들이 재주를 부려 그 터에 별처럼 많은 돌을 펼치니 마룻대와 추녀 끝(집의 규모)이 확장됨은 오래된 법칙이다. 남겨진 옛터엔 용이 또와리를 틀고 호랑이가 걸터앉아 점유하니 신이 보호하는 곳과 같다. 솟아오른 새로운 구조물(원통암)이 훨훨 나는 새처럼 날개를 펼치니 며칠 걸리지 않아 일어나게 되었다. 잠깐 사이에 비록 옛것이 새로워졌다 해도 화재가 변하여 상서롭게 되었다고 가히 말할 수 있다. 스님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으니 목탁 소리 서로 이어지고 꽃비(상서로운 조짐)가 어지러이 날리니, 모든 하늘이 함께 모여 공경하던 나무의 소중한 그늘에서만 만겹이라. 정밀하게 이어져 끊이지 않고 우담화는 다시 피어난 지 천년이라. 밝게 빛나는 이 암자에 들어오는 자는 물론 깨달아서 삼매의 경지 100년이라. 암자의 문에 깃발을 올리고 68가지의 넓고 큰 서원을 함께 닦으니, 대나무 뿌리처럼 견실하고 소나무 잎처럼 무성한 복이 더하여 편안히 머무를 것이다. 산이 굳고 바다가 깊으니 목숨은 무량한 극락이라. 함께 소통하니 문자는 짧아지고, 돕고 거느니 무지개가 대들보를 닦는다.

여영차 떡을 대들보 동쪽으로 던져라!, 금강산에 아침 해의 붉은빛이 가득하고, 봄 절기 따듯한 바다 굴곡진 곳에는 꽃이 먼저 피어난다, 칠보로 장엄하니 밝게 비치며 빛나는 중이다.

영차 떡을 대들보 서쪽으로 던져라!, 하늘로 날아올라 경치를 바라보니 하늘이 가지런하네, 경전을 상위에 펴고 다시 영취산 당시 설법을 하니, 삼라만상이 모두 미혹되지 않더라.

영차 떡을 대들보 남쪽으로 던져라!, 주작이 빙빙 돌아 날며 푸른 연못에 비춘다. 삼신산(三神山)을 모두 묶어 궁실(원통암) 속에 감추니, 5월의 하늘 높은 바람에 감실(龕室)을 씻는다.

영차 떡을 대들보 북쪽으로 던져라!, 망망대해에 북극성이 잠기고, 하늘이 빗어낸 높은 산이 사찰(원통암)을 보호하니, 오대산과 금강산의 아름다운 색이 드리운다.

영차 떡을 대들보 위쪽으로 던져라!, 옥으로 된 탑에 금으로 된 병풍이 우뚝 솟아서 서로에게 향하고, 자아를 깨달은 신령스러운 마음은 진애(塵埃)마저 끊기더라, 별들이 저녁에 빛나더니 은하가 되어 밝히네.

영차 떡을 대들보 아래쪽으로 던져라!, 법의 구름(法雲地)에 자비로운 비는 들을 고르게 적시고, 금 닭의 울음이 그치자 옥종이 울린다. 계송 소리에 저녁이 오더니 한밤 중이다.

상량 이후 본 암자가 굳고 튼튼하며, 신도가 폭주하여 중생을 널리 제도하고 암자에서 공덕을 베풀어 믿음

이 두터운 사람들이 회합하여 총림이 번성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늘의 신이 서기를 드리워 풍신(風神)으로 하여금 바람을 거두게 하고, 천룡팔부가 꾸짖고 수호하여 불의 신(火神)이 도망쳐 달아나기를 옌드려 바랍니다.

1864(동치3, 갑자)년 유월 상순, 연파당 후손 용악 보위 쓰다.⁵⁸⁾

나. 원통암중건기(圓通庵重建記)

원통암 중건기는 원통암을 사랑한 다음에 준공하고 1864년 가을에 화은호경이 기록한 것을 번역하였다.

원통암의 중건을 이루어 냈다, 가람을 완성하니 소용 화은자가 그것을 기록한다. 원통암은 명주사 동남쪽 모퉁이에 있으며, 명주사는 오대산 동쪽 기슭에 있다. 오대산은 양양부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다. 깎아 지른 기암으로 둘러있고 끝을 알 수 없는 바위가 커커이 솟아 하늘에 꽃혀 푸른 동해를 찍어누르니 그 웅장함과 신령스러움이 매우 깊어 금강산과 더불어 자웅을 겨룬다.

철종 4년 계축(1853) 봄에 암자가 불에 재가되어 누추하게 꾸며서 겨우 덮고, 눕고, 앉았다. 그 후 7년 넘어 경신(1860)년 봄에 또 불이나 절에 살던 승려들이 어찌할 겨를도 없이 삼시간에 불이 번져 겨우 몸만 벗어나고 의발(옷과 가계도구)은 모두 탔다. 장차 암자의 식솔이 다 흩어지려 하자 암자 주지인 학운선사가 대중을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타일렀다.

달이 차면 비워야 하는 것은 변함없는 이치로 모아 두었던 사재를 쏟아부어 구휼과 암자 중건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중건을 계획한바 날을 점쳐 불사를 시작하였다.

대중이 이미 팔을 걷어 붓치고 달려들어서 사람을 자유로이 부릴 수 있으니 일이 모두 다 진행되었다. 장인이 돌을 옮기고 도끼로 풍속(風俗)을 이루니 범궁(절)이 날개를 펴고 훨훨 날더니 다음 해 가을 선사(학운)의 고족(우수한) 제자 용악보위공이 그 스승의 덕을 기리기 위하여 나를 찾아와 말하였다. 암자가 두 번이나 화재를 당했으나 나의 스승께서 온 힘을 다해 복원하셨으니 비록 공훈이 있다 하여도 비교할 바가 아니며 하물며 이 암자에 대하여 기록을 하지 않는다면 옳지 못한 일이다.

58) 明珠寺 圓通庵 上樑文：教海波深 慈航所以拯溺 梵宇靈成 扁輪於焉告功 有所歸依 見此突兀 盖自金軀現相之後 粵有迦藍 修道之場 舍衛城中 祇陀 施其苑樹 鷲峯山頂 賢于 創其禪林 圓覺金輪 燈之燈 鏡之鏡 靈應珠鉢 刹其刹 塵其塵 千二百常隨比丘 摠以諸圓於禪 通於教 百萬億聽法徒衆 均之爲虛而往實而歸 是以精於六度者 謂之如法住持 讚其四法 則號曰無量功德 蒲塞之十方氣味 一切善男女帶來 桑門之三代威儀 十分眞儒賢在此 名區勝地 往往寶塔珠宮 巨嶽高山 在在珍樓金屋 惟茲圓通招提之境 乃在蓬島縹緲之間 喚牛之臺 望景之峰 地維抱縈迴之勢 無心之洞 聞聲之瀑 泉源鍾峽之靈 瑤草琪花 長供金沙之美 暮鍾晨磬 恒振玉洞之音 豈意鬱攸之災 遽遭淨修之域 雕窓繡閣忍見火鳥之影飛 金闕具樓 堪嘆木魚之聲斷 禮榻絕熱香之所 灰燼淒涼 衲徒無棲身之方 瓶鉢寂寞咨爾香 火之福地 幾乎荆棘之邱墟 於是鶴雲長老追慕先師之古蹟 乃損己財而董工 且不惜有恤典 優助之恩 夫何營出力重建之役 木石俱備 雖因巨擘而成之 命奩重新 殆若造物者相耳 魚緝鱗於編瓦 雁列齒於連階 月斧風斤 湊匠石之群巧 星羅棋布 拓桐宇之舊觀 占遺址於龍蟠虎踞 如神所護 聳新構於羣飛鳥革 不日乃興 斯乃雖舊維新 可謂轉災爲瑞 瓶錫絡繹 韻轉相隨 雨花繽紛 諸天共會祇樹 重墜於萬劫 密密綿綿 曇花復開於千年 明明晃晃 入此室者 頓悟三昧之百年 昇茲堂焉 共修弘願之六八 竹苞松茂 福有增於爰居 山固海深 壽無量於極樂 共疏蟲篆之短 助舉虹蜺之修 兒郎偉拋樑東 金剛朝日滿山紅 春喧海曲花先發 七寶莊嚴照耀中 拋樑西 飛騰望景與天齊 經床更設靈山會 萬像森羅摠不迷 拋樑南 朱鳥回翔映碧潭 摠把三山藏院裏 天風五月盪神龕 拋樑北 溟海茫茫浸斗極 天作高山護梵宮 五臺楓嶽呈佳色 拋樑上 玉塔金屏屹相向 已覺靈心絕點埃 衆星耿夕銀河朗 拋樑下 法雲慈雨均霽野 金鷄啼罷玉鐘鳴 梵偈聲夕來半夜 伏願上樑之後 堂舍鞏固 法徒輻湊 普濟衆生 施功德於蘭若 會集大士 筮昌熾於叢林 空神呈祥 令飛廉而收戢 天龍呵護 使祝融而遁逃 同治三年甲子林鐘上院 蓮坡後孫聳嶽普衛撰

나(용악)의 오대조 스승인 연파 대화상께서 건륭(46년), 신축(1781)년 처음으로 창건하시고 지금 나(용악)의 스승(학운)이 또 중건하니 남다른 재앙을 입은 우리 절은 예전에 창건하고 후에 복원하였으니, 기이한 인연을 대비한 듯하다. 이것은 어찌 우연이 아니겠는가? 옛날의 기록과 상량문이 세찬 불꽃 가운데 함께 들어갔다면 지금의 기록은 없었다.

거들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중국 고대에 있었던 희황상인(羲皇上人)의 그림과 같이 아득해진다. 화재의 두려움이 지난 후에야 현실이 보였고, 또한 오히려 현실에 이르니 옛것이 자세히 보였다. 화은자가 나(용악)의 선사를 위하여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내게 허락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또한, 용악보위공께서는 원통의 세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나며 말했다. 능엄 25성인이 모두 원통(육근(六根)이 서로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에 들어갔지만, 오직 관세음보살만이 모든 성인을 홀로 뛰어넘어 육근이 ‘맑고 텅 비어 결함 없이 밝으며 움직임 없는 것이 큰 거울 같은 깨끗한 지혜’에서 온 세상을 원만히 밝혔다. 이에 관음대사께서 원통을 얻은 까닭에 원만이 통하도록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다.

용악보위공께서는 원통암을 다시 일으켜 종을 울리고 암자의 문을 열었다. 바다와 산악에 의지하여 정화된 사찰은 수승(殊勝)하다. 그윽한 경치에 구름이 샘물 위로 떠다니니 선미(善美)하다. 가파른 바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소리를 들으니 문득 탐욕 없는 이근으로 골짜기를 무심히 관하다 갑자기 ‘현묘한 우주 이치’에 들어간다. 이 모든 것은 선사가 마음을 평온하고 순화롭게 함으로 원통의 묘한 경지(거울)에 이른 것이다. 이미 탐심을 내려놓고 이근으로 희이(현묘한 우주 이치)에 들어갔다.

곧 원통의 묘한 문이 이곳에서 활짝 열리니 능각 소각이 다 합해져 묘공에 이른다. 무릇 이와 같이 저(관음) 대사와 더불어 서로 버티며 사양하지 않으니 이에 25성인 또한 그 가운데에 있다. 바로 이때 외물(外物)을 접촉하여 식별되는 경계에서 원통의 묘문(열반경지)에 들어가지 않은 선사는 하나도 없었다. 이문으로 들어가 보면 보고, 듣고, 깨달아 안다는 것이 공화(번뇌 망상)가 아닌 것이 없다. 삼계 세간(세상)이 오히려 큰 꿈과 같아 이제 꿈속의 몸으로서 꿈꾸던 암자를 일으켰다. 이에 용악보위공께서 기록하기를 청하여 내가 기술하니 이 또한 모두가 꿈이다. 이런 의미를 돌아보고 선사께 고하자 곧바로 선사가 필요함을 수궁하여 나에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때는 금상원년(고종, 태황제) 갑자(1864)년 한가을 화은호경 기록하다.⁵⁹⁾

59) 圓通庵重建記：圓通庵得重建 而蘭若成 笑翁華隱子記之 曰庵在明珠寺巽隅 寺在五臺山東麓 山在襄陽府南若干里 磅礴環拱 縹緲層臺 聳插太清 類壓滄海 其雄大靈邃 與金剛相甲乙 哲宗四年癸丑春 庵火撲灰結茅 才庇跌坐 越七年庚申春又火 居僧蒼黃奔突 僅以身免 衣鉢盡燬 將魚鳥散 庵主鶴雲禪師 撫衆慰諭 曰丕泰盈虛 理之常也 於是傾出私儲 兼得恤助 圖所以重建 占星經始 衆既肘 趁 事竣頭指 匠石運斤成風 梵宮翬飛鳥革 翌年秋 師之高足聳岳衛公 德其師而訪余 曰庵經二火 而我師竭力旋復 雖有動而不競 事不可以無記 況是庵也 我玄翁師連坡大和尚 始創於乾隆辛丑 而今我師又重建 異哉我家 前創後復 如有待於奇緣 此豈非偶也 舊記及樑錄 俱入烈焰中 若今無記 則其所無微 杳如羲皇畫前事 恐後之視今 亦猶今之視昔 子爲我師記之 余曰諾 又曰公 不聞圓通界乎 楞嚴二十五聖 皆入圓通 而唯觀音大士 獨超諸聖 六湛鏡空 十方圓明 此大士所以得 圓通而示圓通也 公庵再興 鳴鐘開堂 淨刹據海嶽之勝 幽景擅雲泉之嶺 巖瀑聞聲 忽清 耳根 洞觀無心 俄入希夷 斯皆禪師之平常 圓通妙鏡也 既清耳根 入希夷 則圓通妙門 當處洞開 能覺所覺 皆合妙空 夫如是 則與彼大士 不讓頡 頡而二十五聖亦在中也 正當此時 觸境遇物 無一不禪師之圓通妙門 入此門 則見聞覺知 無非空花 三界世間 猶如大夢 今以夢身溝夢庵 而公之請記 余之述記 亦皆夢也 以此意 回告禪師 則禪師必肯許夫余矣 時 今上元年甲子仲秋 華隱護敬謹 誌

다. 원통암의 사액(賜額)과 명주사가 어향각(御香閣)을 지은 사유

1928년 한용운 선사께서 조사하여 기록한 명주사의 건물 현황에는 9칸이나 되는 큰 규모의 어향각(御香閣)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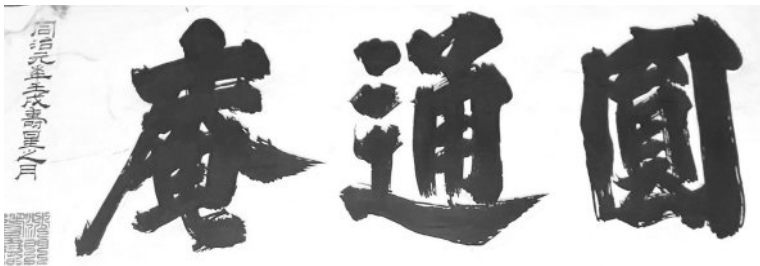
어향각(御香閣)이 사찰에 존재하려면 ‘금강산 신계사’처럼 왕실과의 관계에서 왕실의 복(福)을 빌기 위한 원당(願堂)이 되고 절의 살림을 위한 왕실 지원금인 내탕금(內帑金)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하나 찾을 수가 없다.

금강산 신계사(神溪寺)의 경우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 정조는 신계사에 원불전과 어향각을 짓고 소원을 비는 원당(願堂)으로 삼아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신계사를 추복사찰로 지정함에 따라 산림과 토지 등을 지급하였고, 용선전, 만세루, 동상실, 규정당 등을 건립하였다.⁶⁰⁾

그러나 명주사의 경우는 1864(고종 원년)년 유월 상순, 연파당 후손 용악 보위 스님이 쓴 『명주사 원통암 상량문(明珠寺 圓通庵 上樑文)』에 “생각컨대 이 원통암은 사액(賜額)된 곳이기 때문이다.”⁶¹⁾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여러 가지를 짐작해 볼수 있다.

명패하진 않지만 명주사의 원통암(圓通庵) 현판은 1864년 원통암 복원 이전에 이미 왕께서 친히 어필(御筆)로 써서 내려 주었던 현판을 부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향각이 지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866년(고종 3) 가을에 죽파(竹坡)가 쓴 『원통중건소식(圓通重建小識)』에는 아아! 경신(1860)년의



〈그림 16〉 원통암 편액

맹렬한 화재로 재앙이 하늘에 닿으니 주춧돌이 깨지고 벽이 무너져 내려 이겨내고 새롭게 할 계획도 없었다. 앞선 성인이 돌보아주어 한 백성도 남김 없이 조세를 면해주고 관용으로 구휼하니 넓고 큰 은혜로 흡족하다. 산이 높고 바다는 깊으니 이해 여름 선사(聳岳)의 스승이신 학운(鶴雲) 대선사가

상감께서 법전 규정으로 엮어매어 넉넉히 구휼하도록 함으로써 내가 감히 힘이 없어 바로잡지 못한 것을 여론을 틈으로 밀어 넣어 마음을 합하고 해아리도록 하여 관청의 전대를 쏘아내고 곳간을 퍼내어 중창하여 절을 깨끗하게 하였다.”⁶²⁾라는 기록으로 보아서 적어도 원통암 중건과 관련하여서 임금의 크나큰 원조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지금 명주사에 남아있는 원통암 현판의 조성 년도가 동치원년임술수성지월(同治元年壬戌壽星之月)로 되어 있어 풀이하면 1862년 음력 8월이 된다.⁶³⁾

60) [출처] 북한 속 문화유산 파헤치기 - 신계사작성자 대한민국 통일부

61) 明珠寺 圓通庵 上樑文：… 중략 惟茲圓通招提之境

62) 圓通重建小識：噫庚申烈火 天之災也 廢礎敗壁 無計克新 上聖眷顧 不遺一民 蠲鴻恩普治 嶽高海深 是年夏 師之師大禪師鶴雲 以爲 上有恤構之典 余敢不力 乃排卻群休 與心爲謀 傾囊倒箱 重創淨藍

63) 襄陽 地域의 傳統寺刹 2022년 12월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71쪽

그러기에 혹시 이 현판이 사액(賜額)받은 현판이 아닐까 생각하여 현판의 낙관(落款)과 두인(頭印)을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 두인 “겸재(謙齋)”⁶⁴⁾는 정선(鄭澈)이 쓰던 호(號)와 같으니 “겸손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며, 낙관은 사문용악(沙門聳岳)으로 용악당(聳岳堂) 대선사께서 쓰신 작품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로서 용악당 대선사께서는 1862년 음력 8월에 원통암 현판을 썼으며, 1864년 6월 상순에 원통암 상량문을 직접 쓰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2) 청련암(靑蓮庵)과 운문암(雲門庵)

위의 두 암자는 북방불기 이전일백오십년 고려 인종 원년인 1123년에 창건하여 운영하다가 1860년(철종 11)에 함께 화재를 입어 모두 소실(燒失)되었다. 다음 해에 명주사의 승려 인허(印虛)가 운문암을 증건하고 만일선회(萬日禪會)⁶⁵⁾를 베풀었다. 후에 운문암이 다시 불타자 그터의 남쪽으로 이전하여 건축하고 삼성암(三聖庵)이라 고쳐 부르다 후에 문을 닫았다.⁶⁶⁾

즉 청련암(靑蓮庵)은 조선 철종 11년인 1860년에 소실된 이후 복원(復元)되지 않았다. 운문암은 얼마나 더 운영되다 삼성암(三聖庵)되었다가 폐암(廢庵)이 되었는지는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다만, 운문암(雲門庵)의 위치는 어성전리에서 법수치리로 향하는 하천 바위에 운문암(雲門巖)이란 각자(刻字)가 있어 짐작(斟酌)은 가능하다.

3) 향로암(香爐庵)

『건봉사급건봉사말사적』 명주사 속암 일람에 향로암은 북방 불기 이전칠백삼년(숙종 2, 1676년)에 절의 스님 수형(秀螢)이 창건하였으나, 1860년(庚申)에 불에 타서 다음 해인 1861년(辛酉)에 암자를 동쪽으로 이전 건축하고 보련암(寶蓮庵)이라 고쳐 부르다 후에 문을 닫았다.⁶⁷⁾고 기록되어 있다.

현산지(峴山誌)에 의하면 향로암(香爐庵)은 운문암 위쪽에 있다. 숙종 2년(1676) 병진(丙辰)에 산인(山人) 수형(秀螢)이 창건하였다. 지금의 임금(숙종 23) 정축년(1697)에 불에 탄 바 있다. 보련암(寶蓮庵)은 망경현(望景峴)의 서쪽에 있다. 도심(道心) 스님이 창건하였다.⁶⁸⁾는 기록이 있으며, 관동읍지에 의하면 1867년까지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4) ‘겸재(謙齋)’라는 호는 『주역(周易)』의 15번째 괘인 ‘겸괘(謙卦)’의 구절에서 그 뜻을 취한 것으로 이 겸괘에서는 ‘겸(謙)’이라는 글자는 “겸형 군자유종(謙亨 君子有終)”이다. 해석하자면 “겸손함은 형통하게 하니 군자가 끝을 둘 곳이다”라는 뜻이다.

65) 만일염불회는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 또는 염불계(念佛契), 만일염불결사(萬日念佛結社)라고도 하며 만일(萬日) 즉, 27년 5개월 동안 염불을 하는 모임이라는 뜻이다. 통일신라시대 강원도 고성 건봉사(乾鳳寺)에서 758년(경덕왕 17) 승려 발징(發徵)에 의하여 처음 시작된 이후 신라 전역에서 일반 신도들로 조직된 만일염불결사가 유행했다고 한다.

66) 『乾鳳寺及乾鳳寺末寺蹟』明珠寺 屬庵 一覽：上二庵은 二千一百五十年(高麗 仁宗元年 癸卯)에 扞하니 二千八百八十七年(庚申)에 俱災하야 翌年에 寺僧 印虛가 雲門庵을 重建하고 萬日禪會를 設하다. 後에 又災하야 古址의 南에 移建하고 三聖庵이라 改稱하더니 後에 廢하니라

67) 『乾鳳寺及乾鳳寺末寺蹟』明珠寺 屬庵 一覽：二千七百三年(朝鮮 肅宗二年 丙辰) 寺僧 이 扞하니 二千八百八十七年(庚申)에 災하고 翌年(辛酉)에 寺의 東에 移建하고 寶蓮庵이라 改稱하니 後에 廢하니라.

68) 峴山誌：香爐庵在雲門庵之上肅宗丙辰山人秀螢創之今上丁丑爲火所燒 寶蓮庵在望景峴西山人道心創之

4) 벽옥루(碧玉樓)

벽옥루는 북방 불기 이전칠백이십팔년(숙종 27, 辛巳, 1701)에 명주사가 이진(移建)되기 전에 범당 맞은편⁶⁹⁾에 창건되었다.

현산지에 벽옥루(碧玉樓)는 채팽윤(蔡彭胤)이 별들이 걸려 있고, 명주사 옆은 허공으로 비취를 머금고 있는 듯하다고 ‘벽옥루(碧玉樓)’라 명명했고, 편액 큰 석자는 이형익(李衡翼)의 글씨이다 라는 기록이 전한다. 언제 폐(廢)하였는지는 전하지 않지만 1860년 명주사와 속암들이 모두 소실 될 때 함께 소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채팽윤은 1722년(경종 2) 1월부터 1724년(영조 원년) 11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 양양부사(襄陽府使)를 지내면서 동해신묘(東海神廟)를 중수하고, 백천문(百川門) 및 현산정(峴山亭) 현판을 썼으며, 현재까지 양양 현산공원에 『부사채공팽윤선정비(府使蔡公彭胤善政碑)』가 전한다. 채팽윤(蔡彭胤)의 희암선생집(希菴先生集) 16권에 명주암(明珠庵) 벽옥루(碧玉樓)가 실려있어 소개한다.

萬景峯前一徑幽	(만경봉전일경유) / 만경봉 앞 깊숙하고 그윽한 한길 모퉁이 지나서
南廻東折上林丘	(남회동절상림구) / 동쪽 꺾어진 숲속 언덕을 남쪽으로 돌아올랐다.
星辰側掛明珠榜	(성진측괘明珠榜) / 명주사 곁에는 별들이 높이 걸려 밝히고
空翠中涵碧玉樓	(공취중함벽옥루) / 울창한 산중의 기운이 벽옥루에 베었구나.
暮境驅馳爲物役	(모경구치위물역) / 늙은 바탕에 남의 일로 분주히 쏘다니다
名山邂逅及春遊	(명산해후급춘유) / 명산에서 우연하게 봄 놀이를 맞았구나.
夜闌鳴磬隨仙梵 ⁷⁰⁾	(야란명경수선범) / 야심한 풍경소리도 범패를 따르니
銷盡人間多少愁	(소진인간다소수) / 인간의 수심이 다소나마 녹아 사라지는 도다.

4. 명주사의 성보(聖寶)

명주사는 역사에 비하면 유물이 매우 적은 편이다. 이는 수 없는 화재(火災)와 태풍으로 인하여 모두 사라졌기 때문 일 것으로 보여진다.

문화재로는 1704년(숙종 30)에 조성된 양양 명주사 동종이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64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 후기 도내 소재 부도 중에서 가장 빼어난 조각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부도군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116호로 지정되었다.

현존 건물로는 극락전과 삼성각, 요사 등이 있다. 사찰의 서쪽으로 작은 폭포가 흐르는 맑은 계곡이 있는데 폭포 옆 암석에는 문성폭포(文聲瀑布)라고 암각 되어있다.

69) 벽옥루는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491번지로 실개천 옆 계곡에 위치

70) 仙梵：佛陀를 大仙이라한다. 따라서 부처를 찬양하는 梵唄라는 뜻

1) 명주사 동종(銅鐘)

명주사 동종은 1980년 2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64호로 지정되었다. 예로부터 어성십경(魚城十景) 중에는 명주사에서 울리는 저녁 종소리인 “산사모종(山寺暮鐘)”을 으뜸으로 쳤다. 전형적인 조선 후기의 범종으로 1704년(숙종 30)에 제작되었으며, 높이 83cm, 둘레 2.6m이다.

재질은 청동으로 용뉴는 동종의 몸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냘프며, 쌍룡이 다소 형식화된 느낌을 준다.

낮게 솟은 천판 위에는 음통(音筒)이 없는 쌍용(雙龍)의 종뉴(鍾鈕)를 갖추었다. 종뉴는 머리를 반대로 돌린 두 마리의 용이 서로의 등을 맞대고 하나로 이어져 반원(半圓)의 고리를 만들었고, 각자의 두 다리로는 천판을 딛고 서 있다.

용의 머리에는 세 개의 뿔과 코의 양 옆으로 촉수(觸須)가 돌출되었으나, 몸체의 비늘 표현은 간략해졌고, 다리에 장식도 생략되었다. 그리고 용의 얼굴은 반달의 두꺼운 눈두덩이 아래로 넓고 납작한 들창코가 있으며, 그 아래에 두꺼운 입술로 입을 크게 벌려 동그란 여의주를 단단히 물고 있다.⁷¹⁾

네 곳에 기하학적인 사선문(斜線紋)의 정사각형 연곽(蓮廓)⁷²⁾이 있고, 연곽 안에는 돌출된 9개의 연뢰(蓮蕾)⁷³⁾가 있다. 연곽 사이의 빈 공간에는 윗부분에 원문범자(圓紋梵字)를 돌려가며 네 곳에 돌을새김하고 있는데 원형범자는 내부에 불교의 진언인 ‘옴, ‘옴, ‘흠, ‘반’ 자를 차례대로 배치하였다. 이 범자들은 순서는 뒤바뀌었으나, ‘옴마니반메흠’으로 음역되는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⁷⁴⁾을 간략히 표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로 머리 광배를 갖춘 4구(四軀)의 합장천부보살상(合掌天部菩薩像)이 있다. 그 아래쪽에는 명문이 돌을새김 되어있으며 하대는 화려한 덩굴무늬 띠가 둘러졌다.

특히 원문범자 아래에 보살상이 있는 모습이 하나의 조(組)를 이루어 연곽과 연곽 사이의 네 곳에 시문되어 있다. 종 아랫부분이 돌을새김으로 처리된 문양 등으로 양감이 있는 편인 이 동종은 종신의 모양이나 연곽과 하대의 위치 등에서 한국 종의 전통 형식을 따르고 있음이 엿보인다.

다소 쇠잔한 듯한 쌍룡, 종신의 공간구조 및 저부조(低浮彫)의 돌을새김 선[陽刻線]으로 처리된 문양 등에서 기하학적으로 변모된 18세기 범종의 양식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2005년에 범종각을 지어 사물 중 동종만을 안치하였으며 현판은 아직 없다.

가. 대흥사 동종(銅鐘)의 명주사 이안(移安) 내력(來歷)

현재 명주사에 소장 중인 양양 명주사 동종의 봉안처는 대흥사(大興寺)로 1704년(숙종 30) 갑신(甲申) 2월 강원도 울진 남령 태백산에 위치한 대흥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대종으로 ‘대흥사명(大興寺銘) 범종’

71) 양양 명주사 소장 1704년작 울진(대흥사명 범종)과 제작 주종장 연구, 김수현, 고양시청 학예연구사

72) 연뢰를 싸고 있는 사각형의 틀

73) 연꽃 봉오리

74) 대승불교의 경전인 '육자대명왕다라니경'(六字大明王陀羅尼經) 및 '불설대승장엄보왕경'(佛說大乘莊嚴寶王經) 등에서는, 이 진언을 부르면, 여러 가지 재앙이나 병환, 도적 등의 재난에서 관세음보살이 지켜주고, 성불을 하거나 큰 자비를 얻는다.

이라고 한다. 이 동종의 원봉안처(元奉安處)가 울진군(蔚珍郡) 태백산에 소재했던 대흥사(大興寺)⁷⁵⁾였기 때문이다. 대흥사는 대형 화재로 소실된 정림사(井林寺)의 옛 터에 1675년(숙종 원년)에 세워진 사찰로 산내 암자로 적조암과 수도암을 두면서 19세기 중반까지 불영사와 함께 울진을 대표하는 사찰이었으나, 1872년부터 1909년 사이에 폐사되었다.⁷⁶⁾

이 동종은 주조된 후 강원도 울진현(蔚珍縣) 대흥사에 봉안되었다가 폐사 후 1897년(대한제국, 광무 원년, 丁酉) 이후에 양양 명주사로 옮겨졌을 것으로 보여지며, 1906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방법은 매매(賣買)로 추정된다.

『건봉사급건본사말사적』에 의하면 1897년 명주사(明珠寺)가 소실되었다. 차후로부터 원통암(圓通庵)에서 사무(寺務)를 행하니 지금의 명주사는 원통암을 말하게 되었다. 1906년(대한 광무 10년, 丙午)에 원통암(圓通庵)을 확장하여 중건하였다. 라는 기록이 전하는데 범종의 매입 시기는 사찰이 소실되어 매우 어려워진 시기인 1897년보다는 사찰을 확장하고 중건하던 시기가 범종을 맞이할 수 있는 여력이 더욱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양시청 학예연구사 김수현의 『양양 명주사 소장 1704년 작 울진 대흥사범종과 제작 주종장 연구』 논문의 1쪽에 “1878년 큰 화재로 소실되자 원통암으로 이전하여 지금의 명주사가 되었다. 이 작품은 1879년 이후에 대흥사에서 명주사로 이안되었고,”라는 기록은 오기(誤記)로 1879년이 아닌 1897년에 명주사가 소실 된것으로 바로 잡는다.

사찰을 창건하면 사찰의 규모와 재력을 고려하여 종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드물게는 범종을 제작하는 대신 다른 사찰의 종이나 폐사지(廢寺址) 등의 범종을 구입하여 봉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봉인사부도암금종기」·「조계산 송광사사고」·「진남군벽발산안정사대종 연기」등의 사례가 있어 양양 명주사 동종도 같은 방법으로 이안(移安) 되었을 것으로 확신하나, 재원에 대하여는 대시주(大施主)에 의한 보시(布施)로 추정된다.

특히, 동종의 제작과 전혀 관계없는 문자가 동종표면에 선각(線刻)되어 있는데 ‘정충득수복발원(鄭忠得壽福發願)’이다.

범종을 훼손 했다고 느낄만큼 종(鐘)의 표면에 뚜렷하게 선각된 이 발원문으로 보아 동종을 대흥사에서 명



〈그림 17〉 명주사 동종과 정충득수복발원 선각

75)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295번지 일원

76) 양양 명주사 소장 1704년작 울진(대흥사명 범종)과 제작 주종장 연구, 김수현, 고양시청 학예연구사

주사로 옮기는 불사(佛事)에 큰 도움을 준 시주자가 정충득(鄭忠得)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시주(大施主)인 정충득을 주종 당시의 예(例)로 종의 표면에 선각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지 제29호에 발표된 『양양 명주사 소장 1704년 작(作) 올진 “대홍사명 범종”과 제작 주종장(鑄鐘匠) 연구』에서는 ‘이 선각이 동종을 명주사로 이안(移安)된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발표한 바 있어 가능성은 더욱 짙다고 하겠다. 또한 범종의 이안과 관련한 기록이 명주사에 없는 것은 오로지 시주자에 의하여 범종이 명주사로 이안되어 왔을 가능성을 더욱 짙게해 준다.

나. 대홍사명 범종의 주종기(鑄鐘記)와 주종장(鑄鐘匠)

이 종은 전체적으로 주조와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또, 종신의 종단을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부착된 장방형의 주종기(鑄鐘記)도 온전히 남아 있어 제작 연대 등 범종 제작과 관련된 내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홍사명 범종에 대한 주종기⁷⁷⁾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종은 강원도(現 경상북도) 울진군 남령 태백산에 위치한 대홍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강희 43년 갑신, 1704년 2월에 제작한 대종으로 재료인 동(銅)과 철은 모두 400근이 들어갔고, 많은 인물들이 동참하여 그 제작을 도왔다. 범종을 제작하고자 천학(天學), 수간(壽幹), 상성(上性)스님이 삼강(三綱)⁷⁸⁾이 되었고, 이에 서영(瑞暎), 석눌(釋訥), 상열(尙悅)스님을 비롯한 많은 사부대중이 시주로 화답하여 범종을 완성하였다.



〈그림 18〉 명주사 동종 명문 일부

특히, 대시주(大施主) 장구필(張旧必)등 시주자가 22명에 이르고 있다. 범종을 제작한 장인인 주종장에 대해서는 강학생(姜鶴生), 이만생(李萬生), 강애생(姜愛生)으로 3명이 순서대로 기재되었다.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편수(副片手)’는 없고, ‘편수(片手)’만이 표기되어 모두가 우두머리 주종장으로 범종 제작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된다.⁷⁹⁾

77) 康熙肆拾參年甲申二月, 江原道蔚珍地南嶺太白山大興寺大鍾造成, 鑄鐵肆百斤, 三綱 天學 壽幹 上性, 持殿 太元, 書記 密故, 緣化秩 邊手 姜鶴生 李萬生 姜愛生, 化主 瑞暎 釋訥 尙悅, 別座 法海, 供養 道含 禪文 小岩 晁集, 施主秩 大施主 張旧必, 施主 朴成漢兩主 金田記兩主 張伯秋 申貴吉 審興世 徐原碧 張道丸 李立先 裴得命 元四追 李氏承介 金九音春 沈刈良 林貴宗 林貴仲 宋元奉 金起世 金險植 南命益, (線刻) 鄭忠得 壽福發願

78) 사원의 관리와 운영의 임무를 맡은 세가지 승직으로 승정(僧正), 승도(僧都), 율사(律師)를 이르거나 상좌(上座), 사주(寺主), 유나(維那)를 말한다.

79) 양양 명주사 소장 1704년작 올진(대홍사명 범종)과 제작 주종장 연구, 김수현, 고양시청 학예연구사

2) 부도군(浮屠群)

명주사 부도군은 1991년 2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자료 제116호로 지정되었다.

부도는 승려의 무덤을 상징하여 그 유골이나 사리를 모셔두는 곳으로 승탑(僧塔)이라고도 한다.

명주사 부도는 조선후기 도내 소재 부도 중에서 가장 빼어난 조각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모두 14기로 8기는 원당형(圓堂形) 6기는 석종형(石鐘形)이었으나 원당형인 성월당(晟月堂) 부도 1기와, 석종형인 보월당 부도 1기를 도난을 당해서 지금은 부도 12기와 4기의 석비(石碑)가 남아있는데 대부분이 1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남아있는 부도와 석비들은 옛 명주사 터 입구 삼거리 우측 능선에 월하당(月虛堂) 부도와 인곡당선사비(麟谷堂禪師碑)가 함께 서 있었고, 그리고 그 반대편의 민가 뒤쪽에 안곡당(安谷堂), 호월당(皓月堂), 청신거사상정(淸信居士尙淨), 연파당(蓮坡堂), 충암당(忠庵堂)의 부도가 나란히 안치되어 있었다.

또한 명주사 계곡입구의 오른쪽 길옆에 중봉당(中峯堂) 부도가, 그리고 명주사 바로 밑에 무하당(無瑕堂), 인허당(麟虛堂), 호월당(皓月堂), 충암당(忠庵堂), 설봉당(雪奉堂)의 부도와 연파당선사비(蓮坡堂禪師碑), 학운당태선사비(鶴雲堂太禪師碑), 용악당대선사비(聳嶽堂大禪師碑)가 세워져 있었다.

이들 부도와 석비는 1994년 현재의 자리인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 59번지로 옮겨져 보존하고 있다.



〈그림 19〉 명주사 부도군 앞열 8기

가. 부도 12기 현황

⇒ 앞열 : ① 덕신당수용대화상(德信堂壽龍大和尚) ⇒ 불기 2521년 서기 1977년 음력 1월 9일 입적(入寂) ② 안곡당(安谷堂, 1832) ③ 중봉당(中峯堂, 1818) ④ 호월당(皓月堂) ⑤ 충암당(忠庵堂) ⑥ 무하당(無瑕堂, 1872) ⑦ 인허당(麟虛堂, 1823) ⑧ 청신거사상정(淸信居士尙淨, 1883)

⇒ 뒷열은 석비 포함 순서 : ① 聳嶽堂大禪師碑(용악당대선사비), ② 설봉당(雪奉堂), ③ 鶴雲堂正原大師碑(학운당정원대사비), ④ 추암당(楸庵堂), ⑤ 蓮坡堂大 禪師碑(연파당대선사비), ⑥ 연파당(蓮坡堂), ⑦ 麟谷堂禪師碑銘(인곡당선사비명), ⑧ 월허당(月虛堂)

▶ 석비 4기 현황 : ①, ③, ⑤, ⑦

나. 문화재(文化財) 도난(盜難)

안타깝게도 우리는 문화재 도굴에 대한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일제와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난 이후 현상으로 복장(伏藏) 유물과 부도의 도괴(倒壞), 무덤을 파헤쳐 문화재를 절취(竊取)하는 사건을 가끔 당하는데 이중 부도의 도괴 사건이 가장 빈번하다.



〈그림 20〉 명주사 부도군 뒷열 8기

※ ①번과 ②번 부도 사이의 대좌석(臺座石)은 성월당(晟月堂) 부도 자리이나 도난을 당하였음, 보월당 부도는 좌대까지 도난당하여 흔적도 없다.

성월당(晟月堂)선사께서는 연파당 대선사(1730년~1817년)의 사승(師僧)으로, 부도에는 치아사리(齒牙舍利)가 내장(內藏)되어 있어 탑호(塔號)가 성월당치아사리탑(晟月堂齒牙舍利塔)⁸⁰⁾이었다고 한다.

승탑(浮屠)속에서 사리와 사리 장엄구 일체를 털어 가는 것도 부족해서 부도와 받침대까지 도난을 당하는 사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림 21〉 동난부도, 성월당/보월당 부도

80) 『건봉사금강봉사말사적』 명주사의 탑 166쪽

종별	명 칭	수 량	높 이(cm)	조성연대	도난 장소	도난일자	소유자
비지정	성월당(晟月堂) 부도 와보월당 의 부도 및 받침대	3점	성월당 117 보월당 172	조선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59	2004. 11. 6.	명주사

다. 부도와 비문(碑文)으로 본 명주사의 역사

가) 연파당대선사(蓮坡堂大禪師)의 비(碑)와 부도(浮屠)

① 연파당대선사(蓮坡堂大禪師)의 비(碑)

비좌(碑座), 비신(碑身), 개석(蓋石)을 갖추었으며, 비좌는 장방형으로 116cm×82cm×20cm의 크기로 상면은 각 변의 모를 죽여 자연스럽게 경사를 주었다. 비신은 69cm×21cm×185cm로 양면에 명문을 세긴 2면의 비석이다. 전면 개석 바로 아래는 우(右)에서 좌측(左側)으로 전서(篆書)를 이용해 『연파당대선사비명(蓮坡堂大禪師碑銘)』 8자(字)가 16cm×69cm의 공간에 게재되어 있다. 음기(陰記)에 『송정기원후4무인7월일립(崇禎紀元後四戊寅七月日立)』이 기록되어 있어 1818년 7월에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개석은 기와집 지붕 형태의 옥개형(屋蓋形)으로 120cm×72cm×41cm로 세련되지 않았다. 비석의 총 높이는 246cm이다.

연파당 대선사(1730년~1817년)의 비문을 요약하면 연파당은 양양부 현산(峴山) 아래서 태어났다. 경주김씨(慶州金氏)이며, 호는 연파(蓮坡)로, 어머니는 홍씨이다. 어려서부터 돌을 세워 부처라 하고, 모래를 모아 공양(供養)하는 놀이를 좋아하였다. 12세에 부모를 잃고 양양 명주사(明珠寺)로 출가하여 불경을 배웠다. 당시의 고승인 호월(皓月)·풍악(楓岳)·송암(松巖)·설파(雪坡) 등을 찾아 내·외경전(內外經典)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 뒤 국내의 명산을 두루 순례하고 명주사로 돌아와 강석(講席)을 열어 후학들을 지도하였는데, 항상 100여명의 학도들이 모였다. 그리고 표충사선교양종도총섭(表忠祠禪敎兩宗都摠攝)과 석왕사도원장(釋王寺都院長)을 역임하다가 정축(1817)년 1월 9일 명주사에 거주한바 세수 87세, 법랍 73세로 입적하였다. 다비(荼毘)하여 사리를 얻게 되자 제자 계옥(戒玉) 등이 부도를 세우고, 다음 해에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영의정 품계] 서용보(徐龍輔)의 글을 받아 비를 세웠다.

■ 연파당 대선사 비명 원문 해석

명나라 시대에 조선국 연파당대선사 비명을 새기고 쓰다

대광보국승록대부 행판중추부사 원임규장각직제학 서용보(徐龍輔)⁸¹⁾가 짓다.

조봉대부 행선공감감역 유한지(俞漢芝)가 전서와 함께 쓰다.

81) 서용보(徐龍輔, 1757년~1824년)는 조선의 문신이다. 본관은 대구이며, 자는 여중(汝中), 호는 심재(心齋)이다. 영의정에 이르렀다. 이후 영중추부사로 물러난다. 시호는 익헌(翼獻)이다

연파 대선사(1730년~1817년)가 이미 열반하자 옥 등 기이한 보주(사리)가 있다고 그 제자들이 알렸다. 돌을 잘라 부도를 만들어 그 보주를 간직하기로 하였다. 장차 단단하고 아름다운 돌에 그의 생애를 전하기 위해 나에게 글을 청했다. 3번 돌려보내니 더욱 근심하여 내가 그의 행장을 어루만졌다. 연파선사의 본관은 김으로 월성인(月城人)이다. 법명은 영주(永住)고 연파(蓮坡)는 그의 호이다.

대대로 양양부의 현산 아래에서 살았다. 어머니 홍씨의 꿈에 한 노승이 명주(明珠)를 주면서 이것은 우리 집안의 가보(家寶)다 라고 말했다. 몸에서 아이를 해산하니 태어난 아이는 빼어나게 총명했다. 그가 놀 때는 반드시 돌로 부처를 만들어 세우고 모래를 모아서 공양을 베풀었다. 보는 사람은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 12살에 부모가 죽자 몹시 슬퍼하였다. 의지할 곳이 없어 드디어 만월산 명주사에서 머리를 깎았다. 선사의 처지를 몹시 분해하던 친교(신선)들이 가르쳐 줄 것을 자임했다. 두루 알려주니 국내에서 유명한 승려가 되었다. 널리 알고 통하도록 내·외의 여러 가르침을 받게 되니 호월당(皓月堂), 풍악법사, 송암대사, 설파대사 같은 분이다. 곧 학문에 빼어나 진실로 화엄학이 깊어져서 인간 세상을 건너는 뗏목이 되었다. 어찌 단지 앞의 존재만 보리요, 나(蓮坡)는 장차 천하를 크고 넓게 관하리다.

나의 가슴은 광대하여 관동지방의 모든 승지를 두루 답습하였다. 이에 또 남쪽의 가야 기림사(경주 함월산)에 이르러 고운 최치원과 의상의 옛 자취를 보았다. 또 남쪽에 이르니 보길도 부황리(윤선도 유배지)에서 달이 떠오른다. 서쪽에 이르니 단군과 서산대사가 남긴 향기를 찾아보았다. 또 서쪽에 이르니 용만의 통군정(의주군 압록강가 정자)에 올라 오랑캐를 조심하라는 글을 보았다. 북쪽 마운령 산맥에 이르러 백두산과 장백산을 바라보니 기상(氣象)이 극에 이른다. 다시 재촉하여 만월산(명주사)에서 수련하니 사방에서 승려들이 배우기 위해 쫓아오는 자가 100명 이상이다. 그 근기에 따라 가르치는 것에 게으르지 않았다. 정축(1817)년 1월 9일 명주사에 거주한바 세수 87세로 법랍 73세에 일찌기 표충사선교양종도총섭, 석왕사도원장으로서 소임을 맡은 채로 열반하였다.

시답 천편에서 나는 부처님께 들었다, 선은 가섭이 전하고, 가르침은 아난이 전하니 선사께서 즐겁게 말씀하시는 경전의 그것은 아난의 학파인가?, 달마가 작은 배로 바다를 건넌다하여 틈을 넓게하여 그것을 가르치면 불제자가 못 된다. 또한 장차 그 가슴을 넓게하라하시며 선사께서는 구름을 사용하여 사방을 여행하였다. 그 또한 달마의 뜻인가?,

세존께서 열반하여 그의 두 발을 보여 끼이지 않음을 보였다. 선사의 영주(사리)는 그 또한 세존의 두 발인가? 마침내 새기어 말했다. 아난의 가르침과 달마의 뜻은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찌 전하며, 기록이 아난에게 어찌 전달되었는가?, 마음이 도와 융합하면 시문이 되어 나타난다. 패수 위에서 한 수 읊는 소리에 먹구름 가득한데 석장 짙고 거의 땅끝 팔연(팔방의 변두리)을 다 돌아봐도 명주사만 신령스럽게 보인다. 만월산 꼭대기에 달이 뜨니 험하고 가파른 산 흠어지고 바닷물은 깊고 거칠다. 천년을 침처럼 얹히고 만년을 비단실처럼 이어져도, 선사를 생각하니 연화장 세계의 보물이다. 승정기원(1628)후 4무인(1818년) 칠월 일 세움⁸²⁾

82) 有明朝鮮國蓮坡堂大禪師碑銘并書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原任奎章閣直提學徐龍輔撰 朝奉大夫行繕工監監役俞漢芝書并篆 蓮坡大師 既示寂 有寶珠之異 其徒戒玉等 伐石爲浮屠 以藏其珠 將復勒于貞珉 蓮坡大師 既示寂 有寶珠之異 其徒戒玉等 伐石爲浮屠 以藏其珠

②연파당 대선사 부도(浮屠)

연파당 대선사의 부도는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 부도이다. 탑신은 물동이 모양의 향아리로 등글고 기단부와 옥개석은 8각으로 1818년(순조 18)에 세워졌다.

지대석(地臺石)은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어 지면과 높이를 맞추었으며 하대석(下臺石)은 12cm×37cm×8면으로 된 비좌(碑座)이다. 중대석 받침은 높이 20cm로 한면마다 2잎의 연꽃이 반씩 걸쳐있어 총 8개의 연꽃잎이 복련(覆蓮)으로 표현되었다. 중대석(中臺石)은 32cm×21cm×8면으로 각 면마다 6자대명왕진언⁸³⁾인 음마니반메흠이 범자문(梵字文)으로 한자씩 음각되어 있다.



〈그림 22〉 연파당대선사비 / 연파당 부도

상대석(上臺石)은 32cm×32cm×8면으로 중대석의 복련을 뒤집어 양련(仰蓮)으로 표현하고 8각 좌대(座臺)를 얹었다. 8각 좌대의 면마다 마름모꼴 속에 구름무늬가 음각되어 새겨져 있다. 탑신(塔身)은 양련(仰蓮) 위에 얹은 향아리 모양인데 규격은 204cm(둘레)×48cm(높이)이다. 탑신 정면에는 한문 해서(楷書)로 위에서 아래로 연파당(蓮坡堂)이라고 당호가 음각되어 있다.

옥개석(屋蓋石)은 귀꽃이 없고 처마가 날렵하지 못하고 다소 투박하지만 옥개석 위에는 보륜(寶輪)과 보주(寶珠)가 있다. 총 높이는 230cm이다.

將復勒于貞珉 圖壽其傳 求文于余 三返而愈勤 余按其狀 日本師姓金 月城人 法名永住 蓮坡其號 世居襄陽岷山之下 母洪氏 夢一老僧 授明珠 曰此我家寶也 己而婉焉 生而穎悟 其嬉戲 必立石爲佛 聚砂設供 見者異之 年十二 失怙恃 哀毀無所因 遂祝髮于滿月山之 明珠寺 慨然以闡教自任 遍謁國內名釋 博通內外諸教 如皓月堂 楓嶽法師 松巖大師 雪坡大師 卽其秀也 允遽於華嚴 既而嘆曰 牖世津筏 豈必只在見葉 吾將觀天下之大觀 以恢吾襟 於是遍踏關東之諸勝地 仍又南至伽倻祇林 瞻孤雲義湘之古蹟 又南至 月出芙蕖 西至于妙香 訪檀君西山之遺 苾 又西至于龍灣 登統軍亭 觀美薈之文 北至于磨雲 望白頭長白之壯終 復趨修于滿月 四方繼踵 從學以百數 隨其根 教授不倦 以丁丑正月初九日 化于所居之明珠 得年八十七 法臘七十三 曾以刻爲表忠祠 禪教兩宗都摠攝 釋王寺道院長 有詩卷千篇 吾聞佛祖 禪傳迦葉 教傳阿難 令師喜談經 其阿難之派歟 達摩艇華涉海 非徒卻廣其教也 抑將以恢其襟也 師之雲遊四方 其亦達摩之志歟 世尊涅槃 現其雙足 以示不滅 師之靈珠 其亦世尊之雙足歟 遂爲之銘曰 阿難之教 達摩之志 非教烏傳 非志烏致 心與道融 發爲詩文 俱上一詠 聲滿曇雲 杖錫所暨 殆遍八羣 明珠示靈 滿月之顙 月山峯 崔蓬海汪洋 千秋葛萬縈兮 是惟師之蓮花寶場 崇禎紀元後四戊寅七月日立

83) 음 마니 반메 흠(唵 麼呢鉢鉢) 티벳 라마교도들이 외우는 관세음보살의 진언(眞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뜻하는 주문으로, 이 주문을 읊으면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의해 번뇌와 죄악이 소멸되고, 온갖 지혜와 공덕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 이 여섯 자(字)를 '6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이라 하며, 음(唵)은 a·u·m의 합성어이고, 각각 만물의 발생·유지·소멸을 상징. 음 마니 반메 흠(唵 麼呢鉢鉢)은 한글로 옮기면 '오! 연꽃 속의 보석이여!'라는 뜻이다.

③ 표충사선교양종도총섭과 석왕사도원장 지위(地位)

연파당(蓮坡堂) 대선사께서는 정축(1817)년 1월 9일 명주사에 거주한바 세수 87세로 법랍 73세에 일찌기 표충사선교양종도총섭, 석왕사도원장으로서 소임을 맡은 채로 열반하였다.

도총섭은 조선시대 승직 가운데 최고의 직위로 1566년(명종 21) 선교 양종과 함께 승직제인 양종 판사직이 없어지고 선조 이후에 새로 생겨난 승직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는 전국에 의승군(義僧軍)의 궤기를 부르짖고 일어선 노승(老僧) 서산대사 휴정(休靜)에게 팔도선교십육종도총섭의 직을 제수했다.

표충사란 임진왜란 때의 구국승장(救國僧將)인 서산대사(西山大師)·사명대사(泗溟大師) 등의 공훈을 기려 밀양·해남·묘향산의 세곳에 세운 국가적 기념사이다. 이 세곳의 표충사마다 각각 도총섭을 둔 것이다. 연파당 대선사는 밀양 표충사에 진영이 모셔져 있다.

석왕사(釋王寺)는 함경남도 안변군 석왕사면 사기리 설봉산(雪峯山)에 있는 절로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기 전 무학대사(無學大師)의 해몽을 듣고 왕이 될 것을 기원하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이성계가 왕이 된 뒤 큰 절이 되었으며 1401년(태종 1)에는 태조가 16일을 머물면서 직접 동구에는 소나무를, 뜰에는 배나무를 심었는데 그 뒤 소나무의 별목을 금하고, 좋은 배는 진상했다고 한다. 같은 해 5월 절의 동쪽에 이성계의 명으로 태종이 별궁을 짓도록 했다. 태종 때는 모든 절의 재산이 몰수당했으나 태조의 원당(願堂)이었던 귀주사(歸州寺)⁸⁴⁾와 석왕사만은 제외되었다.

석왕사에는 여말선초의 건물로 알려진 응진전과 호지문이 있으며 1732년(영조 7)에 개수한 대웅전·영월루·홍복루·범종루·용비루 등이 있고, 31본산 시대에는 여러 전각을 갖춘 대가람이었으며 48개의 말사를 관장했다.

이런 왕실 원찰(願刹)에서 연파당 스님이 사찰 내 최고 지위인 도원장(都元長)을 하셨으니 당시 불교계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⁸⁵⁾

나) 인곡당선사비명(麟谷堂禪師碑銘)

비좌(碑座), 비신(碑身), 이수(螭首)를 갖추었으며, 비좌는 장방형으로 128cm×90cm×21cm 이다. 비신은 73cm×38cm×165cm로 4면 모두에 명문을 새겨져 있다. 비신 전면 위쪽에는 40cm×73cm의 공간에 해서체(楷書體)로 『인곡당 선사비명(麟谷堂禪師碑銘)』이라고 위에서 아래로 2자씩 큰 글씨로 음각(陰刻)되어 있다. 비의 전면에는 6.25로 인하여 “인곡기당호야(麟谷其堂號也)” 중 “곡기(谷其)”자(字) 사이에 충알이 충격하면서 두 글자가 알아볼수 없게 탈락(脫落)되었다.

비신 우측면에 『송정기원후4임진5월일립(崇禎紀元後四壬辰五月日立)』이 기록되어 있어 1832년 5월에 세

84) 함경남도 함흥시설봉산에 소재한 귀주사는 고려 문종 때 봉현(鵬顯) 선사(禪師)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지며, 원래 이름은 정수사(淨水寺)였으나 태조이성계가 귀주사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85) 襄陽 地域의 傳統寺刹 2022년 12월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66쪽

은 것을 알수 있다. 이수는 직육면체로 무늬는 뚜렷하지 않으며 135cm×71cm×55cm이며, 특이하게도 이수 위에 25cm(두께)×75cm×67cm의 평면의 보개(寶蓋)와 보주(寶珠)를 놓았다. 비석의 총 높이는 308cm이다.

인곡당 선사(1734년~1816년)는 이름은 뇌학(雷學)이며, 인곡(麟谷)은 그의 당호로 21세에 현산(양양)의 명주사에 들어갔다. 자함(自欽) 장로에게서 머리를 깎고(祝髮) 월송대사에게 계를 받았으며 설송선사의 법을 이어서 실질적으로 서산대사(휴정)의 정통 법맥을 이었다. 후에 오대산 북대암으로 이주하여 인곡당/부처님께 군친자사(임금과 왕비, 아버지, 어머니)의 복을 기원하는 재를 백일동안 올렸다.

이것으로 재앙을 입은 스님을 구원하고, 무너진 절을 재건하고, 종을 주조하고, 법의(法衣)를 마름질하고, 굶주린 자에게 밥을 주고, 추위에 떠는 자를 보면 옷을 벗어주는 자비를 베풀었다. 인곡당 선사의 부도는 전하지 않는다.

■ 인곡당 선사 비명 원문 해석

명나라 시대에 조선국 인곡당 선사의 서문은 쓰고 비를 새기다.

수록대부 영명위 홍현주(洪顯周) 짓고 씀(撰并書)

선사께서는 웅정 갑인(1734년) 2월 23일에 태어났다. 가정(청나라 연호) 병자(1816년) 11월 20일 83세에 열반하셨다. 이름은 뇌학(雷學)이며, 인곡(麟谷)은 그의 당호이다. 21세에 현산(양양)의 명주사에 들어갔다.

자함(自欽) 장로에게서 머리를 깎고(祝髮) 월송대사에게 계를 받았으며 설송선사의 법을 이어서 실질적으로 서산대사(휴정)의 정통 법맥을 이었다. 후에 오대산 북대암으로 이주하여 부처님께 군친자사(임금과 왕비, 아버지, 어머니)의 복을 기원하는 재를 백일동안 올리자 곡식과 재물이 출연(원조)되었다. 이것으로 혹 재앙을 입은 스님이 있으면 구원하고, 불타고 무너진 절을 재건하고, 큰 종을 주조하고, 법의를 마름질하고, 굶주린 자를 보면 밥을 주고, 추위에 떠는 자를 보면 옷을 벗어주었다. 이것이 선사가 베푼 자비의 대강이다.

무릇 자비란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가르침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며, 등불에서 등불로 전해왔으니 현세 부처님 이전이나 이후나 불교의 제일 덕목이다. 선사의 삼세인 제자인 벽훈이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비석에 새기어 전한다.

풍산 홍씨 현주가 그것 때문에 글에서 선사의 자비가 서에서부터 동으로 이어지고, 동에서부터 서쪽으로 이어지니 그 동이 그 서라 나는 감히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순정기원(1628년)후 4년 임진(1832년) 5월 일 세움⁸⁶⁾

86) 有明朝鮮國麟谷堂禪師碑銘 綏祿大夫 永明尉 洪顯周撰并書 師誕于雍正甲寅二月二十三日 寂于嘉慶丙子十一月二十日 壽八十三歲 諱雷學 麟谷其堂號也 二十一歲 入峴山之明珠 祝髮於自欽長老 受戒於月松大士 嗣法於雪松禪師 實爲西山正宗也 後移居于五臺山之北臺庵 百日齋佛 以祝君親者四 出穀捐金 或救被災之僧 或建焚壞之寺 或鑄大鐘 或裁法衣 或見饑者推食 或見寒者而解衣 此師之慈悲大略也 夫慈悲 釋教之上乘也 心心相傳 燈燈相照 前佛後佛 其揆一也 師之三世碧訓 不忘其惠 將傳刻于石 豐山洪顯周 爲之書曰 自西而東耶 自東而西耶 其東其西 吾未敢知之 崇禎紀元後四壬辰五月日立

다) 학운당태선사정원(鶴雲堂太禪師正原)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비좌(碑座), 비신(碑身), 개석(蓋石)을 갖추었으며, 비좌는 장방형으로 128cm×70cm×28cm이다. 비좌는 자연석을 바닥에 묻고 보이는 곳만 다듬었다. 비신은 64cm×24cm×157cm로 양면에 명문을 새긴 2면의 비석이다. 전면의 중앙에는 전서(篆書)로 『원통암건립대공덕주학운당태선사정원영세불망비(圓通庵建立大功德主 鶴雲堂太禪師正原 永世不忘碑)』가 게재되어있다. 음기(陰記)에 『송정기원후4임신7월일립(崇禎紀元後四壬申七月立)』이 기록되어 있어 1872년 7월에 세운 것을 알수있다. 개석은 옥개형(屋蓋形)으로 106cm×75cm×40cm이다. 비석의 총 높이는 225cm이다.



〈그림 23〉 인곡당 / 학운당대선사비

학운당 태선사(1793년~1869년)는 용악당 대선사의 사승(師僧)으로 원통암이 1781년에 연파 스님에 의해 창건된 이래로 1849년에 소실되자 곧바로 중건하였으며, 1853년에도 소실되어 중건하였다. 1860년(철종 11년)에 명주사(明珠寺), 원통암(圓通庵), 청련암(靑蓮庵), 운문암(雲門庵), 향로암(香爐庵)이 모두 소실되어 승려들이 흠어지려 하자 만류하였다. 상감께서 법전 규정으로 얹어매어 넉넉히 구휼 하도록 함으로써 관청의 전대를 쏘아내고 곳간을 퍼내어 중창하여 1864년 절을 깨끗하게 하였다. 선사께서 1869년 76세에 열반하시었다.

■ 학운당태선사정원 영세불망비명 원문 해석

명나라시대 조선국 강원도 양양부 만월산 명주사의 원통암을 건립하신 큰 공덕주이신 학운당 태선사 정원(正原)의 영세불망비이다. 아! 경신(1860)년의 일이었다. 씨실과 날실이 번갈아들듯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원통암이 불타서 없어졌다). 선사께서 스스로 시주하여 거둬 절을 지으니 크나큰 공덕이 산처럼 높고 물처럼 길다. 우리에게 도광(道光)으로 전심(傳心)하니 받들어 모셨다. 그것을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전한 바를 익히게 하시느라 수고로우셨다. 불행하게도 동치(청나라 목종) 기사(1869)년 4월 초하루에 선사께서 적멸하는 고통을 맞이하였다. 비록 적멸은 시간의 순리라고는 하지만 추증하신 법호엔 미치지 못한 하지만 한 조각의 작은 돌에 우리 문중의 먼 후손까지 미천한 정성을 모아서 선사의 덕행을 기려 사표로 삼으니 이 뜻에 오해 없길 바란다. 연파후손용악보위서(승) 송정기원(1628) 후4 임신(1872)년 칠월 입(세움)⁸⁷⁾

87) 有明朝鮮國 江原道 襄陽府 滿月山 明珠寺 圓通庵建立 大功德主 鶴雲堂太禪師正原 永世不忘碑 粵在庚申 遞經滄桑 自爲施主 重開蓮房 巍巍功德 山高水長 予於道光 奉侍師傳 養之教之 便同劬勞 不幸同治己巳四月朔日 庵遭寂滅之痛 雖曰時順 追號莫及 一片短碣 師表微忱 吾門末裔 或知此意否 蓮坡後孫龔岳普衡書 崇禎紀元後四壬申七月立

라) 용악당대선사비(聳岳堂大禪師碑)

비좌(碑座), 비신(碑身), 개석(蓋石)을 갖추었으며, 비좌는 장방형으로 125cm×90cm×33cm의 크기로 상면은 각 변의 모를 둥글게 죽여 자연스럽게 경사를 주었다. 비신은 75cm×25cm×190cm로 양면에 명문을 새긴 2면의 비석이다. 전면 개석 바로 아래의 우(右)에서 좌측(左側)으로 전서(篆書)를 이용해 용악당대선사비명(聳岳堂大禪師碑銘) 8자(字)가 14cm×75cm의 공간에 게재되어 있다. 음기(陰記)에 『광서9년계미7월 일립(光緒九年癸未七月 日立)』이 기록되어 있어 1883년 7월에 세운 것을 알수 있다. 비신(碑身)은 오석(烏石)으로 뒷면은 비면(碑面)에 균열(龜裂)이 생겨 자칫 글자의 탈락(脫落)이 생길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해 보였다. 개석은 균형미가 돋보이는 기와집 지붕 형태인 옥개형(屋蓋形)으로 130cm×80cm×50cm이며 전체적으로 아름답다. 비석의 총 높이는 273cm이다.

선사의 이름은 보위(普衛)이고 속성은 김으로 본관은 김해인(金海人)이다. 남다른 재주를 갖고 태어나서 일찍이 문사(文史)에 두루 능통했으며 18세인 1834년(순조 4년)에 양양의 명주사 학운(鶴雲)화상에게서 머리를 깎았다. 불경에 통달하여 도반 중에는 앞서는 자가 없었다. 몽암선사로부터 선교 양종의 선지를 전해 받아 청허당(서산대사)의 적파 자손 환성지안(喚醒志安)의 7대손이다. 학운선사께서 암자를 일으키고 열반하자 슬픔을 품고 삼년, 산문을 출입도 하지 않은 채 비석에 생존 시 흠모함을 헤아려 문제를 쏘아 새겼다. 전서와 예서로



〈그림 24〉 용악당대선사비

정교하고 오묘함에 이르렀다. 모여든 많은 제자들이 글을 읽고 유교와 불교를 분별하여 능히 말했다. 전해오는 유·불의 경전을 들락거리며 비록 유학에 머무는 삶을 살더라도 그것에 지나치진 않았다. 그가 지은 시는 슬프면서고 굳세고 호쾌하면서도 밝았고 탁한 채식(菜食)의 기가 없었다. 선사께서 정축(1817)년에 태어나 금년에 67세이며 승랍 50년인 1883년에 그의 법을 전하고 피안으로 건넜다. 용악당 대선사의 남긴 작품으로는 1862년 “원통암 현판”과 1864(동치3, 갑자)년 유월 상순에 쓴 “원통암 상량문”, “학운당 태선사 정원 영세불망비”가 전한다. 특히, 용악 대선사는 영세불망비에서 “연파 후손 용악보위”라고 쓴 것은 5대조인 연파스님을 닮고 싶어서 사표(師表)로 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도 연파스님께서 명산대천(名山大川)의 사찰을 주유(周遊)하며 법(法)을 단단히 하였듯, 용악스님도 1875년 “통도사 백련정사 만일승회기”가 전하는 것으로 보아 만행(萬行)을 통해 고승들을 찾아 다닌 것으로 보인다.

■ 용악당 대선사비명 원문 해석

명나라 시대에 조선국 용악당 대선사의 비를 새기고 서문을 쓰다.

방산거사(榜山居士) 허훈(許薰) 찬(撰)

황곡 서주지(徐錫止)가 쓰고 전서체도 씀

내(용악의 수법상좌 昨珍)가 남쪽 바다 위를 떠돌며 여러 달 지나다 돌아오니 용악의 손제자(濟常)가 받아들여 덕행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었다. 스스로 큰 영을 넘어 오십유순을 달려 양주(陽州)에 와서 묘교의 농막에 머물렀다. 이때 나는 그가 몸을 가지거나 행동하는 일을 오랫동안 보고 용모가 단정하고 말씨를 우아하게 함을 알았다. 대덕 스님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중의 범절과 상복을 입는 관습도 알고 있었다. 손자의 소매에서 조사 용악당 대화상의 행록(언행을 적은 글)이 나왔다.

빈도(수법상좌 昨珍)가 대화상을 위하여 단단한 7척의 곧고 아름다운 돌에 심오한 뜻을 잘 드러낼 사람을 찾았다고 전한 이래 오늘에 이르러서 선생의 이름을 들었다. 거리낌 없이 먼 길을 오라 하니 다행히 선생이 일언으로서 은혜를 베풀었다. 나는 이미 용악(聳岳)선사의 상황을 살펴보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용악 노선사는 오히려 걱정도 없이 가부좌로 앉아서 경을 암송하고 있었다. 두루 물으니 말하길 비석은 돌아가신 일을 슬퍼함인데 선사가 지금 생존해 있으니 비석은 어찌하리요? 손제자가 선생이 이 비석을 마무리 하시길 원하여 말씀하시니 선사께서 어떤 날 몽회(어리석고 어두움)하면 행장을 기리어 중생이 경계하도록 새기자고 완고하게 말했다.

또 더욱 상태가 드러나자 우리 노 선사의 많은 고족제자(학식과 품행이 우수한 제자)들이 나타나 노 선사께 정성을 다하였다. 어떻게 매듭을 지을지를 선생은 종래 말이 없었다. 나는 다시 손제자에게 말했다. 나에게 불가의 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했다. 한 번의 죽음과 삶을 비교하면 태어남은 살기 위함이 아니며, 죽음도 목숨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다. 그래서 사대(지수화풍)는 잠시 머무는 객사(客舍)에 불과하다. 하나의 영혼이 지각한다는 것은 사물의 형용은 아니지만 지나온 것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생과 사(死)는 허물없이 가까운 사이다. 만약 생사에 집착한다면 모양에 빠져들어 도에는 어두워진다. 그런즉 살아 있다 하더라도 죽은 것이다.

비석을 어찌 새기는가? 처음으로 그 행장기(行狀記)를 취합하여 비문을 쓰니 선사의 이름은 보위(普衛)이고 속성은 김으로 본관은 김해인(金海人)이다. 남다른 재주를 갖고 태어나서 일찍이 문사(文史)에 두루 능통했으며 18세인 1834년(순조 4년)에 양양의 명주사 학운(鶴雲)화상에게서 머리 깎고 법복을 입었다. 불경에 통달하여 도반 중에는 앞서는 자가 없었다. 암자의 장로 몽암선사로부터 선교 양종의 선지를 전해 받아 청허당(서산대사)의 적과 자손 환성지안(喚醒志安)의 7대손이다. 사찰이 우연히 만난 액으로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소문이 나자 학운이 재물로 대속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새롭게 해야 하는 까닭에 전대를 들추었다.

나머지도 학운선사께서 주어 암자를 훌륭하게 일으키는 것을 관장하고는 열반을 하였다. 용악은 슬픔을 품고 삼년동안 산문을 출입도 하지 않은 채 비석에 생존 시 흠모함을 헤아려 문체를 쪼아 새기었다. 재단을 설치하니 마음의 움직임도 없이 다 여법하였다. 만유의 본체로서 즐겁게 베풀었으니 타인이 가난하고 곤궁한 것을 보면 구제가 미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였다. 무릇 경판을 인쇄하고 탑과 절을 세우는 재물이 축나는데에는 인식하지 않았으니 선근(善根)을 심는데 한량없는 공덕을 베풀었다.

모든 것을 선사(聳岳)가 하였지만 모르는 사이 신불의 도움을 받는 것에는 인식하여 자기를 위하여는 서원을 말하지 않았다. 문체는 아름답고 빼어났으며, 또한 전서와 예서로 정교하고 각기 오묘함에 이르렀다. 모

여든 많은 제자가 글을 읽고 유교와 불교를 분별하여 능히 말했다. 전해오는 유·불의 경전을 들락거리며 비록 유학에 머무는 삶을 살더라도 그것에 지나치진 않았다. 그가 지은 시는 슬프면서도 굳세고 호쾌하면서도 밝았고 탁한 채식(菜食) 기가 없었다.

이에 행적을 모으니 산을 억누르고 선종의 달이 올라 어두움에서 깨치니 이른바 옥망에서 벗어났다. 이에 음률을 풀어놓았는가? 무릇 관동의 물과 돌은 옥처럼 맑고 기괴하고 수려한 절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이다. 선사께서 항상 이곳에 주석하시니 밤 숲과 새벽이 골짜기에 은하가 쉬어 선회한다. 안개 덮인 기운이 머무르니 늘어선 촛불이 고요함을 밝힌다. 무릎을 잡고 앉아 시문을 길게 읊조리다 탄지경(아주 짧은 시간)에 노랫소리 높이니 모두가 생긴 그대로 시가 되고 진실한 계송(偈頌)이로다. 더욱이 반야경을 기쁘게 외니 이곳은 묘음(妙音)이 스스로 머무는 자리요 법의 바다가 있는 곳이다. 선사께서 능히 이곳을 수용하여 밀인(密印)을 돌리니 많은 중생이 응하였다.

범한 마음이 있어 살펴본들 어찌 헤아리랴 하물며 이 명주사의 주산을 만월산이라 어찌 말하지 않겠는가. 나는 왕사성의 밝은 달빛이 흘러 이 산을 비추는 것을 안다. 영롱한 광채와 맑은 물이 높고 밝은 땅에 흘러한 도량을 열었으니 선사가 그곳에서 반야(참 모습을 환히 아는 지혜)를 성취하였다. 달같이 원만한 선사의 명성은 약사 여래가 계신 동방만월세계에 오래도록 있을 것인데 어찌 바르지 않겠는가. 선사께서 정축(1817)년에 태어나 금년에 67세이며 승랍 50년이다. 고죽 제자 오진(昨珍)과 제자들에게 그의 법을 거듭 전하여 피안으로 건널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취연, 취현, 취운이 항상 법을 계승하였다.

비석에서 말하길 석가모니께서 영축산에서 화엄경을 설법할 때 모든 산에 비유하여 처음에는 높고 가파르나 도를 따르면 결국은 더욱 가지런하여진다고 가르쳤다. 산문을 연 시조인 임제, 조동, 운문, 하택도 이와 같았다. 어떤 경우에는 높이 솟은 산, 혹은 산 구릉, 어떤 것은 첩첩이 깊은 산, 어떤 것은 포개진 산으로 일정 구역에서 빼어남을 닮다 뒤를 잇는 세대가 따라와 미치니 석문, 고봉, 모암, 자백, 등 많은 인물이 나와 (고)자 무리, (나)자 무리, 은자 무리, (궁)자 문중 등 숲처럼 뻗었다. 높고 뾰족한 산봉우리가 너른 들에 막힌 것과 같으니 대동(우리나라)의 고개에서 신라국의 성(姓)씨가 스스로 창시되어 법식이 청허당(西山大師休靜)에 이르러 우뚝 솟아 태화산처럼 단단하다.

공덕이 알려져 대대로 일어나니 산의 모양이 높고, 꼭대기에 돌이 많아 수를 셀만큼 또렷하다. 아~불문에서 운이 쇠하여 존중의 날들이 낮아지고, 무너지고, 묻히고, 막히는 구나. 아~큰 산도 늙으니 두려움이 멈추고 동배(同輩)가 된다. 티끌 하나까지 부어잡고 법을 강의하니 원만하고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밝은 들판(깨달음)을 볼 수 있었다. 누가 상승(가장 뛰어난 교법)의 표표(끝 없이 멀어서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음)는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는가. 나의 채찍과 나의 신발은 앞서간 사람의 용맹함을 따라잡았다.

시가를 모아서 살펴보고 공부를 겸하여 불교에 입문하니 가파른 절경과 그윽한 골짜기의 기암은 옥빛 맑은 우물의 연꽃 봉오리 같다. 안탕산(중국 제일의 명산)의 돌은 문드러진 공화(번뇌)요 푸르른(蒼然) 것은 고색(古色)이요. 금강산 골짜기가 오대산에 막히니 연못에 달이 뜨고 속세에서 나오는 구름에 가려진다. 선사가 그곳에서 마치고 쇠하여 귀의(南無)하였다. 안개와 노을에 원숭이와 학이 길게 대오를 갖추고 늘어서 있

다. 광서 구년 계미(1883, 고종 20년) 칠월 일 세우다.⁸⁸⁾

5. 명주사의 진영각(眞影閣)

6칸 규모의 진영각(眞影閣) 안에는 환성당(喚惺堂)을 비롯하여 이 절과 관련된 17분의 고승 영정이 일제 강점기까지 봉안되어 있었다고 기록⁸⁹⁾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연파당(蓮坡堂) 대사가 “표충사선교양종도총섭(表忠祠禪敎兩宗都摠攝)”을 지냈기 때문에 진영(眞影) 1점이 밀양의 재약산(載藥山) 표충사(表忠寺) 고승 진영들과 함께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해오고 있다.⁹⁰⁾



〈그림 25〉 연파당대선사 진영
(표충사호국박물관 제공)

【명주사의 진영 내역】

환성당(喚惺堂), 연파당(蓮坡堂), 무하당(無瑕堂), 학운당(鶴雲堂), 인곡당(麟谷堂), 용악당(聳嶽堂), 원봉당(圓峰堂), 대은당(大隱堂), 영운당(影雲堂), 몽암당(夢庵堂), 설봉당(雪峰堂), 추암당(楸庵堂), 월허당(月虛堂), 함허당(咸虛堂), 인담당(印潭堂), 성월당(性月堂), 의룡당(義龍堂)

88) 有明朝鮮國聳岳堂大禪師碑銘并序 榜山居士 許薰 撰 黃谷 徐錫止 書并篆 余南遊海上 閱屢月而歸 有閩梨取玄者 自襄州 踰大嶺 走十五由旬 來留仰橋之庄 待余行已久見其容端 而言辭雅知也 知爲服習於大德門風 玄袖出其祖師聳岳堂大和尚行錄 貧道方爲祖師 堅七尺之貞玫 表玄旨之克闡 以貽來今 而聞先生名 不憚遠途而來 幸先生 惠以一言 余既辭不能 諦視其狀 聳岳老師 尚無恙趺坐誦經 遂詢之曰 碑以悲往事也 師且茲舉 出於吾老師之諸高足 爲其師之誠 於吾老師 奚累焉 先生終無辭 余復語玄 曰余今生在 碑何爲哉 玄曰固如先生言然願茲像季禪那日以蒙晦 鐫示懿行 所以警衆生也 聞釋氏之法 一死生 而均視之 生未爲生 死未爲死 蓋其四大 不過片時傳舍 而一靈知覺 歷累劫不泯生與死無間 若執死生爲設 則是濡於相 而昧於道者也 然則死雖生 碑何傷乎 迺撮其狀而書之 曰師名普衡 俗姓金 其先金海人也 生有異才 早通文史 年十八 落紉于襄陽之明珠寺鶴雲和尚 精治內典 儕流無能先者 有夢庵長老 卒傳禪敎宗之旨 寔清虛堂之嫡派 於喚惺 爲七傳云 始鶴雲饒於貲 見名藍遺鬱攸之厄 發棄以新之 餘悉付師善幹之 以養其師 及歿 持哀三年 不出山門 于刊碑啄辭 圖欽壽命 齋醮之設 皆如法無惑 性喜施與 見人妻困 濟如不及 凡印經板 造塔宇 損財不吝 種無量功德者 皆爲師 靳其冥佑 非爲己誓願而發也 長於詞翰 又工篆隸 各臻其妙 多聚徒讀書 能言儒佛之辨 出入經傳 雖世之宿儒 或莫過之 其爲詩 悽壯爽朗 無蔬荀氣 而合轍於抑山禪月劉夢得 所謂離於欲 而遺乎聲律者耶 夫關東泉石 瓊奇秀絕 甲於我邦 師常住錫于此 林宵澗曉 星河易轉 烟蓋停氛 惟燈靜耀 抱膝長吟 彈指高唱 皆眞詩也 眞偈也 尤喜誦般若經 此其妙音之所自 法海之所有也 師能於此受用 轉密印而應群機 有非凡心也 諦所可量也 矧茲明珠之主山 不曰滿月乎 吾知其王舍一輪月 流照乎茲山 玲瓏澄瑛 開一道場 師其成就得般若 圓滿如月 則師之名 長在於東方滿月世界矣 詎不韙哉 師生丁丑 今爲六十七 而五十其僧臘也 其高足曰昨珍 再傳而有濟常 取淵 取玄取雲 常之承也 銘曰靈竺之敎 譬諸山 厥初峻嶒 與瀕瀕齊 爲開山鼻祖 若夫臨濟 曹洞 雲門 荷澤 或屹或崩或坯或() 競秀區宇 逮及後葉 石門 高峯 蒲巖 紫栢 亦衆(岳)者 峯者(山 이름)者 森林 逆若蓂蓂之圃 峙于大東 肇自羅氏 或至清虛 亭若太華之堅 代起名德(찬)卽(표) 歷歷可數 噫乎空門 運替崇日 庫而爲壘 爲塤 爲(호) 猗歟嶽老 聳坡等夷 握塵講法 圓頓契 而昭曠觀 誰謂上乘之縹緲難到 我策我輶 踵前人武 府有詩歌 兼工入法 其峭絕幽奇 若玉井之菖 雁宕之石 燦然空華 蒼然而古者乎 金剛之洞 五臺之壁 有月在潭 有雲出塢 師其終老於斯南 煙霞猿鶴 長爲伍 光緒九年癸未七月 日立

89) 『간봉사금간봉사말사적』 1928년 발간, 명주사의 진영 166쪽

90)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68호 1990. 1. 6일 지정

6. 명주사의 명소(名所)

1) 동천(東川)과 청심대(淸心臺)

『명주사 사적기』에는 명소로 동천(東川)과 청심대(淸心臺)가 나온다. 동천에는 운문암(雲門庵)과 문성폭(聞聲瀑)의 명소가 있고 돌이 잠긴 물이 청주(淸酒)처럼 맑아서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구경꾼이 아주 많다.

청심대(淸心臺)는 아득하게 솟아 산수 경치가 아름다워서 조망(眺望)하면 더없이 훌륭하고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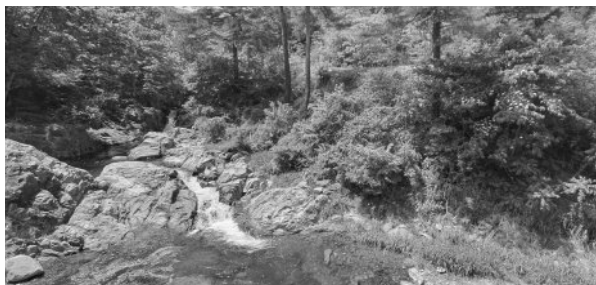
1910년대 초반에 발간된 『현산지(峴山誌)』 형승(形勝)에는 운문암(雲門巖)은 부 남쪽 60리 명주사 남쪽 동수(洞水)에 있는데 돌이 지극히 아름답다. 현수(峴叟) 이휘진(李暉晉)이 ‘운문암’이라 명명하고, 운문암 이름 석자(三字)는 이형익(李衡翼)의 글씨로 크게 새겨져 있다.⁹¹⁾ 청심대(淸心臺)는 부 남쪽 40리 명주사의 북대(北臺)에 있다. 그 기세가 가파르고 높아 골짜기에 임해 누워있는데, 그 높이가 수백 척이다. 현수 이휘진이 ‘청심(淸心)’이라 명하였다. 이곳에는 작자 미상의 시(詩)의 기록(記)이 있는데, 시에 이르기를 “암자(庵子)의 스님은 내가 오지 않음을 응당 괴이하게 여기리, 송원(松院)에서 송이가 피면 만나자는 기약을 한다며, 이 몸으론 한 해도 마치기 어려울 듯, 거기에 비바람 열흘이나 불어댄다. 찬 바람이는 계곡 숲에서 처음 술에서 깨어나니, 옛 달 뜬 산루(山樓)는 시 읊을 만하다. 절 아래 청심대(淸心臺)는 백 척이나 되고, 가마에서 잠시 내려 지팡이에 의지해 거닐어본다” 하였다.⁹²⁾



〈그림 26〉 운문암 전경

2) 검달동(黔達洞)과 매월당(梅月堂)

『현산지(峴山誌)』 고적(古跡)조에 검달동(黔達洞)은 부 남쪽 80리에 있는데, 중첩한 봉우리에 둘러 쌓여 인적이 드물다. 이곳은 동봉(東峯) 김시습(金時習) 복거처(卜居處) 유지(遺址)이다. 일찌기 세속에 전하기를, 오세동자(五世童子)의 터라 이른다. 시에 말하길 “집을 옮기니 각종 영지(靈芝)가 있네, 그곳을 알 수 없네.”⁹³⁾하였다.



〈그림 27〉 검달동 전경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본관은 강릉(江陵), 호는 매월당(梅月堂), 법호(法號)는 설잠(雪岑)이다. 한양의 성균관 부근에서 태어나 3세 때 글을 배우기 시

91) 雲門巖在府南六十里明珠寺之西洞水石極佳峴叟李公暉晉命以雲門巖雲門巖號三字大刻李衡翼

92) 在府南四十里明珠寺之北臺勢斜高俯臨峽川其高數百丈峴叟李公暉晉命以淸心 有詩記之詩曰 庵僧應怪我來遲 松院幽期菌綻衰 已筋骸終歲廢 更 雨風兩一旬欺新 涼風峽樹初醒酒 舊月山樓可讀詩 寺下巖臺臨百尺 籃輿暫卸短筇持

93) 移家種種有靈芝未知其處

작하여 5세때 이미 글을 지어 신동이 되었다. 세종대왕으로부터 오세(五歲)라는 별호를 받았다.

1455년 21세 되던 해 수양대군이 계유정란을 일으켜 단종을 몰아내자 3일간 통곡하고 공부하던 책을 모두 불사른 뒤 승려가 되어 유랑하였다. 이때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진 사육신의 시신을 바탕으로 옮겨 노랑진에 임시 매장한 생육신의 한사람이었다. 저서에는 만포사저포기, 금오신화, 유금오록 등이 있다.

47세(성종 12년 1481년)에 안씨(安氏) 아내를 맞아 환속(還俗)하였으나 폐비 윤씨 사건(1479년)으로 다시 승려가 되어 관동지방을 찾았으며 당시 양양부사 유자한(柳自漢)과 교분으로 범수치리 검달곡(黔達谷)과 설악산에 머물며 자연을 벗 삼아 쓴 100여 편의 시가 관동일록(關東日錄)과 유관동록(遊關東錄)에 전한다.⁹⁴⁾

관동일록은 춘천을 거쳐서 강릉과 양양을 찾은 노정에 따라 시들이 엮여져 있다. 춘천에 도착한 다음 해에는 강릉에 있었다. 강릉과 양양에서 두 해 가량 머물렀던 듯하다.⁹⁵⁾

아래의 시(詩)는 매월당이 머물던 검달동 옆에 대승폭포(大僧瀑布)가 있는데 이곳에 비가 오면 물이 불어서 폭포수가 5m 이상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 아마도 매월당이 이곳을 지나며 쓴 것으로 보이는 “문전비폭(門前飛瀑)”이란 시가 유관동록(遊關東錄)에 전하여 소개해 본다.

■ 門前飛瀑(문 앞까지 날아 떨어지는 폭포)

一道寒泉落遠峯 한줄기 찬 샘이 먼 봉우리에서 떨어지니
對門常噴玉玲瓏 문을 마주하고 언제나 옥빛을 뿜어 영롱하다.
龍駕不回雲寂寞 용가(御駕)가 돌아오지 않아 구름이 적막한데
水聲牽恨和疎鐘 억울함을 끄는 물소리는 먼 곳의 종소리와 어우러진다.

3) 문필봉(文筆峰)의 전설

만월산 명주사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스님들이 참선하고 공부하는 강원(講院)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누구든 빨리 깨치기 위해서는 많은 속설이 있었을 것이다.

만월산은 해발고도 628.1m로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명주사에서 하행(下行)을 하다가 부도탑 앞을 조금 지난 언덕에서 만월산을 바라보면 산 끝이 붓끝 또는 죽순처럼 뾰족하게 보이는데 이를 풍수에서는 문필사(文筆砂)라하여 상룡격(上龍格)이면 문장이 출중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귀와 명예가 널리 알려진다고 하여 우리 조상들은 숭상하였다. 이 절에서 공부하는 승려들이 그곳에 올라가 기도하면 도를 깨친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으며 명주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고시 공부의 요람으로 합격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성전에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출세한 인물들이 있었다.

절의 규모에 비하여 부도탑(僧塔)이 많은 것도 문필봉(文筆峰)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⁹⁶⁾

94) 襄陽 地域의 傳統寺刹 2022년 12월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66쪽

95) 「매월당의 관동유력고」(최승순, 『강원문화연구』 제11집, 1992)

96) 襄陽 地域의 傳統寺刹 2022년 12월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65쪽

V. 명주사(明珠寺)관련 시문학 고찰

매월당 김시습이 양양의 검달동에 머물 때 명주사에서 쓴 것으로 보이는 “증승(贈僧)”이란 시가 관동일록에 실려 전한다.

이헌경(李獻慶)은 삼척부사를 지내면서 동해안을 유람하였으며, 허훈(許薰)은 영남학파의 학통을 계승한 유학자이자 의병장이었다. 『어성십경창화시』의 어성산수록(漁城山水錄)에 절의 서남쪽으로부터 청련암에 이르기까지 골짜기에 비석과 탑이 첩첩한데, 방산(舫山) 허훈(許薰)이 지은 「용악선사비명(聳岳禪師碑銘)」 또한 거기에 있다.⁹⁷⁾라는 기록을 보아서는 용악 선사의 비를 세우던 광서구년 계미(1883, 고종 20년) 7월에 허훈이 명주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1. 김시습(金時習)의 시문

■ 중에게 주다.(贈僧)

是是非非世謾評	옳고 그름에 있어 세상은 헛뜯어 평을 하지만,
雲山回首沒人情	구름과 산을 돌아봐도 인정머리 없구나
已拋身外無窮事	벌써 몸 밖의 일은 던져 버렸으니
敢釣塵寰有限名	티끌로 덮인 세상 한 서린 이름 감히 낚으려니
素食清齋祇樹寺	소식하며 청재 ⁹⁸⁾ 함은 기수 ⁹⁹⁾ 의 절이런가
裝香繕性法王城	향으로 장식하고 성품을 고치니 법왕의 성 ¹⁰⁰⁾ 이라네
淵明本是攢眉客	도연명은 원래 눈썹 찌푸린 나그네라네
分夜疎鐘勿使鳴	한밤중에 성긴 종을 울리지 말게나.

2. 이헌경(李獻慶)¹⁰¹⁾의 시문

■ 명주사(明珠寺)

蘭若爐香歇	향초가 다 타니 향기도 사그러들고,
蓮花畫色無	연꽃 그림도 색을 잃었다.
飛泉多掛樹	절벽에서 날리는 많은 물방울 나무에 걸리니,

97) 2020 漁城十景唱和詩 漁城山水錄 自寺之西南, 以及靑蓮庵, 洞碑塔重重, 許舫山薰所撰聳岳禪師碑銘, 亦在焉

98) 청재(淸齋) :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재계(齋戒)하는 것을 말한다.

99) 기수(祇樹) : 부처님이 머물며 불법을 강의하던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을 말한다.

100) 법왕성(法王城) : 부처님이 계신 성으로 불법을 닦는 도량을 말한다.

101) 1719(숙종 45)~1791(정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전주(全州). 초명은 성경(星慶), 자는 몽서(夢瑞), 호는 간옹(艮翁). 제화(齊華)의 아들이다. 재주가 뛰어나 6, 7세에 벌써 문장을 이루었다.

落葉自歸廚 낙엽은 스스로 부엌으로 돌아간다,
 暝覺蒼山合 황혼에 아득한 산과 하나됨을 깨달고는,
 秋憐白塔孤 가을 하늘은 고독한 백탑을 애호(愛護)하네.
 蕭條齋磬後 외롭고 쓸쓸히 선방에서 수행을 마친 후
 喧殺下庭鳥 의젓하게 하정의 까마귀를 벤다네.
 ⇒ 간옹선생문집(艮翁先生文集) 권지이(卷之二) 시(詩) 오언율시(五言律詩)

3. 허훈(許薰)¹⁰²⁾의 시문

■ 將向明珠寺路中口號襄陽(양양의 명주사로 가는 도중에 한 수 더 짓다.)

不見溪流響但聞 시냇물의 흐름은 볼수 없고 단지 울림을 들을 뿐이니,
 綠陰深處路難分 녹음이 깊은 곳은 길을 분간하기도 어려운데,
 樵童遙指禪菴在 초동이 아득한 선승의 절이 있는 곳을 가리키니,
 第一峯巔出白雲 제일봉 꼭대기에서 백운이 피어나네.

■ 抵明珠寺(명주사에서 막히다)

複嶺重關道路難 복잡한 산봉우리에 중관은 도로 가는 길의 어려움이요,
 萬緣忽淨入松壇 온갖 푸른 숲에 갑자기 찬 기운이 소나무 제단으로 들어오네,
 林紅灼爍明僧衲 숲에 붉은 기운이 성하니 스님의 적삼도 밝게 빛난다.
 山翠空濛沁客冠 산의 푸름은 실체가 없는데도 나그네의 갓에 스며들었네,
 佛氣千年金地冷 부처의 기운이 흐르던 천년 법당엔 냉기가 서리고,
 經聲五夜玉燈寒 경 읽는 소리에 하룻밤 만에 옥등이 식으니,
 明星雙樹空回首 금성과 사라쌍수¹⁰³⁾가 머리에서 겹돌고
 悵悵高禪不可看 실의에 빠진 고 선사는 보이지 않네.

⇒ 방산선생문집(舫山先生文集) 권지오(卷之五) 시(詩)

4. 이용선(李容璇)과 최영택(崔永宅)의 어성십경창화시

1918년 어성십경창화시를 쓰게 된 배경으로 “벗인 이용선(李容璇)이 어성전에서 2년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홀로 산수(山水)의 흥취를 얻어 샘물과 바위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구름과 나무를 평하여 순서에

102) 허훈(許薰)[1836~1907]은 근기남인(近畿南人)의 학풍과 영남학파의 학통을 계승한 유학자이자, 1896년 경상북도 진보에서 창의하여 진보의진(眞寶義陣)을 결성한 의병장이다.

103) 석가모니는 쿠시나गर의 사라수 숲속에서 열반하였는데 동서남북에 이 나무가 2그루씩 8그루가 서 있었으므로 '사라쌍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동쪽의 한 쌍은 상주(常住)와 무상(無常)을, 서쪽의 한 쌍은 진아(眞我)와 무아(無我)를, 남쪽의 한 쌍은 안락(安樂)과 무락(無樂)을, 북쪽의 한 쌍은 청정(淸淨)과 부정(不淨)을 상징한다.

따라 열 가지 경치를 시로 썼다. 이에 군(郡) 안의 문인들에게 시(詩)를 구하니, 그것을 읊고 찬미하였다. 이에 어성의 아름다운 이름이 양양 남쪽에 드러나게 되었다. 내가 그래서 산수(山水)의 경치가 좋은 곳은 산이나 물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고 할 뿐이다. 1918년 2월 초순(初旬)에 남강산인(南崗散人) 최영택(崔永宅)¹⁰⁴⁾이 삼가 쓰다.”¹⁰⁵⁾

■ 산사(山寺)의 모종(暮鐘)

梵鍾續出日西山	해는 서산에 있는데 범종(梵鍾)의 소리 이어지니,
聲在未撞動靜間	치지 않아도 울리는 종소리는 진동과 고요함 사이에 있네.
菩薩觀音能頓悟	보살은 삼매속에서 소리를 관하여 단번에 깨달음을 얻었고
闍梨不語自鳴閑	큰 스님[闍梨]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려지니 한가롭네.
法雲穿破頭陀岸	법의 구름이 두타(頭陀)의 언덕을 꿰뚫고
花雨帶來覺海灣	꽃비를 데려다 깨달음의 바다에 물굽이치게 하니.
遙想姑蘇城外客	아득한 생각의 고소성(姑蘇城) 밖의 나그네는
霜天半夜刺般還	서리 내린 한밤중에 아린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 龍洲(용주) 李容璇(이용선) : 어성십경창화시(漁城十景唱和詩) 160쪽

寒山欲暮暮鍾寒	저물어 가는 차가운 산의 쓸쓸한 저녁 종소리에,
警覺人間昏夢殘	놀라깼 인간의 밤 꿈은 잔상이 이어지는데.
飯後急椎雷共搏	밥 먹은 후 급하게 치니 천둥이 함께 엉킨다.
天邊細響月初圓	하늘가에 가늘게 울리니 달이 영글기 시작하네,
吼鯨隱隱翻蒼海	고래의 울음이 은은히 푸른 바다로 번지고
啄雉鏘鏘下碧巒	꿩이 쪼는 금옥소리 푸른 산에서 내려오니,
如坐姑蘇城外夜	마치 고소성 밖에 앉아 밤을 맞는 것과 같은데
破他寥寂爽懷寬	누가 고즈넉함을 넓리 품어 시원하게 깨뜨려 줄 것인가?

⇒ 南崗散人(남강산인) 崔永宅(최영택) : 어성십경창화시(漁城十景唱和詩) 160쪽

寺鐘一落暮山寒	절의 종소리 한 번에 저녁 산이 식었네.
城外江楓漁火殘	성 밖의 단풍든 강가 고기 낚는 불 쇠잔하니.

104) 최영택(崔永宅): 금계(錦溪) 이근원(李根元, 1840~1918)의 『동유일기(東遊日記)』에 양양(襄陽)에 거 하는 걸출한 선비라 한 것으로 보아, 금계와 비슷한 연배나 혹은 약간 앞선 시기의 인물로 보인다.

105) 李友 容璇, 訓學于漁城之二年, 獨得山水之趣, 粧點泉石品題, 雲樹第次十景, 而詩以記之. 仍 求詩於一郡之文人, 歌詠而贊美之. 於是乎漁城之勝名, 著於襄之南矣. 余故曰, 山水之 名勝, 不在於山水而在於人也云爾. 戊午仲春上澣南崗散人崔永宅謹序

船客聞聲迴桂棹 배위의 나그네가 계수나무 노를 젓는 소리 들리고
 道僧不語坐蒲團 도통한 승려는 말없이 부들방석에 앉았는데
 西天金氣鳴空界 서쪽 하늘에 가을 기운이 허공계(虛空界)를 울리니
 覺海鯨音動碧巒 깨달음의 바다에서 중(고래)소리가 푸른 산을 흔드네,
 佛樂亦能如許大 부처의 풍류 또한 능히 저처럼 큰 것을 용납하나니
 書樓閑聽我懷寬 서재에서 한가로이 들으니 나의 품은 너그럽다오.

⇒ 雪隱(설은) 이국범(李國範)¹⁰⁶ : 어성십경창화시(漁城十景唱和詩) 164쪽

Ⅵ. 맺은 말

지금까지 살펴본 천년고찰 명주사는 고려에서 조선 전기에 이르는 기록이 거의 없어서 이 시기를 거론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창건 당시 창건주인 해명 대사의 발자취를 추적해서 그의 신앙과 사고의 유연성,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확인했다.

명주사가 위치한 어성전리의 자연환경(어성십경)을 고찰하고 “어성산수록(漁城山水錄)”을 통해 사찰과의 관계를 엿보았으며, 명재(明齋) 윤증(尹拯)과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도 탐낼만한 경치임을 알아보았다.

1009년 창건 당시는 비로자나불을 모셨음을 확인했고 지금 명주사가 위치한 만월산이 오대산 기슭으로 당시 오대산의 문수 신앙과 유관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신라말부터 고려, 조선으로 이어온 화엄 종풍(宗風)과 화엄경 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에서 보살의 상주처를 확인하면서 다시 신앙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화엄경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전제(專制) 왕권 국가의 율령정치 체제를 정신적으로 뒷받침하는 큰 구실을 담당하였고, 교단 통합은 왕권 강화와 사회안정으로 연결되었고 미륵신앙은 민간으로만 명맥이 유지됨을 알았다.

명주사는 비로자나불과 문수 신앙에서 미타(彌陀) 신앙과 관음신앙으로 옮겨졌음을 확인하였으며, 미타신앙의 증거인 추사의 “무량수각(無量壽閣)” 현판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명주사의 연혁(沿革)을 살펴보면서 수 없는 화마에 소실과 중건을 반복하다 끝내는 이긴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역사를 보았고, 그 가운데 속암들이 모두 사라져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였다.

1928년 한용운 스님이 작성한 『건봉사급건봉사말사적』에 의하면 명주사는 15개 전각에 95간의 큰 절이었으며, 당시 낙산사가 108간이니 견줄만 하였다는 사실도 알았다. 특히 학승(學僧)이 찾은 강원으로 운영되기에 원통암을 30간으로 중창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6.25로 급작스럽게 몰락하였으며 1963년에야 수릉(壽

106) 이국범(李國範, 1869~1931): 강원도 양양 현북면 출생, 독립운동가이다. 1919년 4월 4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도천면(道川面)과 강현면(降峴面)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龍) 스님에 의해 복원이 되어 현재로 이어짐도 알았다.

1897년 명주사가 화재로 소실되면서 당시의 속암(屬庵)이었던 원통암에서 업무를 보다가 1906년 암자를 확장하고 증건하면서 명주사의 지위를 온전하게 갖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명주사 사적기를 처음으로 모두 번역하면서 1864년 원통암 상량문을 통해 원통암이 사액(賜額)된 곳임을 처음으로 알았고, 이런 사유로 원통암을 중시하였으며, 명주사에 어향각(御香閣)이 지어졌음을 알았다.

명주사의 성보(聖寶)인 동종이 1704년 올진 대흥사명 범종임을 주종기(鑄鐘記)와 몇 편의 논문을 통해서 확인하였으며, 대시주 정충득(鄭忠渴)에 의해 1906년에 이안(移安)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부도(浮屠) 12기와 석비(石碑) 4기, 도난(盜難) 부도 2기에 대하여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도난 부도 중 성월당 부도는 치아사리(齒牙舍利)가 내장(內藏)되어 있어 탑호(塔號)가 성월당치아사리탑(晟月堂齒牙舍利塔)¹⁰⁷⁾이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문 4기를 모두를 번역하였으며, 처음으로 실측하여 연파당의 부도와 함께 본고(本稿)에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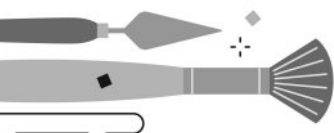
연파당 대선사(1730년~1817년)는 승직 가운데 최고위직인 표충사선교양종도총섭(表忠祠禪敎兩宗都摠攝)과 석왕사도원장(釋王寺都院長)을 역임하다가 입적하였으며 유일하게 비문과 부도가 함께 전한다. 인곡당 선사(1734년~1816년)는 서산대사의 정통 법맥을 이었으며, 오대산에서 군친자4의 수복을 기원하는 100일재를 올렸다. 학운당 태선사(1793년~1869년)는 원통암이 소실되자 3번이나 증건하였으며 상감계 법의 규정으로 넉넉히 구휼(救恤) 받을 수 있도록 주청(奏請)하여 중창을 완료하였다. 용악당 대선사(1817~1883)는 학운의 제자로 몽암 선사로부터 선·교양종의 선지를 전해 받아 서산대사의 적파 자손 환성지안의 7대손이다. 유·불의 경전을 들락거렸다. 용악당 대선사의 남겨진 작품으로는 1862년 “원통암 현판”과 1864년 “원통암 상량문”, 1872년 “학운당 태선사 정원 영세불망비”, 1875년 “통도사 백련정사 만일승회기”가 전한다. 특히, 현재 전해오는 원통암 현판이 용악당의 작품임을 본고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명주사는 주변에 이름난 명소가 많았으며 특히 절 뒤에 상룡격(上龍格)인 문필봉(文筆峰)이 있어 스님들도 문사에 능했다고 한다.

전하는 시문에는 매월당(梅月堂) 김시습의 시문과 1722년(경종 2)부터 1724년(영조 원년) 11월까지 양양부사(襄陽府使)를 지낸 채팽윤(蔡彭胤)의 명주암(明珠庵) 벽옥루(碧玉樓)가 전하며, 삼척부사(三陟府使) 이현경, 유학자이자 의병장인 허훈 등의 작품에서 명주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본고(本稿)를 정리하면서 현존하는 부도 12기 중 생애(生涯)를 알 수 있는 부도는 연파당의 부도 1기 뿐이었다. 고승들의 기록과 진영(眞影)이 1928년 이후 진영각과 함께 소실되어 기록에서 사라졌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도 밀양의 표충사에 연파당 대선사의 진영이 남아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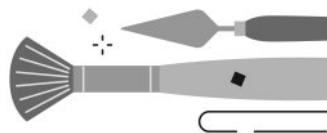
2010년부터 주지 소임을 맡은 적광(寂光) 지혜(智慧) 스님께서 2017년 포대화상(布袋和尚)을 이안(移安)하여 모셨고, 2021년에는 요사 중창과 일주문을 건립하고, 극락전 외부의 벽화를 그리고 주련을 다는 등 불사에 힘쓰고 있어 옛 명성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모쪼록 본고(本稿)가 명주사의 역사와 위상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료로써 활용이 되고 명주사 역사 발굴에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107) 『건봉사급건봉사말사적』 명주사의 탑 166쪽에 탑호가 명기 되어 있다.



2024

문화학교 소개



문화학교 교실별 수료자

합계 316명

교 실 명	강 사	수 료 자	교 실 명	강 사	수 료 자
한 시 교 실	이 종 우	12	사 물 놀 이 교 실	신 주 명	18
서예교실(한문)	함 연 호	27	색 소 폰 교 실	이 명 재	27
서예교실(한글)	김 광 희	29	난 타 교 실	주 동 진	10
한 국 화 교 실	조 정 승	20	민 요 교 실	이 건 남	17
수 채 화 교 실	김 영 덕	26	통 기 타 교 실	강 명 근	30
민 화 교 실	정 복 자	22	600합창단교실	김 영 삼	31
인 두 화 교 실	조 혜 성	10	태 평 소 교 실	박 하 나	8
고 전	최 영 택	9	취 타 대	박하나, 고철영	20

우수 수강생

교 실 명	성 명	교 실 명	성 명
한 시 교 실	김 경 일	사 물 놀 이 교 실	조 복 순
서예교실(한문)	김 기 송	색 소 폰 교 실	한 기 숙
서예교실(한글)	김 신	난 타 교 실	이 아 자
한 국 화 교 실	김 영 미	민 요 교 실	함 명 호
수 채 화 교 실	전 인 경	통 기 타 교 실	신 재 윤
민 화 교 실	천 미 랑	600합창단교실	박 순 자
인 두 화 교 실	신 동 빈	태 평 소 교 실	김 진 학
고 전	김 윤 래	취 타 대	진 정 여



| 수상 |

- ❖ 대한민국 운곡서예, 문인화대전
 - 최우수상 : 김주희
 - 삼 체 상 : 장영랑
 - 특 선 : 이기순, 석경숙, 박상혁, 이주옥, 전선주, 전성호
- ❖ 양양문화제 휘호대회
 - 대 상 : 김주희
 - 우 수 상 : 전선주, 양마루치, 전성호
- ❖ 님의 침묵 서예대전 초대작가전 초대출품 : 노복현



| 전시 |

- ❖ 해풍캘리그래피 동행전 초대출품
 - 노복현, 김순자, 박경숙, 심현순, 김영순
- ❖ 제46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



| 수상 |

- ❖ 2024 강원미술대전
 - 특 선 : 이광우, 최용일, 신동우
 - 입 선 : 윤지환, 김기승, 박상울
- ❖ 2024 운곡서예대전
 - 특 선 : 김기승, 최용일, 박상울
- ❖ 2024 양양문화제 한문서예
 - 대 상 : 김덕주
 - 최우수 : 김기승, 박상울
 - 입 선 : 윤지환, 최용일



| 전시 |

- ❖ 제46회 양양문화제 가훈 써주기, 문화학교 전시
- ❖ 2024 송이연어축제 가훈 써주기, 작품전시
-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



수 상

- ❖ (사)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 봄바람에 물들다 초대전
- 초대작가상 : 신동빈
- ❖ 2024 제5회 전국인두화우수작가전
- 작가상 : 김미동, 박우찬, 신동빈, 유철호, 이상완



전 시

- ❖ 2024 양양국화축제 부스전시회
- 김미동, 박우찬, 신동빈, 유철호, 이상완, 정용환, 조현숙
- ❖ 제46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



수 상

- ❖ 제57회 경남 하동송림음사 전국한시백일장 - 가작 : 김덕주
- ❖ 제9회 양양 전국한시백일장
- 차하 : 김덕주 - 참방 : 김형래, 김준호
- ❖ 제32회 한국한시협회 전국한시백일장
- 가작 : 김덕주, 김형래
- ❖ 제10회 : 전남 진도 전국한시백일장 - 가작 : 김덕주
- ❖ 제27회 강원 영월 조선조 과거대전 - 병과 : 김덕주
- ❖ 제5회 성균관 전국한시백일장 - 가작 : 이종우
- ❖ 제63회 강원 강릉 전국한시백일장 - 가작 : 김덕주



전 시

- ❖ 제46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



| 전시 |

- ❖ 제46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



| 전시 |

- ❖ 강릉아산병원 나눔수채화전
- ❖ 제46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



| 전시 |

- ❖ 제46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



| 전시 |

- ❖ 제46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



| 공연 |

- ❖ 2024 양양문화원 제7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 공연 |

- ❖ 2024 양양문화원 제7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 ❖ 2024 진시문의 재능기부행사 오픈공연



| 공연 |

❖ 2024 양양문화원 제7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 공연 |

❖ 2024 양양문화원 제7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 공연 |

❖ 2024 양양문화원 제7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 수상 |

❖ 춘천전국대회 단체 최우수상(대상)
❖ 실버스타K in강원 실버재능상



| 공연 |

❖ 2024 양양문화원 제7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 수상 |

❖ 제29회 사물놀이경연대회 장려상



| 공연 |

- ❖ 2024 양양문화원 제7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 ❖ 2024 영동북부권역공연 고성, 천하명상 어드메노



| 공연 |

- ❖ 2024 제59회 강원도민체전 개막식 축하공연
- ❖ 2024 제46회 양양문화제 시가행진

| 전시 |

- ❖ 2024 양양문화제 민속경기 축하공연
- ❖ 2024 양양문화원 제7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2024

양양출신 조선천재음악가 허억봉 선양사업 대금반

1. ‘허억봉’은 조선 후기에 통소와 대금 연주자로 당시 장악원(지금의 국립국악원) 총책임자인 전악까지 오른 천재 음악가로, 악인들이 악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금합자보’라는 악보 제작에 참여하였다. 금합자보의 서문에는 “허억봉은 대금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있다.





2. 강좌를 통해 익힌 연주법을 바탕으로 평생학습 및 여가 생활을 지속하며, 문화원 및 타기관, 단체의 다양한 행사에 연주봉사를 다짐으로 우리 전통악기에 대한 인식 구축하고, 마땅한 취미활동이 없는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취미생활과, 수강생들 간의 연주에 대한 소통, 연주 연습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합니다.

3. 대금연주는 호흡하는 방법부터, 악보를 읽는 방법까지 같이 익혀야 하기에 폐활량 및 집중력이 향상에 좋고, 오랜 시간의 곡 습득을 통해 작품 완성에 대한 성취감 및 봉사활동 등 공연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양양문화원에서는 허억봉 선생의 업적 선양을 위해 우리전통악기의 전수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지역민의 문화예술 평생학습 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대금 연주 배우기' 반을 운영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4. 비고

수 강 생 : 18명

공연내역 : 2024. 10. 10. 2024년도 양양문화원

가을날의 문화공연



낙산사 관음송(觀音松) 이야기

우리 민족이 늘 땀감과 건축재료로 애용하던 소나무의 명칭은 너무도 많다. 그중에서 관음송(觀音松)이라는 이름은 낙산사와 연관이 깊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제도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의 근기(根基)에 맞추어 32응신(應身)으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영험담(靈驗談)이라 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3 제4 탑상(塔像) 편에 원효대사가 관세음보살의 진용(眞容)을 보기 위하여 낙산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관음송이 탄생하게 된다.

당나라 유학길에 함께 오를 만큼 두터운 우정을 나누던 도반(道伴) 의상(義相)이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소문을 들은 원효(元曉)가 의상에게 뒤질세라 관세음보살을 직접 뵈기 위하여 낙산사로 향한다.

경주에서 동해의 푸른 바다를 옆에 끼고 의욕에 넘쳐 오랫동안 걸어서 낙산사 근처에 도착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원효가 낙산사 교외(郊外)에 이르렀을 때 논 가운데서 흰옷을 입은 여인이 벼를 베고 있었다. 그래서 장난기가 발동한 원효는 희롱삼아 “벼를 좀 달라”고 했더니 여인도 장난삼아 “벼가 흉작이다”고 대답하였다. 원효는 멋쩍고 섭섭한 마음에 아무말도 못하고 길을 재촉하여 낙산사 입구의 다리 밑에 이르니 다른 여인이 월수백(月水帛 : 생리대)을 빨고 있었다. 목이 마른 원효는 본인이 물을 떠서 먹어도 될 텐데도 굳이 여인에게로 다가가서 “마실 물 좀 주시구려”라고 했다. 이 여인도 원효에게 눈빛 한번 안주고 월수백을 빨던 더러운 물을 떠서 주는 것이 아닌가? 원효가 어두운 표정으로 그 물을 쏟아버리고 깨끗한 물을 다시 떠서 마시고는 ‘고약한 여인네 같으니’ 라고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때마침 들판 가운데에 서 있는 소나무 위에서 파랑새가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는 “제호(醍醐)”¹⁾를 마다한 화상이여”하고는 훌연히 숨어버리고 나타나지 않았다.



三國遺事 권3 塔像 제4 《洛山二大聖 · 觀音 · 正趣 · 調信》

1) 제호는 우유를 거둬 정제하고 숙성시켜 만든 가장 정갈하고 순수한 상태의 유제품인데 오미 중에서 최상의 맛을 낸다고 하며 석가모니 부처께서도 오랜 고행을 마치고 제호를 마시고 기운을 되찾았다고 한다.

원효는 깜짝 놀랐다. 파랑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도 놀라운데 더군다나 제호도 못 찾아 먹는 어리석은 화상으로 놀리다니. 원효가 얼른 그 나무 밑에 가보니 신발 한 짝만 놓여 있었다. 이상히 여기며 절에 도착해 보니 관세음보살상(觀世音菩薩像) 앞에도 똑같은 신발이 놓여 있었다. 그제서야 앞에서 만난 성스러운 여인들이 관세음보살의 진신(眞身)임을 깨달으며 자괴감(自愧感)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당시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관음송(觀音松)이라고 하였다.

이에 원효가 관음굴(觀音窟)에 들어가서 다시 관세음보살의 참모습을 보고자 하였으나 연이은 풍랑이 일어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삼국유사 원문은 한자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윤색(潤色)하였다. 이런 영험담에도 불구하고 원효대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승려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바 오해 없길 바란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파랑새가 앉았던 것으로 여기는 관음송은 고려 임춘(林椿)의 동행기(東行記)로 보아 12세기 후반까지는 낙산사 명물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수령(樹齡)이 600년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이후의 기록은 없다.



수령 600년 된 양양의 소나무

고려시대 임춘(林椿, 1149~1182)의 동행기(東行記)

새벽에 마을에서 들려오는 닭 소리를 듣고 떠나서 낙산 서쪽을 지나는데, 길옆에 외파로 서 있는 소나무가 있었다. 마디와 눈이 또렷하고 가지와 줄기가 구불구불하여 땅을 덮고 있는데, 그 그늘이 미친 곳이 몇 십보나 되었다. 이상하다. 소나무로서 이렇게 기괴하게 생긴 것이 세상에 또다시 있을까. 골 안은 깊숙하고 고요하며 구름 어린 물은 흐릿하며 아마도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요, 신선이 거주하는 곳인 듯, 높은 선비의 유적이 완전히 있었다. 나는 옛날 신라의 원효와 의상 두 법사가 신선굴 속에서 관음보살을 직접 보았다는 사실을 생각했는데, 스스로 범상한 몸과 속된 정신이라 신선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감을 탄식하였다. 남긴 사적을 물어보려 하였으나 다만 산만 길게 뻗어있고, 물만 흐르고 있음을 볼뿐, 수 백년 동안에 옛집과 남은 풍속이 모두 없어졌다. 곧 절구 두 편을 지어 이를 그리워하였다.

三國遺事 권3 塔像 제4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後有元曉法師繼踵而來欲求瞻禮，初至於南郊水田中有一白衣女人刈稻，師戲請其禾，女以稻荒戲荅校勘之，又行至橋下一女洗月水帛，師乞水女酌其穢水獻之，師覆弃之更酌川水而飲之，時野中松上有一青鳥呼曰，“休醍醐和尚，”忽隱不現，其松下一隻脫鞋，師既到寺觀音座下又有前所見脫鞋一隻，方知前所遇聖女乃真身也，故時人謂之觀音松，師欲入聖岫更覩真容，風浪大作不得入而去。

우리 생활과 함께한 소나무

소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교목(常綠喬木)이다. 우리나라 수종 중 가장 넓은 분포면적을 가지며 개체 수도 가장 많다. 소나무는 건조하거나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견디며 화강암 지대의 고산에서도 잘 자란다. 건축재, 가구재, 생활용품, 관재(棺材), 선박 재료로 다양하고도 폭넓게 이용되었다. 거대하게 자란 노목(老木)은 웅장하고 위엄이 있으며, 눈·서리 이겨내는 푸른 기상은 곧은 절개와 굳건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시문(詩文)에 곧잘 등장한다. 우리 민족은 소나무문화권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될 정도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쳐온 나무로 뿌리에서는 양양의 특산물인 송이가 생산되고 죽은 뿌리에서는 신비의 영약인 복령(茯苓)을 캐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 어귀마다 신목(神木)인 서낭(城隍) 나무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오래된 소나무였다. 양양에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소나무로는 하조대 정자 앞의 솟아있는 일명 애국송(愛國松)이다. TV에서 애국가를 연주할 때 비춰주던 곳이었다. 또한 손양면 상운리 263번지의 소나무는 수령이 260년으로 2010년 우리군 최고의 나무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소나무의 이름은 그 쓰임새만큼이나 불리는 이름도 다양한데 그 이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나무와 소나무의 이칭(異稱)

명 칭	유 래
소나무(松)	나무 중에 우두머리란 뜻인 수리에서 시작되어, 이후 ⇒ 솔 ⇒ 솔로 변형되었음. 松자는 나무(木)의 공작(公)을 뜻한다고 함.
관음송(觀音松)	낙산사를 찾아오는 원효대사의 설화에서 유래
금강송(金剛松)	백두대간의 눈비를 견뎌내어서 매우 단단하고 귀하다는 뜻
황장목(黃腸木)	임금님의 관(棺)을 짜는데 쓰던 황금빛의 질 좋은 소나무
적송(赤松)	일제 강점기 때 소나무 껍질이 붉다 하여 붙여진 이름
홍송(紅松)	원래 잣나무를 뜻하나 소나무를 적송이라 부르며 홍송으로도 부름
육송(陸松)	조선 소나무로 불리며 내륙에서 자람을 뜻함.
여송(女松)	여인의 자태처럼 우아하고 부드럽게 보인다는 뜻
곰솔(黑松)	껍질이 곰 발바닥 같다 하여 붙인 이름. 해송을 뜻하기도 함.
반송(盤松)	지표면으로부터 줄기가 우산살 모양으로 여러 가지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우산 같은 모양으로 되는 소나무(붉은 줄기가 고유종임)
다행송(多行松)	반송과 같으나 오래된 줄기는 흑갈색을 띠며 중국 원산임.
만지송(萬枝松)	반송과 같다고는 하나 가지가 만(萬) 개나 되는 고목을 뜻함.
관솔(소쟁이)	송진이 엉긴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 불이 잘 붙어 등불 대신 이용 하거나 불쏘시개로 사용 함.
춘양목(春陽木)	일제 강점기 때 백두대간 목재가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서 기차로 서울로 실려 온 나무를 말함. 고급 목재의 대명사

우리와 가장 친숙한 소나무는 아이가 태어나면 원 새끼줄에 생솔가지를 꽂아 금줄을 쳤고, 소나무로 만든 집에서 소나무를 때면서 살다가 죽어서는 소나무로 만든 관속에 모셔졌다.

한국의 소나무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금강송(金剛松)으로 균열이 적고 아름다워서 최고급 목재로 여겨진다. 금강산에서부터 백두대간을 따라 경상북도까지 폭 넓게 자생하고 있다. 금강(金剛)은 불경의 금강경(金剛經)에서 따온 이름으로 최고 경도(硬度)로 단단할 뿐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붙여졌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소나무를 중요시하여 이를 손상시키는 일을 금지해 왔으며, 특히 조선 시대에는 황장목(黃腸木) 보호를 위하여 출입을 엄금하는 금표(禁標)를 세워 국가가 직접 관리했으며, 주로 자궁[梓宮 : 임금·왕비·왕세자들의 유해를 모시는 관]감으로 사용 또는 궁궐이나 관청 등을 짓거나 국가 대사가 있을 때만 벌목했다.

정조 12년(1788)에는 <송금절목 松禁節目>을 만들어 소나무의 벌채를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우리군에도 이렇게 관리하던 황장산(黃腸山)에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부사가 1800년 6월에 정조 임금이 승하하시자 황장목(黃腸木)을 베기 위한 진영(鎭營)이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군에서 일반목재가 아닌 황장목을 징발한 것은 당시의 도로 사정상 원목보다는 판재(板材)로 가공하면 백두대간을 넘어가기가 쉬웠기 때문일 것이다.

기후 변화의 스트레스로 소나무 군락지가 무너지고 있다. 소나무의 보존은 우리문화를 지키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 보존 대책이 시급한 이유이다.



금강송 군락지



비변사인방안지도, 양양 전림 황장산 표기 금표

사진설명 : (좌) 18세기 초중엽에 제작한 양양 비변사인방안 지도인데 “전림산 주회3백3십리”로 기록되어있고, (우) “양양 전림 황장산 남계100리 주회300백30리” 라고 표기되어있는데 비변사방안지도와 일치하며, “남계100리”의 위치는 현재 홍천군 내면 명개리로 당시 양양관아에서부터의 거리가 100리이며, “주회330리”는 지도상의 위치가 구룡령 부근으로 황장산의 범위인 그 둘레가 330리라는 의미이다. 이 표지석이 세워진 위치는 1973년 7월 1일 양양군 서면(명개리)에서 홍천군 내면으로 편입되었다.

「양양팔경가」를 아시나요.

남한에서는 잊혔지만 북한에서는 부르는, 양양사람은 안 부르지만 중국 조선족은 부르는 양양노래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인민공화국 통치 시기에 만들어진 「양양팔경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양양초급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최용대 교장이 작사하고, 음악교사 김태선이 작곡하였습니다.

양양학연구소 이종우 고문은 “이 노래를 1947년 김태선 선생님께서부터 직접 배웠다”면서 “김태선 선생이 작곡한 악보를 이종방 선생이 피아노를 치고, 차순례 선생이 노래를 부르면서 군민들이 잘 부를 수 있도록 민요풍으로 악보가 다듬어졌다.”라고 증언합니다.



김태선 선생께서 쓰시던 아코디온



조선교육출판사 음악책



곡이 만들어진 1947년에는 양양초급(고급)중학교에 합창부(36명, 남성 4부)가 조직되어 「양양팔경가」를 보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불리던 이 노래는 언제부터인가 양양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양양학연구소 한상호 연구원은 “중학생 때인 1960년대까지는 어른들이 약주를 드시면서 부르시는 걸 종종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되어 부를 수 없었다는 설도 있는데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작사자 최용대의 행적을 염두에 둔 주민들의 짐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용대는 양양 조산리에서 출생하여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 기자로 지내며 사회주의계열 사회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광복 후 인민공화국 치하에서 양양초급(고급)중학교 교장을 겸임하다가 한국전쟁 직전인 1949년, 함경도 덕원농업전문학교 교장으로 전근되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1963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속초와 고성이 양양에서 분리되자 가사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 점점 덜 부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양팔경가 중 ‘남으론 하조대 북으론 운봉산/청간정을 바라보는 의상대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운봉산과 청간정은 고성군에 있습니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에 의하면 “정명시 양양군수(마지막 관선 군수, 재임기간 1989~1993년) 시절부터 2014년경까지는 월례조회나 큰 행사 후에 전 공무원들이 함께 양양팔경가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로 볼 때 민간에서는 거의 잊히고 있었지만, 군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맥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양팔경가는 4분의 3박자, 바장조, 24마디로 구성된 곡으로 1절과 2절로 되어있습니다. 구전되어 오는 가사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운봉산/운용산’, ‘하조대/화주대’, ‘앞뜰엔/앞에는 동해안 뒤뜰엔/뒤에는 설악산’, ‘놀이 좋고/살기 좋고 물색 좋은/물색 맑은 양양이라네’로 서로 다르게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예로부터 양양은 살기 좋고 양양사람은 풍류를 좋아한 것 같습니다. 산 좋고 물 맑으며 형편이 괜찮은 곳이다 보니 놀기를 좋아했나 봅니다.

그런데 가사에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팔경가인데 가사에는 일곱 개 명승만이 등장합니다. 동해안, 설악산, 낙산사, 하조대, 운봉산, 청간정과 의상대가 그것인데요. 남은 하나는 각자가 좋아하는 것으로 정해보라는 작사자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양팔경가」는 사료적으로도 중요하고, 양양인의 자긍심도 높여주는 노래라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더라도 전승시킬 가치가 충분합니다. 2023년 11월 양양군문화복지회관에서 ‘양양 부부합창단’이 「양양팔경가」를 2부 화음으로 편곡하고, ‘공기 맑고 사람 좋은 양양이라네/우리 뿌리는 깊고 넓다네/강에는 연어가 산에는 송이가/바다엔 젊은 서퍼 오색령 사계절/에헤 좋구 좋다 양양이로구나’라는 3절 가사를 덧붙여 양양을 소개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양양 팔경가

김태선(曲)/최용대·한상호(詞)
송은희(編曲)

1. 산 좋 고 물 맑 은 양 - 양 - 이 라 네
2. 놀 기 좋 고 물 색 좋 은 양 - 양 - 이 라 네
3. 공 기 맑 고 사 람 좋 은 양 - 양 - 이 라 네

우 리 자 람 은 팔 - 경 - 이 로 다
우 리 자 람 은 팔 - 경 - 이 로 다
F 우 리 자 람 은 팔 - 경 - 이 로 다

앞 뜰 엔 동 해 안 뒤 뜰 엔 설 - 악 - 산
남 으 론 언 하 연 어 가 북 으 론 운 - 봉 - 산
Dm 강 으 는 연 어 가 산 으 는 송 - 이 - 가

해 안 을 끼 고 도 는 낙 - 산 - 사 로 다
청 간 정 을 바 라 보 는 의 - 상 - 대 로 다
F 바 다 연 절 은 서 피 오 색 령 사 계 절

에 헤 해 에 - 좋 구 좋 다

3. 팔 경 이 로 구 - 나

양양팔경가 악보

3·1만세운동이후 계속된 양양의 청년운동

기미년 만세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급격히 약해진 상황에서 조직된 ‘조선민족독립대동단’이 1919년 9월 조직을 재정비하며 ‘사회주의를 철저히 시행한다’는 노선을 내걸었던 것처럼 1920~1922년 무렵은 민족주의,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등 다양한 사상이 혼재되어 일어나던 시기였다.

그때 양양의 3·1 만세운동 주력이었던 청년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아본다.

1921년 3월 예배당(현재 양양감리교회)에서 창립된 양양엠피스청년회는 전도 사업, 유학 지원, 토론 및 강연회 개최 등 주요 사업을 추구하였다. 이 청년회가 강릉 관동학우회의 순회강연을 지원하였으나 허가 없이 금품을 모집했다 하여 일제로부터 벌금을 처분받는 등 집요한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

엠피스청년회(Epworth League)는 미국 감리교파(Methodist) 청년단체로 구한말에 서재필과 윤치호 등이 주도했으며 백범 김구도 진남포 엠피스청년회 출신이다.

〈동아일보 1923.9.1.〉 1922년 경성 유학생이 강현면 물치리에 호산(湖山)기독교청년회를 조직하면서 노동야학 및 풍속개량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이듬해 물치노동동맹이 결성되었다.



시대일보 1925.1.22.(양양신청년 동맹창립)

양양지역 청년운동의 분기점은 1925년에 창립한 양양신청년동맹(신청)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동맹의 집행위원 대부분은 사회주의계였으며 무산계급을 대표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소작운동, 노동연합 등을 논의하고 실천하였다.

1925년 11월 9일에 만해 한용운(韓龍雲)은 ‘인생관’이란 제목의 강연회를, 21일에 송봉우는 동

아일보 양양지국의 후원으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양양청년회를 통합한 동화청년회가 1927년 3월 전양양사회운동단체연합친회(全襄陽社會運動團體聯合懇親會)를 주최하여 참가인원 80여 명과 함께 양양의 사회운동 전반에 대하여 논의, 결의하였으며 그해에 양양신청년동맹은 양양청년연맹으로, 다시 양양청년동맹(양청동맹)으로 발전적인 해체와 재조직을 거듭했고 각 면의 청년단체는 양청동맹 지부로 전환하였다. 당시 9개 면에 8개 지부가 설치되고 지부의 총회원은 300명 정도였으며 양청동맹은 신간회양양지회, 양양농민조합, 어민조합 및 소년연맹 창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중외일보 1927.11.27.(양양신간 설립대회 성황)

비타협 민족주의계와 성장한 사회주의계가 연합하여 1927년 2월에 창립된 신간회는 민족의 지지를 받으며 전국적인 조직을 구축하였는데 그해 11월 양양신간회지회가 설립되었다.

100여 년 전 양양지역 청년들이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함께 하면서 사회 변혁 주체로서 노력한 모습이 엿보인다.

“조국은 영원히 민족의 것이지 무슨 무슨 주의자들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식민지 역사 속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피 흘린 모든 사람의 공은 공정하게 평가되고 공평하게 대접되어야 한다”는 『아리랑』의 작가 조정래의 말을 떠올린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내고장 양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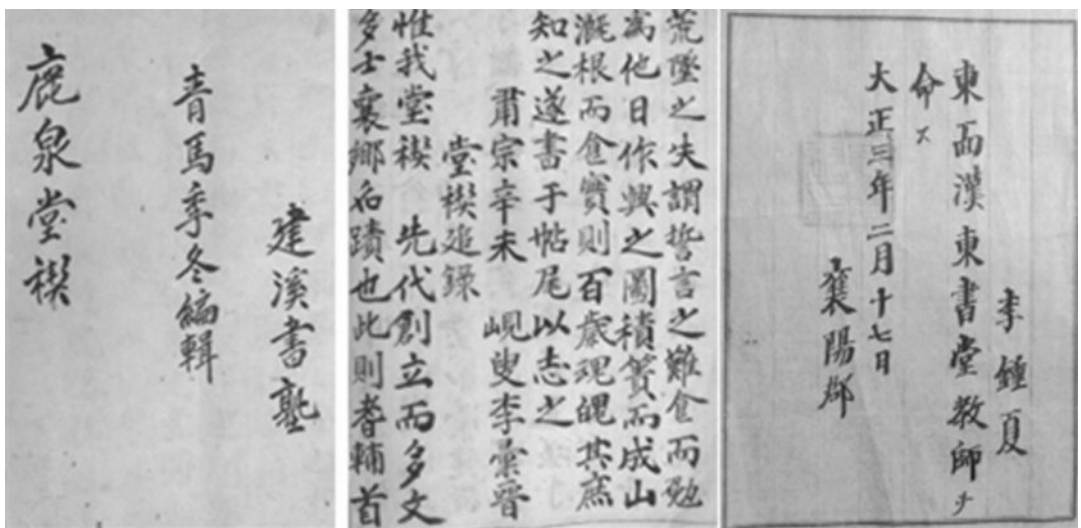
옛날부터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다. 교육이 국가와 사회 발전의 근본 초석이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긴 안목과 신중한 계획이 요구된다는 말일 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성립과 함께 제도화된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며 인재육성에 힘쓴다.

5월은 교육의 달이기도 하다. 역사 속에서 보여준 우리 군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참여를 한번 돌아보고자 한다.

우리 지역은 기록상 향교가 가장 오래된 교육기관이다. 고려 1260년 이전에 이미 설립되었으나 강릉도준무사 안축에 의해 재건된 향교는 조선 숙종 8년(1682년)에 부사 최상익이 확장 이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관(官)에서 주도하여 세운 향교이지만 건립과정에서 양양지방의 향로(鄕老)들이 적극 의견을 내고 참여하였다.

또한 조선 인조 6년(1628)에 양양도호부사 조위한이 흥학에 뜻을 두고 방법을 강구하던 중 장차 험리게 될 양양부 대포만호영의 군용 건물을 학사로 전용하도록하면서 동명서원이 창건되었다. 서원 운영에 국가의 지원이 있었으나 사학인 만큼 지역 유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운영되었다.

서민들의 유일한 교육기관인 서당은 서문리의 건계서당, 조산리의 몽산서당, 송전리의 한동서당 이외에도 마을마다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양양지방의 인재들이 과거시험에 다수 합격한 사료는 기초교육이 되는 서당 교육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지역민들의 교육에 대한 참여도는 어떠했는지 잘 보여준다.



건계서숙 녹천당계첩(1691년)과 한동서당 교사 임명장(1914년)

3.1운동 이후에는 대다수의 마을에 신학서당을 설치하여 각 리마다 야간학교를 개설하였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서당에 모여 배움에 대한 열의를 불태웠다. 신학서당은 근대적 초등교육을 실시하여 국민교육과 문맹퇴치 그리고 민족의식 양양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근대 교육기관으로는 1906년 남궁억 선생의 주도로 설립된 현산학교가 있다.

학교 건립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양양 인사들이 앞다투어 엽전 3만 량을 출연 기부하였다. 당시 황성신문은 양양의 인사들과 군민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 신학문에 대한 뜨거운 교육열을 여러 차례 기사화하여 전국이 이를 본받기를 장려하였다.

일제 강점기 식민주의 교육과 해방 이후 북한 치하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기도 했으나 6.25 전란 이후 1953년 양양이 수복 지구로 행정구역이 이양되면서 손실, 파괴되었던 각급 학교를 재건하고 면학에 정진하게 되었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양양의 교육기관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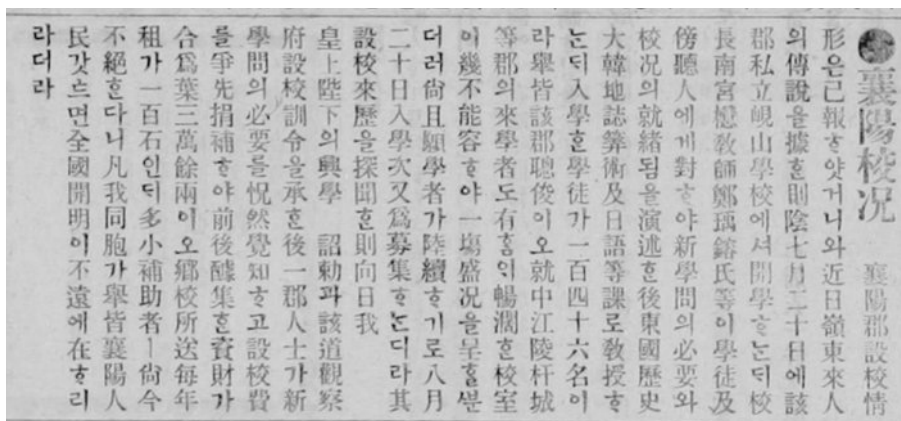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여준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과 군민들의 호응은 늘 한결같았다. 우리 아이들의 질 좋은 교육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며 현재 고등학교 1개, 중학교 4개, 초등학교 16개와 사립 교육 기관들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은 신이 보내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그 선물을 잘 키워내기 위해선 사회 전체의 전폭적인 도움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실천을 통해 학교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자라는 소리가 양양에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옛 현산학교(군행리)



1906년 9월 8일 사립 현산학교 개학관련 기사 (1906년 9월 26일자 황성신문)

양양향교 발전에 기여한 인물

양양의 공교육은 지금부터 약 800년 전인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인종(仁宗) 5년(1127) 3월, 전국의 모든 주(州)에 학교를 세우라는 입학조서【立學詔書:『고려사』세가 권74】에 근거하여 양양향교가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양양이 양주방어사로 승격된 1221년에서 지양주사로 승격된 1260년경 사이로 추정된다.

양양향교는 고려 충숙왕 17년(1330) 구교리에 재건하였다가 조선 숙종 8년(1682)에 구교리에서 현재의 위치인 임천리로 이전하였는데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 재건되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양양에서도 조선시대에 유학이 번성하였는데 당시 지역 유학의 요람인 양양향교의 발전을 위해 공로가 큰 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양향교에는 오래된 비석 4기가 있는데 유학 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양양 부사 조종저(趙宗著), 안경운(安慶運), 임희교(任希敎)의 흥학비(興學碑)와 군수 이구영(李龜榮) 거사비(去思碑)이다.



향교입구 전경

- 조종저(趙宗著) 부사 : “재직 중 교육에 치중하고 교풍을 진흥시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여 과거에서 우등으로 합격한 사람이 계속 끊이지 않았다”는 현산지 명한조(峴山誌 名宦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趙公宗著留心學校興起士風自後文教漸振科甲連綿/조공종저유심학 교흥기사풍자후문교점진과갑연면】 본관은 한양(漢陽), 현종 1년(1660) 성균관에 입학하여 문명을 날렸으며, 병조좌랑을 지내다가 숙종 원년(1675) 8월 2일 양양부사로 부임, 숙종 2년(1676)

11월 16일 홍문관 수찬으로 제수받고 이임하였다. 홍학비와 더불어 선정비도 세워졌으며, 관직은 사헌부 집의에 이르렀다. 역사에 밝았고, 천문·역수·의약에도 통달하였다. 저서로 『남악집』·『간재신사』 등이 있다.

- 안경운(安慶運) 부사 : 재임 중 학문을 장려하고 향교재산을 증식시켰다. 또한 영조 23년(1747) 사림사(선림원) 홍각선사비가 산불로 훼손된 것을 관아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이 비는 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영조 1년(1725) 정시 문과에서 병과로 급제, 1743년 병조참의를 역임한 후 영조 20년(1744) 12월 2일 양양 부사로 부임하여 3년간 봉직한 후에 병조참의로 제수받고 이임하였다. 본관은 순흥으로 선조(先祖)인 강릉도준부사를 역임한 안축선생의 시문집인 『근재집』을 펴냈다.
- 임희교(任希敎) 부사 : 재직 중 학문과 인재 양성에 전력하였다. 본관은 풍천(豐川), 영조 26년(1750) 알성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하고 영조 31년(1755) 7월 17일 사헌부 장령에서 양양부사로 부임하였다가 영조 33년(1757) 사헌부 집의를 제수받고 이임하였으며 관직이 병조참판과 대사헌에 이르렀다.
- 이구영(李龜榮)군수 : 재직 중 양양향교와 동해신묘를 증수하였다. 법도에 맞게 민간의 관심사를 현장에서 살펴 존경받았다. 춘천 출신으로 고종 20년(1883) 유학으로 벼슬에 진출, 고종 37년(1900)에 양양군수로 부임하였다가 고종 38년(1901) 이임한 후 종2품에 올랐다.

비문이 한문인데다 마모되어 알아보기 어려워 관람객을 위한 안내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문헌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양양향교의 홍학비와 거사비 : 조선시대에 양양 부사와 군수로 재직하신 분 중에 학문을 장려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향교 재산을 증식하거나 건물을 증수하는 등 공적을 세운 이들을 기려 양양주민이 세운 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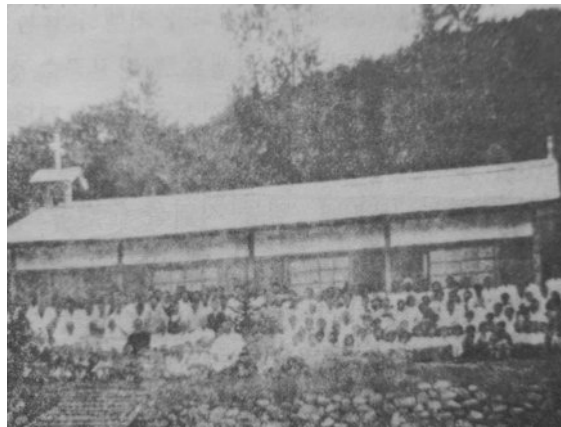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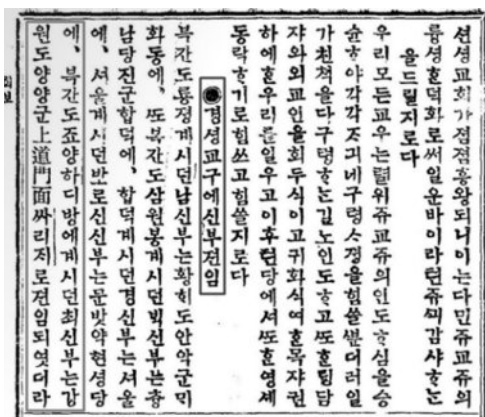


양양부사·군수 홍학비·거사비 모습

영동지역 최초의 본당, 양양성당 (I)

“900여 명 영동 교우/즐거울세 오늘이여//자고이래 처음 되는/두 분 신부 환영일세//(중략)//신부 신자 새로운 정/도문동에 빛나도다”

이 노래는 1921년 6월 20일 미사 후에 열린 사제 환영식에서 강릉 교우들이 부른 환영가 중 일부이다. 양양 상도문리 싸리재에서 개최한 환영식에는 북쪽의 통천에서부터 남쪽의 강릉과 정선까지의 신자들이 모여 부임한 최문식 신부와 이철원 보좌신부를 환영하였다. 노랫말에 나오듯 양양은 자고이래(自古以來) 영동지역에 처음으로 성당이 세워진 곳이다.



최문식(베드로)신부 양양 상도문 싸리재성당 부임 기사(경향잡지 1921.5.15일 통권469호)

싸리재 도문공소 강당 축성식 기념사진 (1935.6.24)

영동지역의 가톨릭은 1866년의 병인박해 무렵 외지에서 온 천주교 신자들이 교우촌을 형성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양양은 충청도 제천의 배론교우촌에 살던 이 베드로 등 신자들이 양양 화일리 범뱅이골로 피신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충청도 청주에 살던 오광선이라는 사람이 박해를 피해 강릉에 거주하였는데 그의 장남인 오춘영이 병인박해 때 은응골(강현면 중북리)로 이전 정착하였다는 설도 전한다. 다른 지역의 천주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양양지역의 신자들도 여러 교우촌에서 용기를 구워 생계를 유지하였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문호가 열리며 종교자유도 일부 부여된다. 양양의 교우촌들도 공소를 운영하는 등 활기를 띤다. 1882년 경에는 화일리(쉬일)에, 1887년 경에는 상도문리 싸리재에, 1899년 경에는 명지리에도 공소모임이 생겼고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장승골(장승리)과 중바우(정암리) 및 학야골(고성 학야리) 등에도 공소 모임이 있었다. 공소 모임은 여러 곳에 있었으나 영동지역에 공소

집이 있었던 곳은 상도문리 싸리재와 금광리(강릉 주문진) 두 곳이었는데 이 두 곳은 나중에 영동지역의 제1호 제2호 본당이 된다. (공소 : 사제가 상주하지 않는 신자들의 공동체. 당시에는 별도의 건물 없이 신자들의 사가(私家)에서 공소예절을 지내기도 했다.)

1890년부터 영동지역의 공소들은 함경도의 원산본당과 안변본당의 프랑스 신부들이 관할하였다. 양양에 본당이 설립되기까지 안변본당의 제4대 주임이던 블라두 신부와 제7대 주임인 뤼카 신부의 공로가 특별히 크다. 블라두 신부는 불편한 여건에도 7년간 1년에 두 번씩 영동의 공소들을 방문하였고 뤼카 신부는 적극적인 선교로 교인을 540명에서 900명 가까이 늘렸다. 영동지역의 신자가 늘어나고 신자들이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자 뤼카 신부는 이를 주교에게 보고하였고 서울교구는 1921년 4월 17일부(음력, 양력으로는 5월 29일)로 양양지방에 본당을 세우기로 하였다. 초대 주임으로 최문식 신부를 임명함으로써 영동지역 최초의 본당이 설립되었다.

최문식 신부는 1921년 5월 상도문리 싸리재에 있는 성당으로 수리한 가옥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 해 10월 주교로부터 성체를 모실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1년 후인 1922년 교통상황과 신도들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시내와 가까운 서문리로 본당



서문리 성당에서 새로 부임한 이광재(디모테오)신부와 이임하는 유재옥(프란치스코) 신부 기념사진 (1939.7.25.경)



성내리성당 축성 당시 모습 (1940.1.28)

을 이전한다. 서문리 성당은 지금의 문수사 부근에 있었는데 1936년 대홍수로 건물이 침수되자 일제(日帝) 치하에서 우여곡절을 거쳐 1940년 현재 위치 성내리로 이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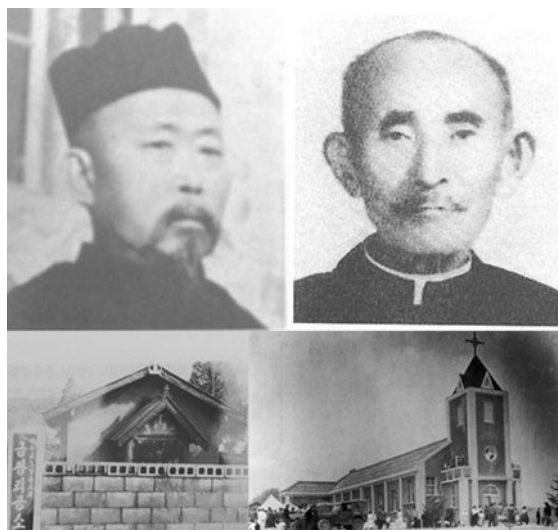
※ 이 글은 춘천교구 양양교회가 2001년에 펴낸 <<양양본당 80년사>>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영동지역 최초의 본당, 양양성당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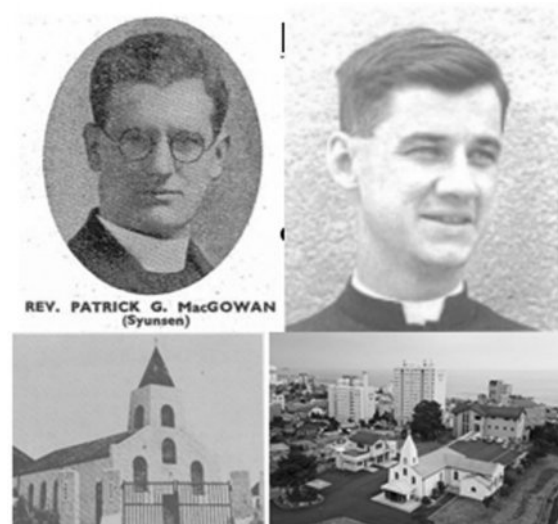
- 자본당(子本堂)과 손자본당(孫子本堂)으로 번성하다.

1921년 양양에 본당을 설립하기로 한 서울 교구는 영동지역에 본당을 하나 더 둘 계획을 갖고 양양 본당 초대 주임신부를 발령낼 때 보좌신부로 이철연 프란치스코를 파견한다. 1921년 12월 양양 본당 최문식 신부는 이 신부를 금광리(현 강릉시 구정면) 공소로 파견하여 본당 역할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철연 신부는 향후 발전 가능성을 감안하여 최 신부와 협의하여 주문진에 새 성당을 짓고 1923년 주임신부로 발령받는다. 이로써 양양과 강릉 지역은 두 개의 본당이 양양군 현남면 이남과 이북으로 나누어 사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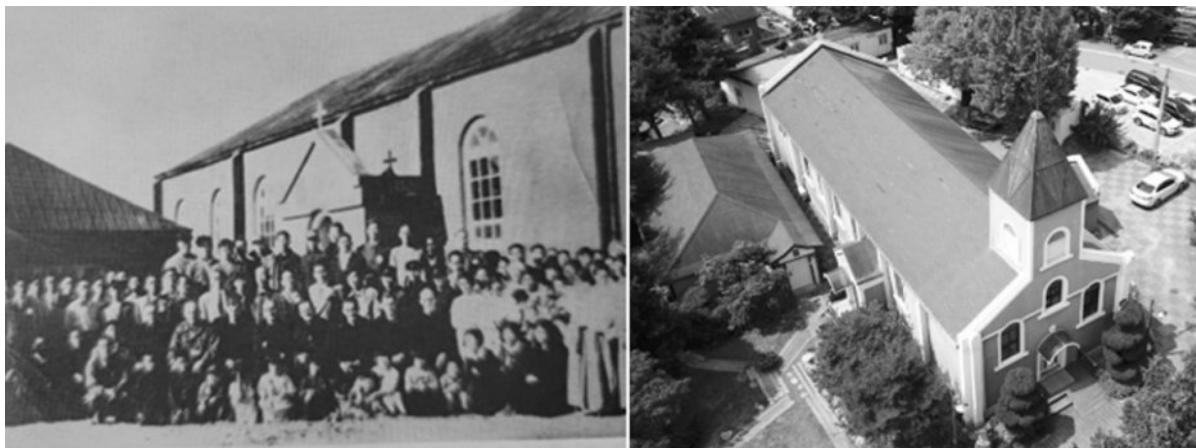
양양성당 제3대 주임신부였던 이광재 신부는 1940년 현재 위치에 성당 건물을 신축하고 양양지역뿐 아니라 양구와 화천, 평강과 원산 등에 있는 공소를 순회하며 사목하다가 한국 전쟁 중에 순교하였는데 그즈음 이 지역의 종교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다.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1952년 성골롬바노 외방선교회의 맥고완 신부가 영북지역을 관리할 목적으로 양양군 속초읍으로 파견되어 속초 본당(현 동명동성당)을 세운다. 금광리 본당(주문진성당의 전신)이 양양에서 분할된 이후 30년만에 속초 본당은 두 번째로 양양 본당의 자본당(子本堂)이 되어 속초 이북 고성 지역의 사목을 맡았다. 전쟁 중에 양양성당은 완전히 타버려 찻터미가 되었는데 동명동성당을 완공한 후



(위) 최문식(배드로) 주임신부와 이철연(프란치스코) 보좌신부
(아래) 금광리공소와 1955년에 건립한 주문진성당



(위) 맥고완(원 파트리치오)신부와 설리번(서 토마)신부
(아래) 1953년에 건립한 동명동 성당과 현 동명동성당



1954. 11월 양양성당 축성기념사진과 현 양양성당

맥고완 신부는 1954년 11월 양양성당을 신축하였고, 속초 본당에서 보좌신부로 있던 설리번 신부가 양양성당의 주임신부로 부임함으로써 양양성당은 다시 사목자와 성전을 갖춘 본당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성당을 재건한 당시 양양성당의 신자는 170명이었는데 1942년에 집계된 1,400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일제 말기에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간 신자와 해방 후 공산치하를 벗어나 월남한 신자 및 육이오 전쟁 중 사망하거나 피난한 교우들도 적지 않은데 무엇보다 속초 본당이 설립되면서 속초읍에 사는 신자뿐만 아니라 도문리와 물치 등 인근 공소 신자들이 속초 본당으로 편입된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제4대 주임신부로 설리번 신부가 부임하자 신자들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170명에 불과하던 신자가 1958년에는 941명, 1962년에는 1,273명이 되었다. 설리번 신부는 1959년에 현북공소 강당을, 1960년에 물치공소 강당을 신축하였다.

간성은 과거 양양성당에서 관리하던 공소 지역이었는데 그 후 속초성당에서 사목하다가 1958년에 이르러 간성성당이 설립된다. 속초 본당이 양양성당의 자본당이니 간성성당은 손자 본당이라 할 수 있겠다. 그 후 속초에 인구가 늘면서 속초에는 교동성당, 청호동성당과 설악동성당이 설립된다. 소속되었던 물치공소는 1984년 설악동성당에 편입되었다가 2018년 1월 본당으로 승격하였고 양양성당 산하에는 현재 현북공소만 있다.



현북공소 낙성식 기념

1959년에 신축한 현북공소 낙성식 기념 사진과 1960년에 신축한 물치공소의 옛 모습

3·1만세운동 이후 계속된

양양농민조합운동을 통한 항일운동

1931년부터 시작된 극심한 흉년으로 가난한 소작인과 화전민 및 유랑민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자 1932년 양양농민조합은 실상을 조사하여 언론에 발표하고 일제에게 기아 대책을 요구하였다. 같은 해 1월 강현면 장산리의 농민 야학생 모씨가 강현면사무소에 격문을 붙인 것을 계기로 일제는 농민 조합운동을 탄압하게 된다. 일제에 항거할 목적으로 전단도 준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찌르자 강도 일본제국을, 반대하자 조선총독 폭압정치를, 우리는 무주공산의 까마귀 밥이 되더라도 강도 왜적 섬멸에 총궐기하자”



농잠학교(農蠶學校) 반대로 조합원검거 (1932.1.1일자 동아일보)

이에 자극을 받은 일제는 1932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양양경찰서뿐만 아니라 인근서의 경찰 70여 명과 강릉지청 검사까지 가세하여 양양 전 지역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고 조합원과 관련자 367명을 체포 구금하였다. 이어서 어민조합, 노동조합, 청년운동단체 조직원까지 검거하였는데 유치장이 부족해 숙직실과 실내체육관에도 사람들을 수용한 이 사건을 당시 언론도 일제의 계획된 탄압이라고 지탄하면서 양양농민운동은 단천농민조합사건 다음으로 큰 농민조합 사건이라 평가하였다.

양양농민조합운동의 역사는 귀향한 사회주의자 유학생이 양양신청년회원을 규합하여 1923년 조

직한 물치노동동맹이 전국적인 소작 운동에 참여하면서 시작된다. 1925년에는 조산농민조합이 결성되었다. 농민조합운동은 야학 활동을 통해 확산되는데, 당시 양양에는 14개 리에 야학이 설치되어 있었다. 1927년 12월 물치와 조산, 용천, 정순(丁巽), 소야(所野 : 조양동에 소속된 마을 이름), 서림 등 6개 지역의 조합이 통합되어 양양농민조합이 출범한다. 이듬해 노리(蘆里 : 속초시 노학동에 소속된 마을 이름), 정암, 월리, 강선, 임천, 포월 6개 지부가 설립하면서 낙산사에서 양양농민조합 제2회 정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12개 지부 회원 320여 명, 방청객 1,0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를 하였다.

사건 초기에는 ‘양양농민조합사건’이라 하였으나 공판 과정에서 ‘양양적농사건(襄陽赤農事件)’이라 하여 합법적인 농민조합운동을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조직사건으로 몰아붙였다. 재판부는 1934년 6월 8일 재판에서 모든 피고의 운동이 합법적이고 범죄를 구성할만한 증거가 없어 고심한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라고까지 하였지만 “피고인들의 범행인 결사(結社: 단체를 만듦) 혐의, 선전(宣傳) 선동(煽動: 남을 부추김) 등 여러 가지 혐의가 빈약(貧弱)하기는 하지만 증거가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무죄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으로 1년 8개월 동안의 취조 끝에 주동자 36명이 공판에 회부 되어 2년에서 4년까지 실형을 살았다.

당시 양양농민조합을 이끈 지도급 인사 중 다수가 시대적인 조류인 사회주의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三個月餘에 巨款 불熄 前後三百餘名檢舉 어민조합에 外지점 檢舉 尙今六十餘名取調

夜學生 撤文이 端緒 十四個看板撤去 면사무소 게시판에 閉鎖 各社會團體를 閉鎖

梁山農組事件
公判延期
九月廿七日

조합원과 관계자 300여명 검거
(1932.9.19일자 동아일보기사)

釜山

釜山新報社...
釜山新報社...
釜山新報社...

農事改良等

多條項決議...
農事改良...
農事改良...

농사개량조합결의 양양농민조합정기회 (1928.5.1일자 동아일보기사)

양양의 개신교와 독립운동의 역사

양양은 일찍이 종교적 심성이 매우 발달한 지역으로 유(儒), 불(佛), 선(仙), 토착 신앙 그리고 기독교까지 펴 다양한 신앙의 형태가 타지역에 비해 일찍 뿌리 내린 곳이다.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1885년을 기점으로 언더우드·아펜젤러 목사를 통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 학교와 병원을 설립, 운영하겠다는 조건으로 선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로부터 6년 뒤 1901년에 캐나다 출신 로버트 하디 선교사에 의해 양양에도 강원도 내 최초의 교회인 양양감리교회가 설립되었고 1908년 조산감리교회, 1910년 물치감리교회와 광정감리교회가 차례로 설립되었다.



1901년 하디 선교사가 설립한 양양감리교회

양양교회는 5대 김영학 목사와 8대 송정근 목사, 조화벽 지사, 김주호·김필선 청년 교인 등 걸출한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곳이다.

김영학 목사는 3.1운동 당시 양양교회에서 목사로 시무하면서 양양 장날 군중들에게 연설하다 일경에 잡혀가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하였으며 ‘대한독립애국단’에서 활약하다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22년 시

베리아 신한촌 선교사를 자원하여 애국 사상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을 하다 10년의 중노동형을 받고 그곳에서 순교하였다.

8대 송정근 목사도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였으며 조화벽 지사는 양양교회 전도사 조영순의 딸로 개성 호수돈 여학교 재학 중 개성 만세 운동 결사 대원으로 참여하였는데 휴교령이 내려지자 독립선언서를 버선목에 몰래 감추고 귀향하였다. 이 독립선언서가 양양교회 청년 교인 김필선, 김주호, 김계호 등에게 전달되었고 지역 유림, 양양보통학교 동문, 농민들을 규합하여 양양 3.1만세 운동을 전개하는 발단이 되었다. 그녀는 유우석(유관순의 오빠)과 결혼한 후 1932년 귀향하여 가난해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명학원을 개원하고 13년 동안 6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후학 양성에 매진하였다.

김주호는 양양교회 청년 교인으로 김필선, 김재구, 김계호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김필선이 근무하던 면사무소의 등사판을 이용하여 독립선언서를 복사하고 태극기를 만들었다. 양양읍내와 인근 주민들을 동원하여 만세를 불렀고 저녁때는 돌과 몽둥이를 들고 군청과 경찰서를 부수는 등 무력항쟁도 전개하였다. 김주호와 김계호는 각각 징역 8월형, 김재구와 김필선은 각각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양양교회 내의 엠 청년회는 순수한 신앙단체로 출발하였으나 시사 토론회를 열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

과 민족주의 성향의 교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애국 운동 단체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남궁억 선생, 김영학 목사의 애국 독립사상의 영향으로 민족주의 사상을 키워나갔다.

물치교회 설립에 앞장섰던 전달원과 김두영은 교인 60여 명을 데리고 물치 장터로 와 1919년 4월 5, 6일 이틀 동안 도천면과 강현면의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광정교회의 오세옥·이응렬 권사는 양양·물치교회와 연락하며 만세운동의 정보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4월 9일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기사문리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양양의 교회들이 유교와 불교의 영향력 아래 오랫동안 살아온 양양에서의 선교 활동이 쉽지 않았으나 3.1만세운동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기독교는 양양문화의 한 부분으로 수용되었고 만세운동 이후 교회는 양양의 아동들에게 신문명을 교육하고 다양한 섬김의 활동들을 통해 군민들 속에서 성장해 나갔다.



양양정명학원 제1회 졸업기념 사진

38도보순례와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 (Ⅲ)

해마다 10월 9일이면 양양성당에서 남대천교를 거쳐 송이밸리 너머까지 이어지는 인파의 장사진을 보게 된다. 가톨릭 춘천교구에서 매년 전국대회 규모로 ‘38도보순례’를 하는데 이 행사는 양양성당의 제3대 주임이던 이광재(디모테오) 신부와 관련이 깊다.



남대천교와 송이밸리 입구의 38도보순례 행렬 모습

이광재 신부는 1909년 강원도 이천군에서 태어났다. 열세 살 때까지 서당에서 공부한 후 1923년 용산 예수성심신학교에 입학하여 1936년 사제 서품되고 원주 풍수원성당의 보좌를 거쳐 1939년 양양성당의 제3대 주임신부로 부임한다. 이 신부는 당시 서문리에 있던 성당을 현 위치인 성내리로 신축 이전하는 격무 중에도 관할지역이 아닌 양구와 화천에 공소를 신설하는 등 선교를 위하여 정성을 다 하였다.

8·15해방 후 삼팔선 이북이 공산화되면서 천주교회는 공산체제의 가장 큰 적으로 간주 되어 박해 받는다. 1946년 이후부터 연길, 함흥, 원산 등에서 수많은 성직자, 수도자, 신자들이 종교탄압을 피해 월남하려고 38선에 가장 가까운 양양성당으로 모여든다. 이들을 돕다 발각되면 즉결 처분으로 총살당하는 상황에서도 이광재 신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사히 월



『五명의새신부활동할지대』
전월二十八일에 경성교구에서 새로 승
종하신 五명의새신부는 주교각하로부터
파견을받아 종도적사명에 활동할꺼시하야
각자의포부를발휘할지대는 다음과같다고
방그라시오 감신부 약현 보좌로
디모테오 리신부 풍수원 보좌로
방시모 김신부 주원 보좌로
방지몬 박신부 장원 보좌로
방오거 리신부 사리원 보좌로
방지몬 박신부 사리원 보좌로
방오거 리신부 사리원 보좌로

로오바 탕 오시라그랑장 거지방 박 아드레앙 조세프 라리보(원월근)주교 몬시경 오대모디터

이 신부가 예수성심학교 입학동기생들과 함께한 사제서품 기념사진과 풍수원 보좌신부 부임기사

남시킨다. 이는 훌륭한 성직자와 수도자가 한 분이라도 더 월남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이 신부의 간절한 바람과 이 신부를 믿고 숭고한 뜻을 받들었던 교우들의 참된 신앙과 끈끈한 형제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월남에 협조한 교우가 여럿이 있으나, 가장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를 안내한 이는 청곡리 김경태(젤마나)와 범부공소의 김봉만(보니 파시오)였다.

주로 사용한 월남 루트는 두 개였는데 하나는 양양성당→월리뒷산·고노골·삼밭이재·삼존리공동묘지·풋순밭·한천산·명지리 안골이며, 다른 하나는 양양성당→서문리·임천리덕길·범부서낭당·범부옹기점마을·용천섬버덩·한구령·삼밭이재·부소치재·곰에굴·원일전·어성전방향이다.

이 신부는 월남을 돕는 일 말고도 공산정권에 잡혀가 신부가 없는 성당을 찾아다니며 성사를 주고 미사를 집전하는 일을 계속했다. 1949년 4월 평강성당의 백응만 신부가 북한당국에 체포되자 백 신부를 대신해 평강과 원산 등지를 다니며 은밀하게 신자들을 돌보았다. 1950년 4월, 부활대축일을 지내기 위해 잠시 양양본당으로 돌아왔던 이 신부는 1950년 6월 이천성당의 김봉식(마오로) 신부가 공산군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곳의 신자들을 찾아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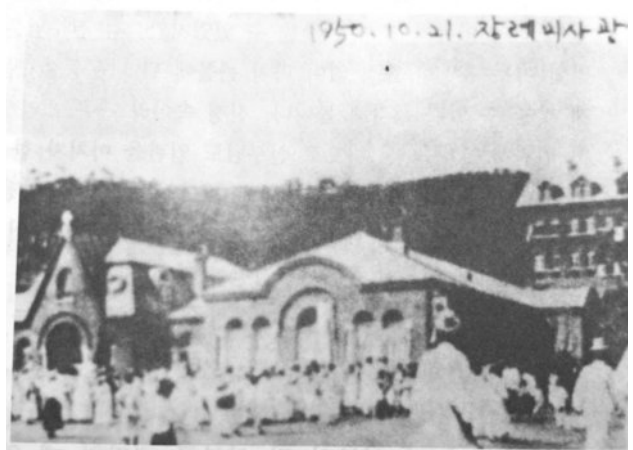
이 때 신자들은 이 신부의 북쪽지역 순방을 극구 말렸지만, 이 신부가 막무가내로 호통을 치는 바람에 더 이상 말리지 못하였다. 이 신부는 이것이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였는지 평소 길을 떠나면 뒤돌아보는 일이 없었는데, 이날은 계속 뒤돌아보았다고 한다.

북쪽으로 가 신자들을 돌보던 이 신부는 1950년 6·25가 발발하기 바로 전날 체포되어 원산 와우동 형무소에 수감 되었다가 그해 10월 형무소 뒷산 참호 안에서 공산당이 난사한 총에 맞아 순교하였다.

이와 같은 이광재 신부의 숭고한 신앙과 순교정신을 기려 가톨릭춘천교구에서는 이광재 신부를 성인반열에 오르게 하는 시복시성을 교황청에 신청하였고, 2009년부터 해마다 ‘디모테오 길’이라 부르는 38° 선 길을 순례하며 그를 기억하는 것이다.



38선 도보순례길과 월남 탈출루트 그림.



이광재 신부와 김봉식 신부의 장례미사를 거행한 원산 혜성학교 모습 (1950.10.21)

오산리 유적으로 보는 신석기 시대의 이해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년 전의 중기 구석기부터 1만년 전까지이고, 신석기 시대는 1만년 전부터 청동기 시대인 4천년 전까지라고 한다.

구석기 시대는 빙하기로 추웠으며 신석기 시대는 간빙기로 기후가 지금처럼 따뜻해지기 시작하였다. 기후가 온난해지자 사람들은 밭농사 위주의 농경을 시작하고 가축을 키우면서 이동을 멈추고 움집을 짓고 정착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열매의 채집과 사냥, 고기잡이는 계속하였다.

신석기 시대까지는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로 생활하였으나 청동기 시대부터는 농업 생산력 증가로 사유재산이 생겼고 빈부격차와 계급이 발생하였다.

움집은 주로 바닷가나 강가에 위치하는데 주변보다 낮게 움(구덩이)을 판 후 바닥을 다져서 가운데에 화덕을 설치하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엮었다.

구석기 시대의 펜석기에 비하면 크기가 작고 모양도 매끄러운 간석기를 사용하였는데 지금의 믹



신석기인 어로행위 모습



오산리 신석기인 생활 모습

서기 역할을 하는 갈돌과 갈판이 있으며, 돌낫과 화살촉 등이 있다.

토기로는 바닥이 뽀족한 빗살무늬토기, 제주도 고산리¹⁾유적의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를 이용하여 식량을 조리하고 저장하였다. 빗살무늬토기는 움집 바닥에 홈을 파서 세우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양양의 오산리 유적²⁾에서는 동해안 특유의 『오산리식 토기』³⁾가 발견되었다. 용기형(甕形) 토기가 주류를 이루는데 아가리 안쪽은 비스듬하게 처리하여 단을 이루고 있으며 바닥은 모두 평평하다. 손잡이가 달리거나 목이 있는 토기들도 있는데 문양은 항아리 아가리 쪽에 한정하며, 같은 문양을 눌러 찍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주요 문양의 형태는 평행으로 된 점무늬(點列文)나 짧은 빗금무늬(押印短斜線文) 및 손톱무늬(爪紋)가 많다.



오산리식토기(덧무늬토기)와 토제인명상

일반적으로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 바닥이 평평한데 『오산리식 토기』도 바닥이 평평하면서 빗살무늬와는 다른 덧무늬 선진적 기술로 제작되었다.

이 시대의 수공업 도구로는 실을 뽑는 가락바퀴가 있는데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과 그물을 만들었다.

오산리 유적지(사적 제394호)에서는 돌도끼, 결합식 낚싯바늘, 돌화살촉 등의 간석기와 그물추가 나왔으며 샤머니즘적 대표 유물로는 ‘곰 모양의 토우’와 ‘토제 인면상(土製人面像)’이 있다. 토제 인면상은 가로 4.3cm, 세로 5.1cm가량의 작고 둥근 점토판을 손가락으로 눌러 사람의 얼굴 모양을 만들었는데 생산과 풍요를 기원하고 재해가 빗겨 가길 축원하는 씨족 수호 신상(神像)으로 한반도와 함께 주로 동북아시아 일대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된다.

1) 제주 고산리 유적은 기원전 6,300년 이전 것으로 확인.

2) 1981~1987년에 발굴되어 우리나라 내륙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며 2007년 기원전 6,000년 이전의 것으로 확인.

3) 일반적으로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야 바닥이 평평한 민무늬 토기가 만들어지는데 양양은 바닥이 평평한 신석기 토기가 발굴되어 따로 『오산리식 토기』로 명명하고 있다.

제9회 전국한시백일장 (願雪嶽五色索道建設) 입선시

入選詩

제9회 전국한시백일장(願雪嶽五色索道建設) 입선시

壯元

讚襄陽春景

勝地襄陽祥氣流
嬋娟芳草暗香浮

柳楊綠繡南川渚
躑躅紅粧雪嶽頭

自適心同玄圃樂
逍遙態若武夷遊

春光景物誰無讚
狹窄奚囊總不收

松坡 元 鍾 淑

대구시 동구 화랑로 99길 14-1, A동 402호

승지양양에 상서로운 기운이 흐르네
선연방초로 어디서인지 향기가 뜨도다

버들은 남대천물가에 푸르게 수를 놓았고
철죽꽃은 설악산 머리에 붉게 꾸몄구나

자적하는 마음은 현포에서 즐기는 것 같고
소요하는 태도는 무이에서 노는 것 같도다

춘광의 이경치 누가 칭찬이 없겠는가
시주머니가 협착하여 다 거두지 못하겠네

次上

讚襄陽春景

襄陽勝地暖風流

雪嶽樹枝春色浮

大堰櫻花粧路上

青峯躑躅染山頭

耽看秘境騷人詠

欣賞名區旅客遊

恰似桃源誰不讚

吾儕探景興難收

芸史 金 仁 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22,
한일타운아파트 138동 1601호양양의 승지에 난풍이 흐르고
설악산 가지마다 춘색이 넘치네삼선로 대연의 벚꽃은 십리길을 장식하고
대청봉 철쭉꽃은 산두를 물들이네탐간하는 소인은 비경을 시로 읊고
혼상하는 여객은 명구를 유람하네마치 무릉도원 같으니 누가 찬탄치 않으리오
탐경하는 우리는 흥을 거두기 어렵도다.

次上

讚襄陽春景

勝地襄陽淑氣流

九龍峻嶺白雲浮

櫻花燦爛南川畔

躑躅鮮妍雪嶽頭

臨海吟詩騷客樂

登山探景賞人遊

春光到處佳形滿

狹窄奚囊筆不收

淸我 安 再 煥

대구시 수성구 청솔로 124-11, 하우빌 청아 401호

명승지인 양양에 화창한 봄기운이 흐르고
구룡 준령엔 흰 구름이 떠 있구나.벚꽃이 남천 뜰에 화려하게 아름다우며
철쭉꽃은 설악산 정상에서 아름답구나바다를 향해 시를 읊으니 소객들이 즐겁고
산을 오르며 경치찾는 상인들이 노니는구나봄 경치가 도처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하니
시 주머니가 좁아서 필을 거둘 수가 없구나

次下

讚襄陽春景

淑景襄陽淑氣流
晴天雲破彩虹浮
風光秀麗梨花上
山色鮮妍躑躅頭
雪嶽騷人吟勝玩
南川賞客笑遨遊
此鄉到處皆方暢
行樂三春興豈收

峴泉 金 惠 柱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15

양양의 봄 경치에 숙기가 흐르니,
구름 걷힌 맑게 갠 하늘에 고운 무지개 떴네.
풍광이 수려하니 배꽃이 최고요,
산색이 선연하니 철쭉꽃 으뜸일세.
소인들은 설악산을 승완하며 시를 읊고,
상객들은 남대천에 오유하며 웃음꽃 피네.
이 고을의 도처마다 모두 화창하니,
삼춘행락의 흥취를 어찌 거두리오.

次下

讚襄陽春景

別界襄陽日暖流
如屏六鳳對翎浮
躑花滿發青峯頂
芳草新粧漢水頭
海上凌波誰勝戲
堤邊詠賦客怡遊
迎春處處眞佳境
景色無窮筆不收

幽硯 金 錫 顯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35, 두산위브 106동
401호

별세계 양양에 햇살이 따듯하니.
병풍처럼 여섯봉황 날개 맞대고 떠 있네
대청봉 정상에 철쭉이 만발하였고
남대천 머리엔 방초가 새롭게 장식하도다.
바다위에 파도넘으며 누가 좋게 놀고 있나
제방변 시를 읊으며 객들이 즐겁게 노네
봄을 맞는 곳곳이 참으로 경치 아름다우니
무궁한 경색을 붓으로 거두지 못하네.

次下

讚襄陽春景

勝地襄陽瑞氣流
茫茫東海白雲浮
松林茂盛森羅裏
躑躅鮮妍錦繡頭
祕境南川觀客樂
峻峯雪嶽賞人遊
滿眸景色皆如畫
盡日逍遙興不收

梧菴 朴 政 雄

대구시 수성구 상록로 41, 103동 1903호

승지 양양은 상서로운 기운이 흐르고
망망 동해는 흰구름이 떠있다.
송림이 무성하여 삼라 가운데
철쭉꽃이 선연하여 비단에 수노았네
남대천의 비경에 관광객들이 즐기고
설악산 준봉에는 상인들이 노네.
눈에 가득한 경색은 모두 그림과 같은데
진일소요하니 흥취를 거둘수 없네.

參榜

讚襄陽春景

海朝雪夕赤霞流
駘蕩襄陽淑氣浮
躑躅岡岡群落擘
桃花處處滿開頭
峴山樹影歡禽哄
南大川涯快客遊
勝景斯鄉皆盡醉
春光四美作詩收

嘏朗 金 俊 鎬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5길 59-12

아침 바다 기세는 설악의 붉은 노을 되고
양양의 화창한 봄날 맑은 기운 떠도네
산비탈 곳곳에 군락 이룬 철쭉꽃밭
발길 닿는 마을마다 복사꽃 동산일세
현산공원 숲속은 새들 환호 요란하고
남대천 둔치의 나그네들 즐겁게 노니네
내 고향 빼어난 풍경에 취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 봄의 아름다움 시로 엮어 거두리

參榜

讚襄陽春景

讚美襄陽淑氣流
義湘勝景碧波浮
黃魚伴遇南川上
白鷺朋迎竹島頭
雅會詞人河趙興
宴筵樂士峴山遊
桃李滿發蝶蜂無
雪嶽春光殘雪收

看山 金 亨 來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27-5

찬미하는 양양에 숙기가 흐르고
승경의 의상대는 벽파에 떠있네.
황어는 짝을 만나러 남대천에 소상하고
백로는 벗을 맞아 죽도에서 진두하네.
아회에 사인들은 하조대에서 흥을내고
연연에 악사들은 현산에서 노니니
도이화가 만발하니 나비벌이 춤을 추고
설악산에 봄별은 잔설을 걷어들이네.

參榜

讚襄陽春景

襄陽勝地好風流
雪嶽靈峯碧落浮
黃布漂搖南水上
紅花爛漫洛山頭
前朝名士武夷樂
今夕騷人玄圃遊
古刹樓亭如活畫
滿眸別景筆難收

芝山 宋 哲 炫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26길 8, 203동 1406호

양양승지는 호풍류니
설악령봉은 벽락에 솟아있네
남대천 황포돛대 바람에 나부끼고
낙산사 산마루에 홍화가 란만하네
전조의 명사는 무이구곡처럼 즐겼고
오늘의 시인은 현포의 놀이라네
고찰과 루정이 활화같이 아름다워
눈가득 별난경치 붓으로 다못하겠네.

參榜

讚襄陽春景

勝地襄陽祕境流
春光到處瑞雲浮
南川芳草飾溪畔
雪嶽妖花粧畝頭
仙界騷朋吟賦樂
桃原賞客舉杯遊
坊坊絕景連無極
讚美人人興不收

閨隱 申 貴 順

울산 남구 팔등로 85, 푸르지오@ 112동 1101호

승지양양에 비경이 흐르는데
봄빛 이르는곳에 상서로운 구름이 떴다.
남대천에 방초는 계반을 꾸미고
설악산에 아리따운꽃은 봄우리가를 장식했다.
선계에 소봉들 부를 읊으며 즐기고
도원에 상객은 잔을 들며 노래.
방방에 절경이 끝없이 이어지는데
찬미하는 사람들 흥을 거둘수 없구나!

參榜

讚襄陽春景

春景襄陽淑氣流
望如玄圃瑞光浮
嬋娟芳草大川畔
燦爛杜鵑青嶺頭
活畫柳林鶯舌囀
濃香花朵蝶翅遊
千紅萬紫如斯美
窄我奚囊未盡收

寒潭 李 永 燾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남로 33,
대실역리슈빌3단지 308동 1603호

양양의 춘경에 숙기가 흐르고
바라보니 현포처럼 서광이 뜨네
남대천둔치에 방초가 선연하고
대청봉 산정에 진달래가 찬란하도다
활화같은 버들숲에 피꼬리 지저귀고
질은 향기 꽃가지에 나비떼지어 노래
울긋불긋 이처럼 아름다운데
내 시주머니가 좁아 다 거두지 못하네.

參榜

讚襄陽春景

襄陽春景好風流
華麗山川瑞氣浮
兩翼鳳凰粧嶺上
萬葩躑躅笑峰頭
金翁洞口仙尋賞
李使松林鶴與遊
髣髴武陵成畫幅
詩人感興筆難收

穀山 李 泰 浩

경남 밀양시 석정로 2길 10

양양의 봄경치 풍류도 좋은데
화려한 산천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뜨있구나
봉황이 양날개로 고개위를 장식하였고
철쭉은 무성하여 봉우리에서 웃고있네
김학자는 동구에서 신선을 찾아 구경하고
이부사는 송림에서 학과 함께 놀았네
무릉도원을 방불케 하는 화폭을 이루었으니
시인은 감흥하여 붓으로 거두기가 어렵구나.

參榜

讚襄陽春景

春景襄陽艷色流
山河祕境畫中浮
梅湖靜渚鷺飛處
雪嶽岑峯雁去頭
騷客作詩吟味樂
賞人傾酒飲茶遊
自然韻致佳無限
絕勝風光興不收

東皐齋 李 翰 政

경북 예천군 호명읍 백송길 28

양양의 춘경이 고운빛이 흐르고
산과 물의 비경은 그림속에 떠있는 듯하네
매호의 고요한 물가에는 백로 날으는 곳ियो
설악산의 험준한 봉우리는 기러기가 가는 머리네
소객들은 시를 지어 음미하며 즐기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술과 차를 먹고 즐기네
자연의 운치가 한없이 아름다운데
절승풍광에 흥을 거두지 못하네.

參榜

讚襄陽春景

勝地襄陽淑氣流

靈峯雪嶽白雲浮

滿開躑躅粧山脊

凋落梅花翫路頭

墨客逍遙傾酒樂

騷人玩賞詠詩遊

桃園髣髴言難現

盡日探春興叵收

景岩 鄭 相 旭

경남 하동군 하동읍 산복2길 10, 101동 306호

경치 좋은 양양 아늑한 봄날 포근한 기운 흐르고
설악산 영봉에 흰구름 떠있네

만개한 철쭉은 산등성 마루를 단장하고
시들어 떨어진 매화는 길가에 흩날려

묵객은 소요하며 술잔 기우리며 즐기고
소인은 완상하며 시를 읊고 노니네

무릉도원 방불한 경치 말로서 나타내기 어렵고
온 종일 봄경치 구경하여도 흥거두기 어렵구려.

參榜

讚襄陽春景

襄陽橫斷大川流

春日祥雲五嶺浮

漁艇往來東海上

櫻花開落峴山頭

鳥鳴竹島詩仙到

風爽河臺墨客遊

洛寺青峰佳景富

藝鄉物色筆難收

梅谷 鄭 允 連

경남 밀양시 북성로 52

양양 횡단하여 남대천이 흐르고
춘일 상운 오색령에 떠 있네

고깃배 가고 오는 동해상이요
앵화 피고 지는 현산두라

새우는 죽도정에 시선 이르고
바람 상쾌한 하조대에 묵객이 노네

낙산사 대청봉 가경 넉넉하니
예향 물색 필로 다 거두기 어렵구나.

參榜

讚襄陽春景

襄陽春景尙風流
蒼海茫茫畫舫浮
滿發櫻花南水岸
群開躑躅雪山頭
酒仙興趣乾杯樂
詩伯神明覓句遊
秀麗佳光成別界
義臺日出感難收

草堂 黃 元 相

경북 영주시 목민로 36번길 24-1

양양 춘경에 풍유를 승상하는데
창해망망 화려한 배를 띄웠네
벚꽃이 만발한 것은 남천 언덕이요
철쭉이 만개한 것은 설악산일세
주선이 흥취하여 건배를 즐기고
시백이 신명나서 먹구유다.
수려한 가광은 별계를 이루었는데
의대의 일출은 감회를 거두기 어렵네

佳作

讚襄陽春景

名勝襄陽碧玉流
韶光陶醉駕雲浮
滿開躑躅青峰麓
爭發櫻花大水頭
探谷騷人吟詠樂
登樓賞客覽風遊
周看十景無非畫
日暮忘歸興不收

玄山 權 五 信

경북 안동시 평화3길 8-6

명승 양양은 벽옥같은 물 흐르니
봄경치에 흠뻑 취하니 구름 타고 떠있는 듯
철쭉꽃 만개한 곳은 대청봉 기슭이요
벚꽃이 다투어 핀 곳은 남대천 머리라네.
계곡을 찾은 시인은 시 읊으며 즐기고
누에 오른 상객은 풍광을 보며 노니네.
양양십경 두루 보니 그림 아닌 곳 없으니
해가 저도 돌아감을 잊고 흥 거둘 수 없어라.

佳作

讚襄陽春景

春節襄陽艷色流
花開十景眼前浮

南川奇石武陵口
雪嶽繡屏瀛海頭

金老名章成軸樂
李翁別曲詠詩遊

風光萬兩歎聲裡
感慨騷人筆不收

伯峰 金 徑 勳

경상북도 경주시 도초길 104-107

춘절양양 고은색 흐름이여
꽃이 핀 십경 눈앞에 뜨있네.

남대천 기이한 돌들 무릉의 입구요
설악산의 수놓은 병풍 영해의 머리로다!

金昌翁선생 名章 실축을 이뤄 즐겁고
李府吏님 別曲으로 시를 읊고 노셨도다!

풍광은 만량이로다 탄성속에
감개한 소인 필을 거둘수 없으라!

佳作

讚襄陽春景

春節襄陽淑氣流
峻峰嶺上白雲浮

櫻華物色三韓冠
躑躅爛風光八域頭

地秘南川場錦繡
天慳雪岳處仙遊

揚名十景如前麗
窄我奚囊未盡收

景湖 金 國 重

대구시 동구 금강로 21길 10, 103동 1302호

봄철 양양에 숙기가 흐르고
높은봉 고개위에 흰 구름 떠있네.

벚꽃 화려한 물색은 삼한에서 으뜸이요
철쭉꽃 찬란한 풍광은 팔도에서 제일일세

땅이 숨긴 남대천은 금수의 장이요
하늘이 아낀 설악산은 신선이 노는 곳이로다.

이름 날린 십경은 여전하게 수려하나
나의 좁은 해낭으론 다 거둘수 없구나.

佳作

讚襄陽春景

東瀛名嶽暖風流
春景襄陽讚美浮
壯觀櫻街三線塢
最高躑麓大青頭
峴山到處騷人玩
洛寺諸方賞客遊
天惠自然豐物產
同聲異口畫難收

松崑 金 永 錫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30길 17-21, 302호

동영 명악에 따듯한 바람이 흐르니
양양의 춘경에 대한 찬미가 뜨는구나.
삼선로 제방둑 벚꽃 거리가 장관이고
대청봉 정상의 철쭉꽃 기슭이 최고라네.
현산공원 도처에서 소인들이 즐기며 놀고
낙산사 제방에서 상객들이 놀러 돌아다니네.
천혜의 자연에 물산까지 풍부하니
이구동성으로 그림그려 거두기가 어렵다네요.

佳作

讚襄陽春景

襄陽勝地夢中流
雪嶽南川鴻濛浮
雲捲青峰風致秀
錦粧五色景光頭
坊坊別界騷人樂
曲曲仙寰賞客遊
萬兩自然斯處得
燕翁讚嘆肯同收

無非不 金 忠 道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 60, 풍림아이원 106동
1901호

양양의 승지에 꿈속에서 떠도니
설악과 남대천이 홍몽속에 떠있구나.
구름걸친 대청봉은 풍치가 뛰어나고
비단 단장의 오색령은 경광이 으뜸일세.
방방의 별세계에서 소인들은 즐기고
곡곡의 선환에서 상객들이 노니네
만남의 자연 풍광을 여기에서 얻었다는
연옹의 찬탄에 금정을 함께하오

佳作

讚襄陽春景

襄陽春到好風流
望似武陵佳氣浮

燦爛連翹粧洞口
嬋娟躑躅繡山頭

花開玩賞千賓樂
日出探看萬客遊

秀麗景光誰不讚
世人感歎興難收

心巖 金 太 洙

대구시 동구 화랑로 80길 8, 109동 201호

양양에 봄이 이르니 풍류가 좋고
바라보니 무릉과 같은 가기가 뜨네

찬란한 연교는 동구를 장식하였고
선연한 적촉은 산두를 수 놓았네

화개를 완상하는 천빈이 즐겁고
일출을 탐간하는 만객이 노니네

수려한 경광을 누가 기리지 않겠는가
세인이 감탄하며 흥을 거두지 못하네

佳作

讚襄陽春景

駘蕩春光到處流
襄陽風景畫如浮

鵑花灼灼粧山麓
柳葉青青繞池頭

霧捲森林飛鳥樂
日和洞壑賞人遊

千紅萬紫誰非讚
騷客爭吟錦軸收

仁井 南 周 燮

경북 안동시 감나무5길 15, 현대A 102-1501

밝고 따뜻한 봄별이 도처에 흐르고 있을 때
양양의 풍광이 그림같이 부상하네

전화작작 산록을 장식하고
유엽은 청청 못 머리를 들렀네

무권삼림에는 나는 새 즐거워하고
일화동학에는 상인들 노니네

천홍만자한 경치 누가 칭찬하지 않으리오
소객들 쟁음하며 금축을 거두네

佳作

讚襄陽春景

勝地襄陽淑氣流
雪山六嶺鳳凰浮
春開鮮躑大峯頂
日出瑞光東海頭
洛寺訪人吟偈頌
峴園賞客樂花遊
名區絕景如今許
窄我奚囊未盡收

霞蓮 朴 鳳 順

경남 밀양시 하송정3길 13-5, B동 101호(진덕 6차)

아름다운 양양에 맑은기운 흐르니
설악산 여섯 고개에 봉황이 떠 있네.
봄은 고운 진달래를 대청봉 마루에 피웠고
해는 상서로운 빛을 동해 머리에 내 놓았네.
낙산사를 찾은 사람은 부처의 찬양가를 읊조리고
현산공원을 감상하는 객은 꽃놀이를 즐기네.
이름난 곳의 절경을 지금 허락한 것 같은데
좁은 내 시주머니로는 다 거둘수가 없네.

佳作

讚襄陽春景

襄陽春景最高流
天惠名區活畫浮
白鳥雙雙回海上
綠波淡淡濯巖頭
櫻華道路千人賞
鵑爛岡巒萬客遊
探訪周看神秘境
讚揚不盡感難收

鄉山 朴 正 植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507-63

양양의 봄경치 최고류인데
천혜명구에 활화가 넘치네
백조는 쌍쌍이 바다위에 돌아오고
녹파는 담담이 바위 머리 씻네
벚꽃 도로에 화려하니 천인이 구경하고
진달래 강만에 난만하니 만객이 노니네
찾아와 신비경 두루보니
찬양해 마지않으니 감회 거두기 어렵네.

佳作

讚襄陽春景

雪嶽靈峰瑞氣流
襄陽春色繼天浮
千溪明月南川下
萬壑青山漢水頭
遠近賞人尋景到
京鄉騷客作詩遊
探看到處眞佳境
勝地風光畫未收

錦桂堂 朴 正 任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340, 102동 205호(산정동
어등산 한양수자인)

설악의 영봉에 상서기운 흐르나니
양양고을 봄빛은 하늘을 이어 떠 있네
일천 시내에 달은 남대천 아래 밝게 비치고
일만구령의 산들은 한강물 머리에 푸르도다
원근의 상춘객들 경치찾아 이르러 오고
경향각처의 소객들 시지으며 노닐 도다
찾아보며 이른곳 마다 참경치 좋은곳이니
명승지의 풍경 그림으로 다 거둘 수 없네.

佳作

讚襄陽春景

勝地襄陽春色流
櫻花滿發旅心浮
南涯港霧繞灣內
雪嶽山嵐蟠嶺頭
海上情人冲浪樂
場中墨客字林遊
關東景物皆多彩
連日逍遙杖不收

月翁 朴 鍾 慶

경북 영천시 금호읍 대곡길 53-38

승지 양양에 봄 기운이 흐르니
벚꽃이 만발하니 나그네의 마음이 들뜨네
남해항의 안개는 만안에 들렀고
설악산의 남기는 잿마루에 서렸구나
해상의 정인들은 서핑(파도타기) 즐기고
장중의 묵객들은 글자의 숲(옥편)에 노닐도다
관동의 경물이 모두다 다채로우니
연일 나들이에도 지팡이 거두지 못하네.

佳作

讚襄陽春景

勝地襄陽淑氣流
靈區五嶺彩雲浮
百花艷艷粧山麓
萬樹蕃蕃蓋草頭
雪嶽風光騷客樂
南川秘境賞人遊
義臺日出誇矜處
窄我奚囊不盡收

德泉 朴 昌 根

경북 구미시 봉곡로 23길 6-20, 201동 306동

승지 양양에 봄경치 화창한 기운이 흐르고
오색령 영구에 채색 구름이 떠다니네.
곱고고운 백화는 산기슭을 장식하고
우거져 번성한 만수는 풀 꼭지를 덮는구나.
설악산 풍광에 소객들은 즐거워하고
남대천 비경을 상인들은 유람하네.
낙산사 의상대 일출을 자랑하는 곳이고
나의 좁은 해낭으로는 다함을 거두기 어렵구나.

佳作

讚襄陽春景

屏如六嶺彩雲流
淑氣襄陽春景浮
夕照群魚跳水面
朝霞匹羣走山頭
川邊莎地擊球集
海岸沙場操板遊
滿發櫻花招賞客
自然寶庫感難收

東山 邊 炳 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척주로 9-49(남양동)

병풍 같은 여섯 산봉우리에 고운 구름이 흐르니
화창한 기운에 양양은 봄 경치가 넘치네
저녁 햇빛에 고기떼는 물 위로 뛰어오르고
동이 틀 무렵 산양은 짝을 찾아 산 위로 뛰어 가네
남대천 가 잔디밭에는 골프하러 모여들고
해안의 백사장에는 서핑하며 즐기네
벚꽃도 만발하여 상객을 부르니
자연의 보고로 감동을 거두기 어렵네

佳作

讚襄陽春景

襄陽春景樂風流
淑氣千峰萬壑浮
滿發櫻花南水岸
方酣躑躅大青頭
天慳石澗騷人詠
地作巖盤賞客遊
數十仙寰藏守處
我心陶醉感難收

聞均 孫 鳳 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안길 56, 106동 605호(용흥동 우방타운)

양양춘경에 풍류를 즐기니
숙기가 천봉 만학에 떠도네
남대천 언덕에는 벚꽃이 만발했고
대청봉 머리에는 철쭉이 바야흐로 한창이네
하늘이 아낀 석간에는 소인들이 시를 읊고
땅이 지은 암반에는 상객들이 노는구나
수십 선경을 간직하여 지킨 곳
내마음 도취되어 느낌 거두기 어렵도다

佳作

讚襄陽春景

春日襄陽淑氣流
閒哉東海白鷗浮
奇花灼灼宜巖際
芳草萋萋漢水頭
李士吟詩幽境樂
朴翁爲祿勝區遊
眼前活畫如屏展
興趣悠然不可收

魯庭 宋 仁 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설로 35-7(오라일동)

봄날 양양에 숙기가 흐르는데
한가롭구나 동해에 갈매기 떠다님이
기화가 의춘암가에 활짝피고
방초는 남대천 위에 무성하네
이해조는 시 읊으며 유경에서 즐겼고
박지원은 봉록으로 삼으며 승주에서 노닐었네.
눈앞에 활화가 병풍처럼 펼쳐지니
흥취가 유연하여 거둘수 없네.

佳作

讚襄陽春景

勝地襄陽瑞氣流
雪山漢水白雲浮
櫻花十里粧城址
躑躅三途帶嶺頭
洛寺清風騷客樂
青峰綠樹賞人遊
觀光寶庫誰無讚
盡日逍遙興不收

禮堂 辛 相 連

대구 수성구 진발길 298-30

승지양양에 상서로운 기운이 흐르고
설악산 한수에는 흰구름 떠있네
앵화는 십리길 성지를 장식하고
척촉꽃은 삼도령에 떠를 두루네
락산사 청풍은 소객이 즐거워하고
대청봉록수엔 구경하는 상인이 놀고 있네
설악관광 보고 누가 칭찬하지 안으리요
진일 소요하며 그 흥을 거둘수가 없네

佳作

讚襄陽春景

勝地襄陽春景流
櫻花飛上碧空浮
南川水色繼東海
雪嶽韶光連白頭
神作靈區觀客樂
天開仙境賞人遊
四方韻致如圖美
口不僉言畫不收

玉波 申 鉉 雄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 318

승지양양에 봄경치 흐르니
벚꽃날아 하늘에 뜨네
남대천 물 빛 동해에 이어지고
설악봄빛 백두에 이어졌네
신이 영구를 만들었으니 관광객이 즐기고
하늘이 선경을 열었으니 상인들이 놀다
사방운치 그림같이 아름다워
입으로 말다 못하고 그림으로 거두치 못하네

佳作

讚襄陽春景

襄陽勝地氣清流
景錦煙花印影浮
龍泉桃開脂洞口
洛山梨發粉山頭
微風打院光華樂
麗日乘波浪漫遊
十里櫻途鳴布穀
讚乎都護尚豐收

于旻齋 沈 卿 愛

강원도 강릉시 성덕로 316-22, 이안강릉타운아파트
115동 1502호

양양 승지에 봄기운이 흐르니
비단 경치 아름다운 풍경에 꽃잎 그림자 떠 있네
용천리 복숭아 꽃피어 마을 입구를 연지하고
낙산에 배꽃도 만발해 산머리를 분 단장했네
봄바람에 파크 골프하며 빛나는 기운을 즐기고
봄날에 서핑하며 낭만 있게 논다네
십리 벚꽃 길에 배꾸기우니
기리노라! 도호부여 더욱 거듬을 풍성히 하리라

佳作

讚襄陽春景

襄陽春景燦然流
似畫山河清馥浮
芳草茸茸南水岸
躑花灼灼大峯頭
櫻紅路畔騷人詠
柳綠湖邊賞客遊
朝代燕翁誇祕境
吾尤感嘆興難收

香雲 王 喜 順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84번길 12, 보람빌 401호

양양춘경 찬연히 흐르니
그림같은 산하에 청향이 뜨니
방초는 남대천 둔치에서 아름답고
철쭉은 대청봉두에서 장관을 이루네
앵화붉은 삼선로반에 소인이 읊고
버들푸른 매호가에서 상객이 노래
조선의 연암선생 비경을 자랑하셨으니
나 또한 감탄하여 흥을 거두기 어렵네

佳作

讚襄陽春景

大幹扶桑暖氣流
森羅萬象暗香浮
六風峻嶺鶻花裏
十里長堤樺木頭
雪嶽高山尋寺索
南涯美港弄波遊
周邊處處無非秀
泉石膏肓忍不收

素聲 李 二 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2

백두대간 해 뜨는곳 봄기운이 흐르니
삼라만상이 이름모를 향을 뛰우는 구나
여섯 봉황형세의 준령은 진달래 꽃밭이요
십리삼선로 긴 독은 벚나무의 머리로다
높은 곳 설악산엔 절을 찾아 사색하고
아름다운 남해항에는 서핑을 하며 노는구나
주변 곳곳의 경관이 빼어나지 않은 곳 없으니
자연찾는 고질병을 참을수가 없구나

佳作

讚襄陽春景

襄陽春景好風流
雪嶽殊姿嶺上浮
浩浩大川經過畔
茫茫東海正臻頭
堤櫻滿發詩仙賞
堰草均齊墨客遊
躑躅青峯佳炫目
覽觀處處筆難收

海言 李 仁 奉

제주도 제주시 독짓골 2길 25, 마동 101호

양양의 봄경치 좋은 바람이 흐르고
설악산의 뛰어난 모습 영상에 뜨네
넓고 큰 대천 경계를 거쳐 지나서
넓고 먼 동해 머리에 바로 이르네
독의 벚꽃은 만발하여 시선들 완상하고
방죽의 풀은 균제하여 묵객들 즐겨 노네
대청봉에 철쭉꽃 눈부시게 아름다워
곳곳을 보는데 필재로 거듭기 어렵네

佳作

讚襄陽春景

勝地襄陽春景流

南川芳草白雲浮

桃園蝶舞臨村口

柳幕鶯歌出谷頭

三路櫻花千客樂

大峯躑躅萬人遊

滿眸處處如仙境

陶醉詞林興不收

菡塘 李 載 恒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9-2

양양승지에 봄빛이 흐르네
 방초 남대천에 흰구름이 뜨네

도원에 나비는 춤추며 마을 어귀에 임하며
 유막 꾀꼬리 소리는 골짜기 머리에 나오며

삼선로 벚꽃을 천객이 즐기며
 대청봉 척축은 만인이 놀며

만모처처에 신선세계와 같도다
 도취한 사람들이 흥불수요

佳作

讚襄陽春景

雪岫深溪鳳影流

成屏嶺上白雲浮

千枝躑躅粧峰頂

十里櫻花展水頭

海接風光探客醉

天開仙境賞人遊

襄陽春景武陵恰

讚嘆詞林詩軸收

靑溪 張 文 洙

포항시 남구 지곡로 303, 삼성그린빌라 322동 103호

설악산 깊은 계곡에 봉황의 그림자가 흐르는데
 병풍을 이룬 고개위에는 흰구름이 떠있네

천가지의 철쭉은 봉우리의 정상을 장식하고
 십리 벚꽃은 물머리에 펼쳐지는구나

바다에 접한 풍광에 찾아온 손님들이 취하고
 하늘이 연 선경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노니네

양양의 봄경치가 무릉도원과 흡사하니
 찬탄하는 사람들이 시축을 거두는도다

佳作

白松 張 文 植

讚襄陽春景

경북 상주시 중앙로 178-14, 그린맨션 A동 501호

襄陽春景艷姿流

양양 춘경이 곱게 흐르는데

探訪佳人興感浮

찾아드는佳人들 흥감에 들떠있네

躑躅廣開青壑裏

철쭉 꽃은 대청봉 구릉에 널리피고

櫻花滿發大堤頭

벚꽃은 대제머리에 만발하네

詞林玩榻題詩樂

사림들 구경 자리에는 시 읊어 즐겁고

豪客耽筵勸酒遊

호객들 구경 자리에는 술권하며 노니네

極目煙霞如畫幅

눈에 가득한 연하 그림폭 같은데

奚囊狹小盡難收

주머니가 협소해서 다 거두기 어렵네

佳作

如山齋 張 晟 集

讚襄陽春景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 47번길 11, 포스홈타운 305동 404호

襄陽春景惹風流

양양의 봄경치 풍류를 이끌고

雪嶽山林翠色浮

설악산 숲 비취빛이 떠있네

爛漫櫻花粧洞口

흐드러지게 핀 벚꽃 동구를 꾸미고

滿開躑躅繡峰頭

만개한 진달래 꽃 봉우리를 수 놓았네

靑年海上乘波樂

청년은 해상에서 파도타기(서핑) 즐기고

白髮江邊踏草遊

노인은 강변에서 풀을밟고(파크골프) 노니네

秀麗自然咸讚美

수려한 자연을 모두가 찬미하니

騷人逸興筆難收

소인은 빼어난 흥취에 붓을 거두기 어렵네

佳作

讚襄陽春景

勝地襄陽淑氣流
四圍春景滿眸浮
嬋娟躑躅粧峰上
美麗櫻花染路頭
遠近賞人傾酒樂
京鄉騷客咏詩遊
探看處處真佳境
讚歎蒼生興叵收

愚菴 張 鉉 燮

경북 문경시 흥덕4길 35, 우방@ 102동 501호

승지 양양에 숙기가 흐르니
사위 춘경이 눈에 짝차게 넘치네.
선연척촉은 대청봉을 치장하고
미려앵화는 삼선로를 물들였네
원근상인들은 술잔 기우리며 즐겁고
경향 소객은 시 읊으며 노니네
탐간하는 곳곳마다 진가경인데
찬탄하는 창생들 흥을 거두기 어렵네

佳作

讚襄陽春景

襄陽勝地九春流
雪嶽靈峯淡彩浮
綠草妍芳清水畔
鵲花爛漫小岩頭
南涯美港行吟樂
竹島瓊林讚賞遊
日出湘臺真壯觀
風光秀麗錦囊收

霞山 全 旭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99, 벽산아파트 101동 408호

양양승지에 구십춘광이 흐르고
설악의 영봉에는 엷은 채색이 뿔다오
녹초 아름다운 맑은물 언덕이요
두견꽃 난만한 작은 바위 가일세
남애미항에 행음이 즐겁고
죽도 경림을 찬상하며 놀았다오
의상대 일출이 참으로 장관인데
수려한 풍광을 금낭에 거둔다오

佳作

讚襄陽春景

勝地襄陽淑氣流
峻峯嶺上瑞雲浮
櫻花滿發南川畔
躑躅華奢雪嶽頭
活畫樹林黃鳥囀
清河湖沼白鷺遊
風光到處成佳景
狹窄詩囊未盡收

靜山 崔 在 洛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821번길 18

승지양양에 숙기가 흐르고
높은봉우리 고개위에 서운이 떠있네
남대천 물가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설악산 머리에는 철쭉이 화사하네
그림같은 수림에는 꼬꼬리가 지저귀고
물맑은 호소에는 해오라기가 놀고있네
도처의 풍광이 가경을 이루니
시낭이 험착하여 다 거둘수가 없도다

佳作

讚襄陽春景

春景襄陽絕景流
嶺峰五色瑞雲浮
寒溪澗水源青海
雪嶽樞機幹白頭
洛寺鐘鳴千客逗
梅湖鷺到萬禽遊
朝鮮燕老誇仙境
興趣題詩半未收

庭蘭 崔 再 淑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4길 31-4

양양의 춘경에 절경이 흐르도다
오색영봉에는 서운이 감도네
한계령 간수가 동해 푸른바다의 근원이요
설악산 추기로 백두대간 줄기로다
낙산사 종명에 천객이 머물고
매호의 백로도래지에는 만금이 노는도다
조선의 연암 박지원 선생께서는 여기 선경을
칭찬 하셨으니
이 흥취를 시로 쓰자니 반도 거두지 못할래라

佳作

讚襄陽春景

春景襄陽依舊流
峻峰沿海瑞雲浮
四時景物耽看足
萬世觀光最點頭
處處奇巖驚嘆息
形形祕境漫優遊
終日玩賞忘疲困
描出難堪拙筆收

止止軒 許 泰 榮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33, 840동 301호

양양의 봄날 풍경은 세월이가도 변함없고
힘준한 산들과 해안은 상서로운 구름에 쌓여있다
사시사철 경물은 언제나 즐길수 있고
만세의 관광지로 자리 잡았도다
곳곳의 기암에 놀람과 감탄 하면서
온갖 비경에 마음껏 거닐어 본다
종일 즐겨 감상함에 피곤함도 잊고
표현해 드러내기 어려워 줄필을 거뒀들이다

양양 구석구석



걸으면 행복한 코스

1

해파랑길 41코스

총 길이 12.4km로 해안을 따라 걸으며 항구와 석호를 볼 수 있고 죽도정 정상에서 푸른 바다내음을 느낄 수 있는 코스

주문진해수욕장 ▶ 남애항 ▶ 광진해수욕장 ▶ 휴휴암 ▶ 죽도정

2

해파랑길 42코스

총 길이 9.7km이며 조선시대 우국축정이 깃든 하조대와 38선 분단 역사를 둘러보는 코스

죽도정 ▶ 동산항 ▶ 38선휴게소 ▶ 하조대해수욕장

3

해파랑길 43코스

총 길이 9.3km로 인적 드문 해안길로 이어져 양양의 숨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코스

하조대해수욕장 ➡ 여운포교 ➡ 동호해수욕장 ➡ 수산항

4

해파랑길 44코스

총 길이 12.6km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낙산사와 동해안 관동팔경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

수산항 ➡ 낙산해수욕장 ➡ 설악해수욕장 ➡ 속초 해맞이공원

5

38선숨길 디모테오길

총 길이 18.3km로 해방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 38선을 넘어 남하한 북한 동포들의 도보길

양양성당 ➡ 송이밸리자연휴양림 ➡ 부소치리 ➡ 명지리

6

불바라기 약수길

총 길이 5.8km로 청정지역 미천골자연휴양림에서 산을 타고 불바라기 약수터를 향해 걷는 임도길

미천골자연휴양림 ➡ 미천골정 ➡ 명예정 ➡ 불바라기약수

7

모노길 산림욕장길

총 길이 3.72km로 강원 문화재 자료인 양양향교를 보며 시원한 약수를 맛볼 수 있는 코스

양양향교 ➡ 모노골 약수터 ➡ 내곡리길

8

구룡령 옛길

총 길이 2.8km로 부드러운 산세와 울창한 숲으로 산림욕을 즐기기 좋은 코스

구룡령옛길 입구 ➡ 구룡령옛길 정상



스트레칭

1 개요

스트레칭은 신체 부위의 근육이나, 건, 인대 등을 늘여주는(신전시키는) 운동이다. 체육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준비운동도 스트레칭의 한 종류이다. 운동을 한 끼의 코스 요리 식사로 비유하면 식전주나 애피타이저와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행위로서, 이를테면 인간과 동물 모두 기지개를 켜다. 생체적인 이유로 기지개를 켜면 하품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스트레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관절을 풀어주는 것과 근육을 늘리는 것이 있다. 따라서 스트레칭은 관절의 가동범위 증가, 유연성 유지 및 향상, 혈액 순환 촉진, 상해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 스트레칭의 효과는 건의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장력이 변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로 스트레칭도 과하면 신경 손상까지도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스트레칭의 효과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몸풀기 정도로 여겨지긴 하지만 제대로 된 자세로 10분만 해도 꽤 힘들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운동하기가 힘들다면 스트레칭만 제대로 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보장한다.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기초대사 효율을 높여준다.

3 주의 사항

요가같이 근력 운동 전의 정적 스트레칭은 폭발적인 근력과 순발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키며 그 효과가 30분 이상 정도 지속된다는 견해가 있다. 마냥 낭설만은 아닌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라 도출된 결과긴 하지만, 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정적 스트레칭과 퍼포먼스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실험집단의 풀이 좁고 종목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 완성되지 않은 연구이다. 여러 논문들을 취합하여 도출한 ACSM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본 운동전에는 과도한 정적 스트레칭은 지양하되 워밍업 이후 30초 이내로 과도하게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가벼운 정적 스트레칭, 그리고 동적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경우엔 스트레칭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순간적인 유연성이 증가해 스쿼트, 데드리프트 등 가동범위가 중요한 운동에서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운동이 끝난 이후나 평소에도 틈틈이 실시해주면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고 부상 위험, 근육통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정확한 자세로 실시하여 목표 근육을 정확히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만 보고 따라할 시에는 어떤 근육을 스트레칭하는지 모를 수 있으므로 최소한 사진에 대한 설명이라도 읽어보고 따라하는 것이 효율이 좋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스트레칭을 할 것. 신수지나 손연재 등이 의자 2개 놓고 다리찢기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된다. 스트레칭을 하는 모델이나 강사를 보면서 굳이 그 사람들의 시범을 똑같이 따라할 필요 역시 없다. 스트레칭은 자신의 관절과 근육 가동 가능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관절과 근육이 쭉 펴지는 느낌으로 10~15초 정도 자세를 유지만 해도 스트레칭의 효과는 충분하다. 반동을 줄 필요가 없다. 반동을 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할 때, 반동을 주면서 더 자극을 가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위를 풀어주는 이는 정말로 잘못된 그리고 위험한 방법이다. 반동을 준다는 건 몸을 안 다치는 적정 선을 넘어갔다가 들어오는 행위의 반복으로 이해하면 된다. 만약 지나친 반동으로 관절 가동 범위를 잘못 넘어가면 관절이 빠지거나 근육을 잡아당기면 근육이 파열될 수도 있다. 이는 관절과 근육의 적정 유연성을 넘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다. 유지가 몸의 한계를 인지하고 버티는거라면 반동은 유지하는 것을 참기 힘들어 해당 부위의 근육을 이완 및 수축하는 것이다. 즉, 유지가 반동보다 더 힘들고 반동이 섞인 스트레칭은 스트레칭의 목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상이 생길 가능성만 넘나들을 의미한다. 스트레칭 자세를 풀고도 아픔이 지속되면 그건 몸에 탈이 생겼다는 뜻이므로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목의 측면 등 약한 근육을 스트레칭할 때에는 자세에도 신경을 더 쓰고 급격하게 목을 당기지 않는 등 특히 조심해야 한다. 근육이 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스트레칭 전 가벼운 러닝 등으로 약간의 체온을 올리고 심박 수를 높인 후에 스트레칭을 하는 편이 좋다고 한다.

숙이는 스트레칭은 허리디스크를, 목을 잡아당기는 스트레칭은 목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다.

4 방법

몸을 앞으로 숙여서 무릎 아래를 펼쳐주는 스트레칭은 특히 몸의 유연성을 주어 큰 도움이 된다.

초간단 목 스트레칭: 입을 양 다물고 양 어깨를 뒤로 최대한 모은 후(당연히 가슴이 앞으로 내밀어진다) 목을 최대한 뒤로 젖히고 그 상태로 15초간 있다. 목 디스크가 있거나 거북목 일자목인 사람들에게 좋다. 목 뒤쪽 근육과 등 쪽 근육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다.

고양이처럼 척추 부위를 이완시켜 주는 "고양이 자세"(Marjaryasana) : 요가의 일종으로, 척추와 목뼈의 건강,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 데에 좋다. 재활병원에서는 척추측만증 및 거북목 증후군 환자들에 대한 처방

으로도 활용한다. 여성들의 생리통에도 도움을 준다.

스트레칭 또한 다른 형태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운동 강도와 단계가 있으며, 초기 유연성의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운동방법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스트레칭으로 같은 부위의 근육을 늘린다고 해도 동작의 자세에 따라서 당기는 느낌이 다르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의 개념이 아닌 독립적인 운동으로서의 스트레칭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적 스트레칭이다. 처음에는 근육이 늘어난 자세를 약 5~10초간 유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유연성이 향상되는 상태에 따라 유지 시간을 늘려가며, 최종적으로 30초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부위의 유연성 운동을 2~5회 반복해서 실행하며, 운동은 전체적으로 보통 10~30분 정도 수행한다. 스트레칭에 소요되는 운동시간과 반복 횟수는 실행하는 스트레칭 종류와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단계

- 운동시간 : 각 스트레칭은 근육을 늘린 자세에서 5~10초간 유지한다.
- 휴식기간 : 각 스트레칭 후 약 5~10초간 휴식한다.
- 운동강도 : 스트레치된 근육에 가벼운 통증(척도 1-3정도)이 느껴질 정도로 수행한다.
- 반복횟수 : 각 스트레칭은 2회 반복한다.
- 운동빈도 : 주당 2~3회
- 총 운동시간 : 15~20분

2단계

- 운동시간 : 각 스트레칭은 근육을 늘린 자세에서 10~15초간 유지한다.
- 휴식기간 : 각 스트레칭 후 약 10~15초간 휴식한다.
- 운동강도 : 주 1~2회는 스트레치된 근육에 중간 정도의 통증(척도 2-4정도)이 느껴질 정도로 수행하고, 나머지 주 1~2회는 가벼운 통증(척도 1-2정도) 수준의 강도로 수행한다.
- 반복횟수 : 각 스트레칭은 3회 반복한다.
- 운동빈도 : 주당 3~4회
- 총 운동시간 : 20~30분

3단계

- 운동시간 : 각 스트레칭은 근육을 늘린 자세에서 15~20초간 유지한다.
- 휴식기간 : 각 스트레칭 후 약 15~20초간 휴식한다.
- 운동강도 : 주 2~3회는 근육에 중간 정도의 통증(통증 척도 4-6정도)이 느껴지는 수준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주 2~3회는 가벼운 신장감에서 중간 정도의 통증(통증 척도 1-4정도) 수준의 강도로 수행한다.
- 반복횟수 : 각 스트레칭은 4회 반복한다.
- 운동빈도 : 주당 4~5회
- 총 운동시간 : 30~40분

4단계

- 운동시간 : 각 스트레칭은 근육을 늘린 자세에서 20~30초간 유지한다.
- 휴식기간 : 각 스트레칭 후 약 20~30초간 휴식한다.
- 운동강도 : 주2~3회는 근육에 중간에서 무거운 정도의 통증(통증 척도 6~8정도)이 느껴지는 수준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주 2~3회는 가벼운 신장감에서 중간 정도의 통증(통증 척도 1~6정도) 수준의 강도로 수행한다.
- 반복횟수 : 각 스트레칭은 4~5회 반복한다.
- 운동빈도 : 주당 4~5회
- 총 운동시간 : 15~20분

통증 등급 척도 - 통증을 0~10까지로 하였을 때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10, 통증이 없는 상태를 0 이라 한다.

5 종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알려져 있는 스트레칭 방법은 '탄성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이다. 이는 스트레칭을 하는 형태에 따라 분류된 것이다. 이 외에도 생리학적인 기전, 사용 목적, 방법에 따라 '고유감각 신경근 촉진', '동적 스트레칭', '자가근막 이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칭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능동적 스트레칭'과 '수동적 스트레칭', '수동·능동 보완적 스트레칭'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가. 탄성 스트레칭 (Ballistic Stretching)

스트레칭 동작의 마지막 범위에서 탄성을 이용하여 동작에 반동을 주는 스트레칭 방법이다. 근육을 한계점까지 늘리는 스트레칭으로 관절가동범위 전반에 걸쳐 많은 운동량을 갖는다. 예를 들면 허리 스트레칭을 위해 선 자세에서 몸을 아래로 굽힌 후, 반동을 주어 굽힌 자세에서 위 아래로 반복해 움직이는 동작을 들 수 있다. 이런 탄성 스트레칭은 빠른 속도로 행해지기 때문에 운동할 때 부과되는 힘뿐 아니라 강도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자칫 잘못하면 근육 또는 연부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해당 부위의 근육 수축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나. 정적 스트레칭 (Static Stretching)

느리고 일정한 속도로 스트레칭 동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약 15초에서 30초 정도 근육을 최대로 늘린 상태로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으로 탄성 스트레칭이나 동적 스트레칭에 비해 안전하다. 또한 특별한 기법이나 기술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유용한 운동이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격렬한 스포츠 활동을 하기 전에 집중적인 정적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운동의 수행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부상 예방에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결과가 밝혀지기도 했다.

다. 고유감각 신경근 촉진 (PN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고유감각 신경근 촉진은 관절가동범위 즉,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운동법이다.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능동적인 근활동이 동반되는 운동으로, 근육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수축시키거나 수동적으로 늘리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개인이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이 방법을 적용시켜 줄 전문가 또는 파트너가 필수적이다.

라. 동적 스트레칭 (Dynamic Stretching)

빠른 동작으로 수행되는 것이 탄성 스트레칭과 유사하지만, 동작에 반동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특히 동적 스트레칭은 스트레칭 후 수행될 스포츠나 운동 동작과 유사한 동작으로 수행된다. 예를 들어 양 발을 번갈아가며 앞으로 굽혀 걷거나 무릎을 약간 굽히고 가슴에 닿을 정도로 올리며 앞으로 걷는 등의 동작으로 수행된다. 이와 같은 동적 스트레칭은 실제 동작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운동이나 스포츠의 준비과정이나 일상 생활에서 적절히 사용될 수 있지만, 정적 스트레칭에 비해 균형능력과 신체 여러 부위가 잘 협동해서 동작을 수행하는 협응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마. 자가근막 이완 (Self Myofascial Release)

자가근막 이완은 인체의 신경시스템과 근육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이다. 스스로 수행하는 동작뿐 아니라 스트레칭 하는 부위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폼 롤과 같은 도구를 주로 이용)를 사용해 운동한다. 사용한 도구의 압력을 통하여 근육과 건에 있는 ‘고유수용기’ (근육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여 반응하게 하는 센서 역할을 함)를 자극하거나 흥분을 감소시켜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예를 들어 선 자세에서 발 밑에 테니스공을 놓고 발을 굴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 운동방법은 근육과 근막의 정렬상태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바. 능동적 스트레칭 (Active Stretching)

능동적 스트레칭은 외부 보조 없이 자신의 근육을 스스로 늘리는 스트레칭 방법이다.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잡고 위로 올리는 것은 수동적 스트레칭이지만, 손으로 잡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올리는 것은 능동적 스트레칭이다. 능동적 스트레칭은 수동적 스트레칭에 비해 운동범위가 넓지 않지만, 스포츠 활동이나 운동과 관련성이 크다.

사. 수동적 스트레칭 (Passive Stretching)

수동적 스트레칭은 다른 스트레칭과 다르게 스스로 스트레칭을 하는 힘을 발생시키면서 하지 않는다. 보통 파트너나 특수한 기구 또는 외부의 요소에 의해 운동이 수행된다. 예를 들어 발레리나가 긴 평행대 위에 다리를 올리는 것, 또는 자신이 아닌 타인이 스트레칭 부위를 잡고 늘려 주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이러한 수동적 스트레칭은 스스로 힘을 발생시키거나 주도적으로 할 때에 비해 더 넓은 범위로 스트레칭 할 수 있으며, 근육이 뻣뻣하여 유연성이 제한적일 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024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편집실〉

양양문화원, 왕성한 활동으로 향토문화 증진

강원일보 2024. 01. 02. 이규호 기자

양양문화원이 왕성한 활동을 통해 지역 향토문화를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양문화원은 지난해 제13회 전국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 제8회 전국한시지상백일장,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등을 개최했으며 문화학교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25개 교실을 운영했다. 또 양양양수발 전소의 지원을 받아 허억봉선양 대금교실을 진행했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페인팅체험 행사, 제45회 양양문화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군민들의 문화갈증 해소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 학교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28일 '문화학교의 수료식'과 '작품 전시회'를 300여명의 군민이 함께한 가운데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블랙엔젤, 색소폰앙상블, 양양600합창단 등 문화학교 동아리 공연도 펼쳐져 흥겨운 무대를 연출했다.

박상민 원장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양양문화원이 2023년 한해 향토문화 선양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2024년에도 군민 여러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양문화원 지역향토문화 증진 기여 눈길

강원도민일보 2024. 01. 03. 최훈 기자

문화학교 수료생 297명 배출 등

양양문화원이 지난 한 해 왕성한 활동을 통해 지역향토문화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문화원은 3월부터 25개 문화학교를 개설해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한시백일장, 허억봉선양 대금교실, 전국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 등과 함께 '양양문화' 제35호 발간 등 향토사 자료수집과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이 가운데 주민들의 문화갈증 해소를 위해 매년 개설하고 있는 문화학교는 사물놀이, 통기타, 취타대 등의 강좌를 운영해 29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와함께 지난 연말에는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통해 한시, 한문·한글서예, 한국화, 수채화, 인두화 등 100여점의 작품을 전시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특히 문화학교 어울소리민요단은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문화동아리경연대회에서 '은상', 한가람풍물패는 제28회 강원특별자치도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박상민문화원장은 "문화원 부설 양양학연구소가 지역의 역사 조사를 통해 책자를 발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학연구발표대회에서 '양양남대천에 대한 고찰' 논문을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낳았다"며 "올해는 향토자료 축적과 함께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양문화원 신규공존 문화증진 기여 지난해 다양한 문화활동 펼쳐 / 역사문화 조사발굴·DB 구축

설악신문 2024. 01. 08. 김주현 기자

양양문화원이 지난해 왕성한 문화활동을 바탕으로 올해도 신규공존



의 문화증진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양양문화원(문화원장 박상민)이 지난해 향토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현대 흐름에 부합하는 맞춤형 신규공존의 문화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양양문화원은 지난해 제13회 전국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와 제45회 양양문화제의 성공 개최를 비롯해 제8회 전국한시시상백일장과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개최, 허억봉선양 대금교실 운영,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페인팅체험 등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생활문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10개월 간 문화학교 25개 교실을 운영해 29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지난해 11월 28일 '문화학교의 수료식'과 '작품 전시회'를 열어 수강생들이 제작한 작품 100여점을 선보였다.

문화학교 여울소리민요단은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문화동아리경연대회에서 '은상'을, 한가람풍물패는 제28회 강원특별자치도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회원이 크고 작은 대회에서 입상했다.

또한 '양양문화' 제35호 발간, 향토사 자료 수집 및 책자발간, 역사문화 조사발굴 및 DB구축사업 등을 왕성하게 추진했다. 양양문화원 부설 양양학연구소는 양양지역의 역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양양의 역사 책자를 발간했으며, 지난해 6월 열린 제33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학연구발표대회에서 '양양남대천(襄陽南大川)에 대한 고찰(考察)'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양양문화원이 2023년 한해 향토문화 선양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새해도 군민 여러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00여년 오랜 역사 ‘양양’을 소개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08. 최훈 기자

양양문화원 '양양의 역사' 발간/오색케이블카 착공식까지 기록/“사료 아카이빙 사업 진행 중”

“600여년의 오랜 역사에도 여전히 젊고 ‘핫’한 도시 ‘양양’을 소개합니다.”

양양문화원이 새롭게 '양양의 역사' 책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양양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 '양양군지'를 비롯해, '향토지', '양주지' 등 많은 사료집을 발간해 왔다.

하지만 이들 사료집의 경우 워낙 많은 자료를 수록하다 보니 양이 너무 방대하고, 발간주기 또한 30년마다 한번씩 이뤄지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류상을 그때그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이번에 발간된 '양양의 역사'는 300쪽 정도의 단행본으로 선사시대부터 삼국·고려·조선시대를 거쳐 분단과 수복,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한 권의 책에 꼼꼼하게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양양군지' 발간 이후 서울양양고속도로 건설, 서핑문화와 스마트 관광, 양양중고와 여중고의 통합 등은 물론 2023년 11월 20일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착공식까지 기록했다. 박상민 문화원장은 “최근 들어 ‘서핑’ 등으로 양양군이 ‘핫’한 도시로 탈바꿈하고, 귀농·귀촌 인구도 늘면서 ‘양양’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 책을 발간하게 됐다”며 “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많은 사료들을 SNS상에서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아카이빙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양문화원, 2024년도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강원일보 2024. 02. 04. 이규호 기자

양양문화원이 지역 전통 문화유산의 계승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2024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양양문화원은 군민들의 문화갈증 해소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문화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모집 분야는 난타와 민화, 사물놀이 등 26개 강좌로 모집 정원은 440명이다.

문화학교 수강료는 무료이며,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좌를 위해 10개 강좌는 초급·중급으로 나뉘져 있어 많은 수강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양양문화원에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강좌별 수강생이 확정된다.

개강식은 3월4일 오전 11시 일출예식장에서 열리며, 강좌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씩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판소리 강좌가 새롭게 편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양양문화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총 25개의 문화강좌를 운영해 29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양양문화원, 2024년도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2월15일까지 모집, 사물놀이·수채화·서예 등 26개 강좌 운영

유교신문 2024. 02. 02. 전남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이 지역 전통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2024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양양문화원은 군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문화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모집 분야는 26개 강좌(난타, 민화, 사물놀이, 한국화, 수채화, 한글서예, 한문 서예, 통기타, 민요, 태평소, 취타대, 한시, 색소폰, 양양 600 합창단, 인두화 등)이며, 모집 정원은 440명이다.

문화학교 수강료는 무료이며,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좌를 위해 10개 강좌는 초급·중급으로 나뉘어져 있어 많은 수강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양양문화원에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강좌별 수강생이 확정된다.

개강식은 오는 3월 4일 오전 11시 일출예식장에서 열리며, 강좌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씩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양양의 역사 속 인물인 허억봉에 대한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한 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에서 지원하는 대금 교실을 2017년 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오는 3월부터 서면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접수 받아 4월 4일부터 강좌가 시작될 예정이다. (수강생 부족 시 군으로 확대하여 접수)

또한, 올해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판소리 강좌가 새롭게 편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은 “올해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양문화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총 25개의 문화강좌를

운영해 29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양양문화원 정기총회

강원도민일보 2024. 02. 18. 최훈 기자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은 16일 일출웨딩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은 16일 일출웨딩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제46회 양양문화제위원회

강원도민일보 2024. 03.28. 최훈 기자

▲ 제46회 양양문화제위원회 정기총회가 28일 양양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제46회 양양문화제 집행을 위한 집행위원회회의

강원일보 2024. 05. 15.



제46회 양양문화제 집행을 위한 집행위원회회의가 지난 14일 양양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군민 대화합' 양양문화제 20일 막 올린다

전국매일신문 2024. 06.18. 박명기 기자

22일까지 양양남대천 수변공원 일원서 개최



지난해 열린 양양문화제페레이드. [양양군 제공]

제46회 양양문화제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양양남대천 수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 군에 따르면 양양문화제는 유구한 역사 속에 전통문화를 활짝 꽃 피운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지역 대표 향토문화축제다.

이번 제46회 양양문화제는 오는 20일 시가행진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군민 결속과 화합을 위한 양양군민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와 함께 민속 공연 및 체험거리 등 풍성한 즐길거리가 준비 돼있다.

먼저 20일 오전 국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고치물제와 성황제가 각각 고치물샘터와 성황사에서 열려 양양문화제의 시작을 알린다. 오후 4시부터는 각급 학교와 기관·사회단체, 군부대 등 민·관·군 5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우리 고유의 전통 악대인 취타대를 선두로 ▲제등행렬 ▲양주방어사 및 대포수군만호 행차 ▲신식기인 가장행렬 ▲양양농악 행렬 ▲6개 읍면 홍보 퍼레이드 ▲5개 봉사단체 홍보퍼레이드 등 시가 행진이 펼쳐진다.

오후 6시 30분에는 양양남대천 수변공원 특설무대에서 전문배우와 보훈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양양민세운동 재현행사를 선보이고, 이어서 군민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개막식이 진행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윤여준 양양문화원 고문(문화예술 부문), 엄주현 前서면이장협의회회장(사회봉사 부문), 박상만 대한자연가연맹 이사(체육 부문)가 향토문화진흥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군민문화상을 수여받는다.

개막식 후 식후행사로 초청가수의 공연과 군민노래자랑 등이 진행되며, 공연이 끝난 오후 10시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져 올해 46회를 맞이한 양양문화제의 개막을 축하할 예정이다.

21일에는 지역 청소년들의 유도시범, 읍·면 농악시연 및 한마당 잔치,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인 상복골 농요소리와 수동골 상여소리 민속시연이 펼쳐지며, 이와 함께 제기차기, 목침뺏기, 투호, 윷놀이, 씨름, 팔씨름, 한궁, 줄다리기 등 민속경기와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날 저녁에는 초청가수 공연과 지역 동아리 공연이 진행돼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예정이다.

축제기간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취타대회 △바둑대회 △현산백일장 등 경축준예행사가 열리고, 행사장 내에는 ▲농·특산물 및 향토음식 홍보관 ▲공예품 전시 ▲양양 옛사진 전시 및 양양역사관 운영 ▲양양10경 사진 전시 ▲서예·한국화·수채화 작품 전시 ▲아나바타 장터 등 40여개 기관·단체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

리를 준비했다.

22일에는 양양군체육회 주관 '양양군민 화합 한마당잔치'가 진행돼 읍면 대항 레크레이션과 족석게임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열리며, 이후 오후 4시에 열리는 폐막식을 끝으로 3일 간의 축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양문화제 관계자는 "양양문화제가 지역에 대한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양지역 최대 향토축제 양양문화제 20일 개막

강원일보 2024. 06. 19. 김보경 기자

양양군민의 대화합 향토문화축제인 제46회 양양문화제가 20일 개막, 22일까지 3일간 양양남대천 수변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양양문화제 위원회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양양군체육회가 공동 주관하는 양양문화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문화축제다. 올해로 제46회를 맞았으며, 20일 시가행진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군민 결속과 화합을 위한 양양군민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민속 공연 및 체험거리 등 풍성한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 행사 첫 날인 20일 오전에는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고치물제와 성황제가 각각 고치물샘터와 성황사에서 열려 문화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오후 6시30분 양양남대천 수변공원 특설무대에서 양양만세운동 재현행사가 펼쳐지고 군민 문화상 시상과 함께 개막식이 진행된다. 식후행사로 초청가수의 공연



◇지난해 열린 양양문화제 중 시가행진 모습.

과 군민노래자랑 등이 예정돼 있으며, 공연이 끝난 밤 10시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마지막날인 22일에는 읍·면 대항 레크레이션과 족석게임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화합의 장인 양양군민 화합 한마당잔치가 마련된다. 박상민 양양문화제위원장은 "양양문화제는 전통과 예향의 맥을 이어가는 지역 고유의 향토문화 축제"라며 "양양문화제가 지역에 대한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풍농풍어 기원' 양양문화제 오늘 개막

강원도민일보 2024. 06.20. 최훈 기자

사흘간 남대천 수변공원 일원에서 양양지역 주민들의 한마당 잔치인 제46회 양양문화제가 20일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양양문화제위원회(위원장 박상민)는 설악권의 전통문화축제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양양문화제를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남대천 수변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양군민의 대화합 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향토문화축제인 양양문화제는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지역 대표 향토문화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첫날 고치물제와 성황제 등 제례행사로 시작되는 올 양양문화제는 오후 4시 각급 학교와 기관·사회단체, 군부대 등 민·관·군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취타대를 선두로 시가행진이 펼쳐진다. 또 오후 6시 30분 남대천 수변공원 특설무대에서는 양양만세운동 재현행사와 함께 윤여준 양양문화원 고문(문화예술 부문), 엄주현 전 서면이장협의회회장(사회봉사 부문), 박상민 대한자연거명맹 이사(체육 부문)에게 각각 군민문화상이 수여된다. 이어 식후행사로 초청가수 공연과 군민노래자랑 등이 진행되며, 공연이 끝난 오후 10시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져 양양문화제의 서막을 알리게 된다. 개막식 후 21일부터는 청소년들의 유도시범, 읍·면 농악시연 및 한마당 잔치 등 민속경기와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양양군민의 대화합 향토문화축제인 제46회 양양문화제 성료

강원일보 2024. 06. 24. 김보경 기자



11개종목 겨룬 민속경기대회 강현면 최우수상 영예 '명품도시 양양' 만들어가는 원동력 될 것으로 기대

양양군민의 대화합 향토문화축제인 제46회 양양문화제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마무리됐다. 양양문화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과 양양군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20일부터 22일까지 지역 일대에서 주민들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화합의 축제로 치러졌다. 행사 첫날 지역 학교와 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 5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가행진이 열려 축제열기를 고조시켰다. 양양남대천 수변공원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 재현 행사는 양양이 호국과 애국충절의 고장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개막식은 향토문화진흥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들을 축하하는 군민문화상 시상과 초청가수 공연, 군민노래자랑 등으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21일 열린 6개 읍·면 농악시연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인 '상복골 농요소리', '수동골 상여소리'도 볼거리로 인기를 모았다. 민속경기에서는 강현면이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양양읍과 현남면이 각각 우수상을, 현북면, 손양면, 서면이 장려상을 받았다. 박상민 양양문화제위원장은 "이번 문화제를 통해 보여준 군민의 자긍심과 단합된 의지는 명품도시 양양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양문화원, 제14회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참가자 모집

전국매일신문 2024. 10. 22 박명기 기자



제14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홍보물. [양양문화원 제공]

강원 양양문화원이 내달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제14회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참가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이 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임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으로 대우받은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고유의 전통 소리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개최해온 전통민요 경창대회

이다.

지난 2011년부터 도 단위 대회로 격상돼다시 1회 대회로서 새롭게 시작됐으며 타 지역 경창대회와는 다르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을 고려해 2017년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양양문화원에서 주최·주관하고 양양군이 지원하는 이번 경창대회에는, 전국에서 참여한 일반부 단체와 개인, 대학부의 소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 실력을 겨루게 된다.

올해 대회는 11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리며예선과 본선을 통해 통합대상 1개 팀과, 일반부 단체 최우수·우수·장려(장려 2개팀), 일반부 개인 최우수·우수·장려(장려 2개팀), 대학부 최우수·우수·장려(장려 2개팀), 동구리 소리상 5개 팀으로 총 18개 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개인은 연장자 순, 단체는 다수참가자 순으로 수상자를 정한다. 수상자에게는 2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의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참가부문은 농요와 어요, 노동요 등 전통민요(대학부는 십이잡가 가능)이며 대통령상 수상자와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전년도 동구리 경창대회 통합대상 수상팀은 대회 취지를 고려해 참가할 수 없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이달 31일 오후 6시까지 문화원 홈페이지와 국악신문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문화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yangyang033@kccf.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양양문화원 관계자는 "진정한 소리꾼을 발굴하는 행사로 동구리 경창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며 "경창대회를 통해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지역의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양문화원, 우리 고유 전통 노래와 소리꾼을 찾는다

강원일보 2024. 10. 22. 김보경 기자

양양문화원이 우리 고유의 전통 노래와 소리꾼 찾기에 나선다. 양양문화원(원장:박상민)은 다음달 12, 13일 이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제14회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를 개최한다.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임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으로 대우받은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고유



◇ 지난해 열린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입상자와 양양군 및 양양 군의회, 양양문화원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 전통 소리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열고 있다. 이번 경창대회에는 전국에서 신청한 일반부 단체와 개인, 대학부의 소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 실력을 겨루게 된다. 통합대상 1개 팀과, 일반부 단체 최우수·우수·장려(장려 2개팀), 일반부 개인 최우수·우수·장려(장려 2개팀), 대학부 최우수·우수·장려(장려 2개팀), 동구리 소리상 5개 팀 등 총 18개 팀을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31일까지 양양문화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yangyang033@kccf.or.kr)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상민 문화원장은 “진정한 소리꾼을 발굴하는 행사로 동구리 경창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며 “경창대회를 통해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양문화원, 전국 동구리 경창대회 개최 12일~13일까지 문화복지회관에서 ‘제14회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설악뉴스 2024. 10. 22. 송준현 기자

양양문화원(문화원장 박상민)이 오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14회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임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으로 대우받은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고유의 전통 소리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개최해온 전통민요 경창대회이다. 지난 2011년부터 도 단위 대회로 격상되어 다시 1회 대회로서 새롭게 시작되었으며, 타 지역 경창대회와는 다르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을 고려해 2017년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양양문화원에서 주최·주관하고 양양군이 지원하는 이번 경창대회에는, 전국에서 참여한 일반부 단체와 개인, 대학부의 소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 실력을 겨루게 된다.

올해 경창대회는 11월 12일(화)과 13일(수) 이틀간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리며, 예선과 본선을 통해 통합대상 1개 팀과, 일반부 단체 최우수, 우수, 장려(장려 2개팀), 일반부 개인 최우수, 우수, 장려(장려 2개팀), 대학부 최우수, 우수, 장려(장려 2개팀), 동구리 소리상 5개 팀으로 총 18개 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개인은 연장자 순, 단체는 다수 참가자 순으로 수상자를 정한다. 수상자에게는 2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의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참가부문은 농요와 어요, 노동요 등 전통민요(대학부는 십이 잡가 가능)이며, 대통령상 수상자와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전년도 동구리 경창대회 통합대상 수상팀은 대회 취지를 고려해 참가할 수 없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양양문화원 홈페이지(www.yangyang.or.kr)와 양양문화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yangyang033@kccf.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양양문화원은 진정한 소리꾼을 발굴하는 행사로 동구리 경창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경창대회를 통해 국악 인재를 발굴해 오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제13회 동구리 경창대회



이달 말까지 양양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참가자 모집

강원도민일보 2024. 10. 24. 최훈 기자

내달 12~13일 개최, 상금 300만원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내달 12, 13일 이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펼쳐진다.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은 올해로 제14회째를 맞는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참가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임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으로 대우받은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고유의 전통소리와 음악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회다. 이후 이 대회는 지난 2011년 도 단위 행사로 격상돼 '1회 대회'로 새롭게 시작되는데 이어 타 지역 경창대회와 달리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다는 점을 고려해 2017년부터는 전국단위 대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서 참여한 일반부 단체와 개인, 대학부 소리꾼이 참여하는 이번 경창대회에는 예선과 본선을 통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 실력을 겨뤄 통합대상 1개 팀과, 일반부 단체와 개인, 대학부에서 각각 최우수·우수·장려(2팀), 동구리 소리상 5개 팀 등 총 18개 팀을 선발, 각각 2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성료

G1방송 2024. 11. 14. 이종우 기자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지난 12, 13일 이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양양문화원이 주최하는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관노 출신임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으로 대우받은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고유의 전통소리와 음악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일반부 단체와 개인, 대학부 소리꾼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선 예선과 본선을 통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가 선보였습니다.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및 전시회 개최

전국매일신문 2024. 12. 3., 박명기 기자

지역 전통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된 강원 양양문화원 문화학교의 수료식과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양양문화원은 군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문화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난타·민화·사물놀이·한국화·수채화·한글서예·한문서예·통기타·민요·태평소·취타대·한시·색소폰·양양600합창단·인두화·고전 등 25개 강좌가 운영되어, 316명의 수강생이 수료한다. 문화학교는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일부 강좌는 초급·중급으로 나뉘어져 있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료식에는 문화원 관계자 및 수료생들을 비롯하여 조영호 양양군부군수, 이종석 양양군의회 의장 및 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타대 식전공연 △개회식 △문화원장 인사말 및 내빈 축사 △우수수강생 시상 및 강사소개가 진행되고, 이어서 사물놀이·600합창단·태평소·통기타·색소폰·민요·난타 등 그간 수강생들이 갈고닦은 발표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양양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작품 전시회에서는 한시·한문서예·한글서예·한국화·수채화·민화·인두화·고전 강좌 수강생들이 작품 150여점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양양문화원 관계자는 "내년에도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및 전시회

강원일보 2024. 12. 03.





지역 전통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된 양양문화원 문화학교의 수료식과 작품 전시회가 3일 일출웨딩홀과 양양문화원에서 열렸다.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및 전시회 개최 25개 강좌에 수강생 317명 수료, 서예·민화·수채화 등 작품 전시회

유교신문 2024. 12. 03. 전남표 기자

지역 전통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된 양양문화원 문화학교의 수료식과 작품 전시회가 12월3일 오전 10시 30분에 일출 웨딩홀과 양양문화원에서 각각 열린다.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은 군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문화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난타, 민화, 사물놀이, 한국화, 수채화, 한글서예, 한문서예, 통기타, 민요, 태평소, 취타대, 한시, 색소폰, 양양 합창단, 인두화, 고전 등 25개 강좌가 운영되어, 316명의 수강생이 수료한다.

문화학교는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일부 강좌는 초급·중급으로 나뉘어져 있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료식에는 문화원 관계자 및 수강생들을 비롯하여 조영호 양양군 부군수, 이종석 양양군의회 의장 및 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타대 식전공연 >개회식 >문화원장 인사말 및 내빈 축사 >우수수강생 시상 및 강사소개가 진행되고, 이어서 사물놀이·600 합창단·태평소·통기타·색소폰·민요·난타 등 그간 수강생들이 갈고닦은 발표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양양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작품 전시회에서는 한시, 한문 서예, 한글서예, 한국화, 수채화, 민화, 인두화, 고전 강좌 수강생들이 작품 150여 점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양양문화원 관계자는 “수강생들의 결실이 담긴 이번 작품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길 바란다”라며, “내년에도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편	집	후	기	
--	---	---	---	---	--

존경하는 문화원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열정과 노력이 발하는 한해, 새로운 도전과 성공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문화원에서는 전국한시백일장, 전국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 문화공연을 비롯한 문화학교 25개 교실 운영, 허억봉 선양사업으로 대금반을 운영 등 많은 문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나, 제46회를 맞은 양양문화제는 남대천 수변공원 일원에서 다채롭게 진행하였으며, 전통 악대인 취타대를 선두로 대포수군·양주방어사 행차 등 많은 사회 단체와 함께 풍요로운 시가행진을 군민들께 보여줬습니다. 문화사업 중 DB구축사업은 양양의 옛 자료와 사진, 영상을 정리하는 등 많은 자료를 저장하며 진행하고 있고, 문화원 부설 양양학 연구소는 양양 지방의 옛길에 대한 연구로 “양양지방의 영(嶺)”을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고, 향토 문화교육을 통해 “영(嶺)”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문화원 임원과 회원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모든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사랑과 관심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2025년 을사년 뱀띠해에는 회원 모두가 건강, 화합, 소통을 바탕으로 문화를 즐기며 행복한 문화생활과 향토 문화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기를 소망하며, 새해에는 회원 모두가 삶이 더욱 빛날 수 있는 한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김 진 하

양양문화 제36호

2024년 12월 26일 인쇄

2024년 12월 27일 발행

발행인 : 박 상 민

편집인 : 김 진 하

발행처 : 양양문화원

인쇄처 : 대양프리컴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 홍련암**

낙산사 대중일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 033)672-2447~8